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주간) 제 339 호



금주법구

잠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법구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교계 인터넷 적응력 부족

본사(本社)의 붓다뉴스팀이 최근 국내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DVB 구축을 위해 유관 사이트들을 서핑하며 전통사찰에 대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850여 전통사찰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운영이 잘 되건 그렇지 않건 인터넷상에서 직접 찾아 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갖춘 전통사찰도 1백여 곳을 조금 넘을 뿐이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적응도라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석 달 전에 발표된 한 조사기관의 '국민 인터넷 사용 실태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로 추산된 바 있다. 불자의 절반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불자들이 즐겁게 드나들 수 있는 '법당'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세련된 디자인과 알찬 내용을 담은 불교관련 사이트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법당 짓기 불사가 경쟁이라도 벌이기를 바라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 아닐까.



물론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세가 올바른 인터넷 불교 문화를 창조해 낼 때 사이버 법당의 가치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 현재 개설된 불교 사이트 200여 곳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와 인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영영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의 부재다. 불교계라고 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IT산업의 기본 수단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포교와 정보교류, 각종 종무 행정의 총아다.

각 종단의 행정기관이나 교구본사급의 큰절 혹은 유력 단체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들이 이미 그 효력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만시지탄 일지언정 누군가는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의 당사자는 남이 아닌 바로 '나'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인터넷은 생활이고 생활과 유리된 불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연태(뉴미디어부장)

장 군 죽 비

◇한국불교, 만리장성 너머에 정법의 당간 세운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과연 전할만 한가를 먼저 살피자. (1·3면)

◇위기의 지구가 보내온 긴급 구조 요청. '어디 환경보살 없나요?' 물 한방울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아시죠? (4·5면)

◇'주 5일 근무 한다고?'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불자 100명 중 77명, '나는 공부하러 산사로 간다.' (8면)

◇부모·자식 종교 불일치 불교가 가장 심하다. 자식이 닮고 싶은 불교 신자가 이렇게 적었먼가. (27면)

"한·중 불교 활성화 공동 노력"

정대 스님-리란칭 부총리 합의 … 선불교 교류도 정례화

조계종 대표단 中 공식 방문

조계종이 중국정부와 불교를 통한 양국 우호협력 증진과 중국 불교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단장 정대 총무원장) 20명은 지난 11일 영빈관인 베이징 중남해 회견청에서 리란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선불교 교류뿐 아니라 우호방문도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이날 공식 회담에서 정대스님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다 보면 문화가 소홀해지기 마련이다"며 "불교는 한국에서도 호국불교라 불릴 만큼 도전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진흥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중국정부가 불교문화 진흥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리란칭 부총리는 "중국인민이 추앙하는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상 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 대표지도자인 정대스님을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한국의 조계종과 중국 종교국의 관계가 긴밀해질때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조계종이 중국불교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양국 불교교류 외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대표단은 10일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염소문 중국 종교국장과 만나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반대, 양국 불교 활성화에 한·중 불교계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염소문 국장은 "장쩌민 주석과 주룽지 총리도 불교경전에 깊은 조예가 있다"며 "중국은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여 배운 경험이 있는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정신문화, 특히 한국불교문화를 따라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 총무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중국정부 종교국, 불교협회 관계자들을 한국에 공식 초청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염소문 국장은 "한국불교계에서 초청하면 꼭 방한하겠다. 중국 종교국, 불교협회와 조계종이 방문교류를 자주 갖자"고 화답했다.

중국불교협회 외사사부장 보정스님은 "중국정부가 조계종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중국불교계의 위상을 높여준 획기적인 일이됐다"며 "정대스님의 중국방문으로 인해 양국불교 교류가 강화되고 중국불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계종 대표단에는 총무원장 정대, 전 포교원장 정련, 전 종회의장 법등, 호계원장 월서, 종회의장 지하, 종회 부의장 명진, 총무부장 원택, 사회부장 양산, 기획실장 현고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중진스님 20명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3면

베이징=김원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리란칭 중국 부총리는 11일 영빈관인 중남해 회견청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불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자 86% "주 5일 근무제 찬성"

일간 '붓다뉴스 닷컴' 네티즌 581명 설문

네티즌 불자들의 다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본지가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 닷컴(www.buddhanews.com)'을 이용해 실시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네티즌 불자 인터넷 설문'에서 불자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에 참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신행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대~50대 네티즌 불자 581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86%가 주 5일 근무제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18%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에도 지금의 신행생활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신행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은 3%로 나타났다. 또한 네티즌 불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의 마련', '불교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사찰안내 및 홍보자료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는 30대~40대 네티즌 불자의 참여율(68%)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네티즌 불자의 응답률도 10%나 됐다. ☞관련기사 8면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사 령

김병규
㉥ 주필 겸 경영총괄 본부장

서정만
㉥ 경영총괄 부본부장(이사대우)

2001년 10월 15일자

"문화재 국고보조금 종단 관리·감독 강화"

조계종 성보보존위 회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과 관련, 불교계의 이미지 개선과 왜곡된 외부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열린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회의에서 성보보존위원들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종단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현재로선 지방 사찰이 종단에 보고만 하는 수준이라 합리적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보수 범위, 보수 내역 등에 관한 종단 차원의 큰 틀을 마련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총무원 문화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정기종회 11월 1~15일 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제 152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는 △사면 복권 관련 종헌 개정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종립학교관리법 개정 △원로회의법 개정의 건등 종헌종법 개정과 2546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2545년도 총무감사 보고,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의 건' 처리결과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원우 기자

창간 7주년 특집 28면 발행

환경좌담 '지금은 생명운동시대' 4·5면
'21세기는 불교의 시대' 현황과 과제 7면
'주5일 근무제' 불자네티즌 설문 8면
재가불교운동 10년 박광서 씨-김동흔 씨 9면
IT기획 사이버 스타 스님들 12면
군법당 세운 전역 군종병들 26면
선농일치 '일과 깨달음 도량' 27면



7. 佛法의 진리를 향한 믿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탁자 닫집 만큼은
전문업체에 맡기 십시오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목공부 – 탁자, 닫집, 경탁 외
▲건축부 – 전통, 현대식 건축

佛事시공 전문·담채 도색 유일 업체

대한불교예술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45-5
TEL : 031-542-3296 / FAX : 031-543-1686
사 장 한성용 (011-336-5200)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와공부 – 단청, 탱화, 담채



사 설

한·중 불교교류에 바란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지도적 위치에 있는 스님들을 공식 초청하였다. 한 중 불교교류가 우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를 배워 전통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중국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여겨진다.

중국불교는 역사상 여러 번에 걸쳐 한국불교를 수입하여 불교부흥을 도모한 바가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체관스님이 천태관련 전적들을 지금의 항주지방에 자리잡고 있었던 오월국에 전해 불교부흥에 이바지한 일이다. 고려 의통보운스님 역시 중국에 들어가 지금의 절강성 영파지방을 중심으로 교화활동을 하며, 중국천태종 제15대 조사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두 나라 모두 한자문화권에서 문화와 역사를 창달하였기에 그만큼 이질감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동양사회의 중심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화나 사조는 이내 우리 나라에 수입되어 응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문화의 본류(本流)를 우리가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특히 21세기의 중심지역이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며, 이 지역의 공통분모 중의 하나가 불교사상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망각해선 안될 일이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선 종교가 언제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중국문화의 정수로 생각하는 선문화는 한문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의 문화이며, 이것의 고집은 국수주의에 흐를 우려가 있다. 근대불교운동의 기수를 담당했던 구양경무가 "중국불교 패망의 제일 원인은 선종에 있다"고 절규하면서 순수인도불교 이론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도 자신의 현재모습이 과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종교사회의 종교현실 속에서 한국불교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 양국의 불교계가 합심하여 21세기 새 문명을 창달하는 기수가 되길 기원한다.

주 5일 근무제와 신행생활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전한 정법은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인 진리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해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편설로 드러나기에 철저하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상응하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현실의 흐름과 경향에 맞는 방편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도, 대중적인 포교의 장에 있어 더욱 절실하다.

이번에 본지가 실시한 '주 5일 근무시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간적 여유를 산사를 찾거나 신행활동을 하는데 쓰겠다는 불자들, 법회나 수련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삶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의 추구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교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알차고 시의성 있는 포교 방편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요구가 일어날 때 제대로 그에 부응 못하고 그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다음의 기회도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져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진입했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느라,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여유와 풍요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진 지금 그에 대한 갈증과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불교가 참신하고 시의성 있는 포교 방편을 통해 그러한 요구에 답하여야 함도 너무나 당연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포교 방법에 불교계와 불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폐지 논란

학교측 "유아교육과 자격증 전원 취득"

재학생 "종립대서 폐과 불가 환원해야"

"불교아동학과 폐과는 어떤 이유로도 안된다."

"유아교육과로 전환하면 보다 많은 유치원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불교아동학과'를 '유아교육과'로 전환한 데 대해 재학생 및 동문스님들의 입장이 학교 측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동국대가 지난 9월 중순 교육부로부터 50명 정원의 불교아동학과 대신 정원 30명의 유아교육과 인가를 받으면서부터 비롯됐다.

이와 관련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중 석림회 소속 스님들은 9일 관련 학과 교수, 학장, 부총장을 면담한데 이어, 12일 송석구 총장을 만나 '불교아동학과 폐과에 따른 호소문'을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스님들은 △불교아동학과로 환원 △자격증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불교유아교육학과로의 명칭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향후 불교유아교육학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은 유아교육학과로의 전환과 관련, 불교유아교사 양성과정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현재 30%만 취득할 수 있는 유아정교사 자격증을 100% 얻을 수 있는 사범학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불교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며, 교과과정 등 교육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몇 년 후에 전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님들의 입장은 다르다. 불교유아교육 현장서 일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계 유일의 불교아동학과를 설치 15년간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는데, 단지 유아교사자격증을 위해 불교아동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불교아동학과(불교유아교육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불교아동학과(20명)와 유아교육과(30명) 양립론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졸업생및 재학중인 스님들은 오히려 불교아동학과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유아교육과인가 사실을 관련학과 교수는 물론 단과대학장도 발표될 때까지 몰랐다는데 있다. 총장과 면담을 마친 스님들은 학내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 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에 불교아동학과 폐지에 따른 진상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종단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한·중·일 불교대회 26~30일 中 북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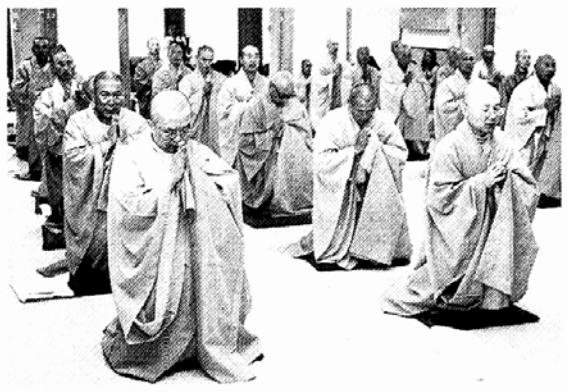
세계평화 기원·학술회 등 행사

3국 불교의 유대강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 제4차 대회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6일 제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와 불교환경사진전시회,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도 함께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26일 북경 천륜왕조호텔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에서 한국 측은 한국불교수행체험을 위한 일본 수행단 초청과 중국불교수행체험 한국수행단의 중국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과 일본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관음종 스님 54명 탄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11일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불기 2545년 영산계단 수계산림을 봉행, 54명의 새 출가수행자를 탄생시켰다.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97주년과 관음종 창종 35주년을 맞아 봉행된 이번 수계산림 회향일인 11일에는 전계대화상 영산홍파 스님, 갈마아사리 남천죽산 스님, 교수아사리 보우법륜 스님을 계사로 비구 35명, 비구니 13명, 사미 6명이 수계를 받고 부처님같은 삶을 살 것을 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내지 500m 이내 '농지전용허가' 판결

운주사 "수행환경 훼손"

전통사찰인 전남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로부터 500m 이내에 농지전용 허가 판결이 내려져 난개발에 따른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운주사 경내지로부터 450m 지점에 식당 영업허가건과 관련, 허가를 보류해 온 화순군청은 최근 토지 소유주 이 모(화순군 도안면 용강리)씨가 광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한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화순군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운주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조항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조항에 의거 500m 이내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 및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8일 화순군청에 공문을 보내 주변상가 및 주차장 건립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화순군청의 항소와 함께 토지 소유주의 건축허가 신청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불허처분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4급 승가고시 19일 송광사서 시행

조계종 제4급 승가고시가 19일 오후 1시 송광사에서 실시된다. 또 이달 29일부터 11월1일까지 직지사에서 열리는 제3급 승가고시산림의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0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 7차 고시위원회를 열고 16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4급 승가고시를 송광사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한 스님들은 율학, 사집, 사교, 화엄, 불교학개론, 치문, 조계종사, 불교사, 선학 등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100전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고시위원회는 또 10일 현재까지 모두 321명이 신청한 3급 승가고시와 관련해 종헌·율장정신 특강·종무행정·법요의식·지도자론·설법론·포교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당초 시험형식의 논술을 강의 및 교육에 대한 설문형식의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특별법회·공연등 행사

조계사 91돌 맞아 17~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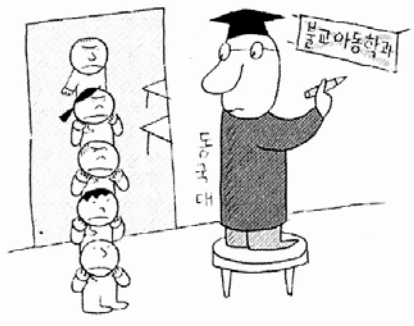
조계사가 창건 91주년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창건 기념주간 선포와 함께 일주문 조감도를 발표하며, 19일에는 경내에서 공육진 여사 초청공연, 21일에는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

또 19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1시 대웅전 앞에서 일주문 불사 성취를 위한 1080배 정진을, 28일에는 중창불사 1000일 기도 특별법회를 갖는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너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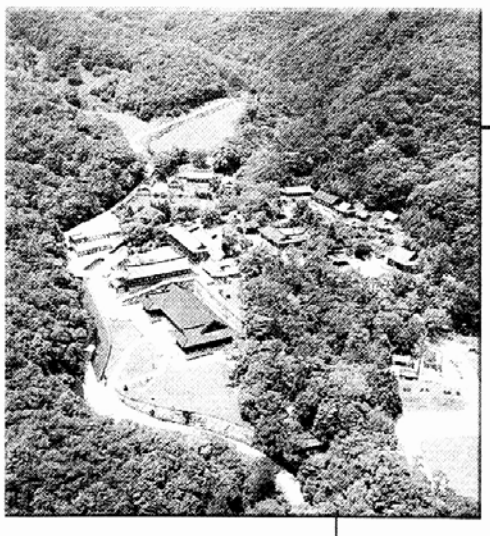
직지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및 만등불사 안내

향화(香花)가 끊어지지 않는 직지사 천불기도 도량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및 만등불사 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이 받아지니는 계율로서 보살이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계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직지사 금강계단에서 다음과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및 만등불사를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닦아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법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三和尙 · 전계 아사리 - 관응 지수 · 갈마 아사리 - 영허 녹원
· 교수 아사리 - 청운 도원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수계일시 불기 2545년 10월26일 (음력 9월10일) 오전 10시

■ 수계장소 직지사 금강계단(만덕전)

■ 동 참 금 보 살 계 30,000원
만등불사 10,000원

■ 접 수 처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직지사
전화 : (054) 436-6013, 6174
팩스 : (054) 436-3174

· 온라인 : 우체국 702829-01-000143 (예금주 : 직지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법성

목어

이런 불사 어떨까



불교의 신행운동은 불자 개개인의 마음 속에 부처님을 살아 숨쉬는 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2천 5백여 년 전에 육신을 거두신 그 분이 오늘 우리들 마음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경전을 읽어야 한다. 2천 5백여 년의 세월을 넘어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전을 읽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고 바른 불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런데 한문에 조예가 깊지 못한 이들은 글자만 읽고 있을 뿐 그 뜻을 올곧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교경전을 읽고 외우면서도 정작 불교를 모르는 웃지 못할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다행이 이제 불교계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역경작업이 완료되어 누구라도 관심만 가지면 쉽게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글대장경 완간이야말로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천 육백 여 년만의 최대의 불사요, 그 어떤 불사보다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불사라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글대장경이 얼마나 많이 유포되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비록 신심이 있는 불자라도 신도 한 개인이 한글대장경 한 질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그 많은 양의 책들을 보관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단약 한글대장경이 불자들에 의해 널리 읽혀지지 않는다면 경전으로서의 생명도 발휘하지 못하거니와 번역작업에 쏟았던 정성도 보답을 잃고 말 것이니, 그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신도 개개인이 한글대장경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전국의 사찰마다 한글대장경 비치운동을 벌여 신도들에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불사라면 전국적으로 장려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성열 (강남포교원장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봉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황금 유대' 기틀 다졌다

조계종 대표단 中 공식방문 '의미'

日 교과서 왜곡 - 신사참배 공동대응
정대 스님 "중국정부 불교지원" 당부

• 대표단 中방문 4박 5일 •

베이징의 기상 악화로 당초 도착시간(12시경)보다 3시간 늦은 9일 오후 3시경에 도착한 조계종 대표단은 베이징공항 VIP룸에서 환영식을 갖고, 저녁 6시 30분 북경만찬에서 중국종교국 양통산부국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9일 오전에는 이화원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베이징 원제사를 방문하여 중국불교협회 도슬인 부회장등 관계자들과 환담 및 신세기호텔 만찬에 참석하고, 8시 30분에는 서원호텔에서 중국 종교국 업소문 국장과 환담했다.

10일 오전에는 법문사를 방문하여 북경 불학원 학인들을 격려했으며, 오후에는 천안문과 자금성을 둘러보고 저녁엔 국빈관인 조어대에서 업소문 종교국장 초청만찬에 참석했다.

11일 오전 인민장성, 미능을 참관한 대표단은 오후 5시 30분 영빈관인 중남해 회견청에서 리란칭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저녁 8시 안인대회당 초청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조계종 대표단이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한 중 양국의 불교교류 강화 뿐 아니라 오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격하된 중국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이 정부 수립이후 외국의 성직자를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불교협회, 정부 종교국 인사뿐 아니라 정부 고위당국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교류, 대북화해 정책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외교적 성과까지 거뒀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 성과가 자못 크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이다.

특히 한국불교계와 중국불교계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반대 등 아시아평화를 위한 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은 한 · 중불교계가 교류의 차원을 넘어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방문에서 특히 조계종 대표단은 중국정부가 92년 종교를 인정한 후 중국불교를 되살려 문화혁명이후 단절된 중국전통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정부와 조계종은 중국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육조스님과 중국불교중흥에 이바지한 김교각스님의 업적을 상기하며 양국불교 오랜 뿌리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정부 종교국 업소문국장은 "중국은 불교대국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불교발전과 불교문화보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할 일이다. 한국불교를 배워 중국문화를 크게 융성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중국불교의 발전이 한국불교발전이고 한국불교발전이 중국불교발전이다. 앞으로도 중국불교계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겠다"고 화답하며 중국불교복원에 한국불교계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중국정부에서도 중국불교협회를 적극지원하기 바란다"며 사회주의 특성상 힘이 약한 중국불교계의 위상강화를 위해 고위인사와의 회담에서 불교가 국가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설명하고, 중국불교협회의 독립성 확보와 사찰재정의 독자사용권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국문화의 재건을 위해서 불교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한편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한 내용은 중국정부와 조계종이 서로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한 탓인지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다.

베이징=김원우 기자



◇북경불학원 학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정대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이 법문사 법당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불교 현황

3만여 사찰 25만여 스님

중국불교에 관한 모든 업무는 중국 종교국 산하 중국불교협회의 관장하에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전국 직할시 소수민족 군 현 단위별로 구성돼 있다.

중국사회 특성상 회장 등 임원 추대와 중요안건처리는 전국 주요사찰 주지와 재가신도로 구성된 전국불교대표회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조박초 회장의 열반 이후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불교대표자회의를 준비중인 중국불교협회에는 전국 3만여 사찰과 스님 25만여명, 신도 약 1억3천여만명(중국인구 10%)이 가입돼 있다. 이중 50%가 라마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산하에는 종무부 외사부 국제부 행정부 고등교육실 종합연구실과 23개 불학원이 있다.

불교협회의 주된 임은 승려양성 및 교육이다. 승려는 1개월간의 수계산림을 거쳐 4년 과정의 불학원 수료후 배출된다. 특히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문사 소재 북경불학원은 중국 23개 초 · 중 · 고급 불학원 중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국 불학원에서 선발된 엘리트 학인 120여명이 수학 중에 있다. 수업료는 전액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며 교수진은 30명으로 북경대, 인민대, 사회과학원의 명망있는 교수가 초빙되고 있다. 북경 불학원은 또 9명 정원의 석사연구과정도 두고 있으며, 현재 박사과정 개설도 준비 중이다.

한편 중국불교계는 현재 전국 사찰의 사원 관리와 엘리트 승려 육성 및 재가자 교육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행풍토 진작 - 문화포교 주력"

인터뷰 쌍계사 새 주지 원정 스님

"조실이신 고산스님의 뜻을 받들고 69개 말사들과 화합해 쌍계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일 쌍계사 설선당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출된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새 주지 원정스님은 역대 주지스님들의 업적에 누가 가지 않도록 쌍계사의 위상정립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정스님은 "30여년전 고산스님께서 주지로 재임하실 당시 쌍계사의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직전 주지이신 통광스님도 강원교육을 비롯 제반 불사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

신도회 조직 활성화
진산식 비용 장학금

서 주지직을 수행한 스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쌍계사가 지역민을 위한 도량으로 거듭나기 의해서는 선원과 강원 스님들의 수행여건을 개선해 출가수행자 본분에 입각한 중생제도를 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행풍토 진작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감국사의 도량 창건 이념을 현시대에 맞게 펼치는데 주력하고자 특히 문화포교, 복지사업 등을 구상중"이라고 말한



스님은 "받기만 하는 불교에서 벗어나 (중생에게)주는 불교로 변모해야 하며 특히 쌍계사의 전통과 어울리는 불교음악회, 차문화 보급 등에 주력하여 일반인들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문화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원정 스님은 따로 주지 진산식을 갖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진산식 비용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를 보조할 계획이라는 스님은 "앞으로 정보화에 걸맞는 종무행정 개선, 청년회 신도회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쌍계사가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정 스님은 1975년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7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88년 백양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해인선원 등에서 수행했으며 고성 운흥사 주지와 쌍계사 호법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쌍계사=천미희 기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줄고 은행에 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월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 (단, 우체국 ·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만큼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②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국정토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창간 7주년

"불살생계의 사회화로 지구환경 살리자"

특집 좌담 이제는 생명운동 시대

영국 키일대 교수(환경정치학)인 엔드류 돕슨은 현재의 환경운동을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에 대해 환경주의는 오염된 환경의 정화에만 관심을 쏟는 반면 생태주의는 그것의 원인이 된 사회구조, 인간의 가치관 등을 문제 삼는다고 설명한다. 이를 불교계의 환경운동에 대입할 때 '불교 환경운동'이란 말은 적절치 않으며 생태주의에 입각한 생명운동이란 표현으로 불리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본사, 한마음사랑방에서 열린 본지창립 7주년기념 '이제는 생명운동 시대다' 특집좌담 참석자들 역시 생태주의적 생명운동의 핵심은 수행과 깨달음이 구체적 삶과 실천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 지구적인 생태계 파괴와 생활속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연기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편집자 주〉

참석자

현고 스님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진옥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이병철 씨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병인 씨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좌담 참석자들은 전지구적인 '환경고'를 해탈시키는 '환경보살'의 출현이 시급하다며, 나의 삶과 세상을 정화하는 각성을 통해 예토를 정토로 가꾸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사찰도 이젠 환경안전지대 아니다
'心청정 國土청정' 환경보살 많아야

사회자(윤제학 부장)=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념적 근거 등을 정리해 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왜 지금 불교환경운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병철씨=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죠. 오늘의 환경문제는, 나와 다른 생명 혹은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는 서구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대량생산이라는 물질적 욕망추구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리오환경회의 등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중심주의의 서구문명으로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중심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수행과 깨달음에 기초한 불교의 전통이 환경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교는 사찰과 산림 등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환경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뒤늦게나마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활동에 나선 것은 기존 환경운동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은 생물학적인 멸망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습니다.

삶과 환경 둘아니다

진옥스님=한국불교는 대승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복과 개인적 수행 이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민주화의 진통 등 중생고(衆生苦)와 사회적 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보살행이 미진했어요. 사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거죠. 저만해도 제가 몸담고 있는 사찰이 공단의 한가운데 남게 되자, 사찰도 이젠 '환경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자각이 든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의 사상마저 끌어들여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도, 정작 불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보살들은 중생고의 해결을 위해 해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환경고'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환경보살'이 출현해야 할 때입니다.

현고스님=저는 종단 소임을 맡기 전까지 송광사에서 30여년을 살았는데, 세상으로 나와보니 불교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포교가 바로 환경운동이었어요. 임의단체로 5년간 활동하다가 3년전 환경단체중 처음으로 광주에서 '주암호보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환경운동은 간단히 말하면 '불살생계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승단 안의 계율이 사회적 계몽과 실천 덕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자=불교 환경운동은 완벽에 가까운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역동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실천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듯 한데요.

현고스님=불교에서는 인간을 표현할 때 중생(衆生) 즉, '뭇 생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구제의 대상이자 완성의 주체가 뭇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처는 곧 생명이기에 환경운동은 곧 생명운동입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불교는 일상생활에서 왜곡된 생명질서를 회복하고 본모습을 찾자는 조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즉, 6도중생과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사회, 생명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 환경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병인= '운동'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환경 수행 또는 신행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그 말이 갖는 사회적 의미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불교환경운동은 불교적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처방전, 환경고(環境苦)라는 시대적 아픔을 해결하는 신행활동이어야 합니다. 암스트롱이 달에서 지구를 처음 보았을 때 '생명의 공존'을 깨달았듯이 불교는 공생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만물평등의 화엄사상, 무소유적인 삶은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행동규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곡된 생명질서 회복

이병철= '환경운동'이란 말이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녹색연합은 10주년을 맞아 강령을 새로 쓰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환경'이란 말과 '운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가 없다면 내가 없다'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자=새로운 생명운동을 위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점검이 필요한 듯합니다.

현고스님=60년대부터 공해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불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탄압했을 때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반생명적인 일에 침묵을 지키던 불교가 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그건 아마 환경문제가 임계상황에 도달한 때문이 아닐까요. 산 속에 있는 사찰들이 골프장과 도로공사 등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 속에서 중생구제의 한 방편으로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지난해 바티칸의 교황은 새천년

5면으로 이어짐☞

불교환경운동 어디까지

환경분쟁 1백여건 겪으며 대응역량 축적-방향 재정립

해방 이후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 산천은 많이 훼손됐지만, 자연이 이만큼이나 유지되어 온 데는 산사의 역할이 컸다. 7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사찰에 산감(山監)이란 소임을 둘 정도로 불자들은 산천을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불교 환경운동은 1991년 3월 발족된 불교환경교육원의 환경교육과 실천이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몇몇 불자들이 공해추방운동연합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불교적 이념을 갖춘 조직이 지속성을 갖고 환경운동에 나선 것은 불교환경교육원이 처음이다.

이듬해인 92년 2월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공추불)이 창립되면서 교법사와 청소년들이 심포지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 것은 사찰의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대중적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불교계 각 단체들이 개별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연합활동을 처음으로 전개한 것은 95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펼친 '95 청정국토 한마당'이 처음이다. 이를 중심으로 재가자 중심의 연대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조계종에서는 95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96년 대대적인 지역개발과 그로 인한 국립공원내 사찰의 훼손과 맞물려 11월 22일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갖고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사찰환경 실태조사, 사찰환경분쟁 조정및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수립, 사찰환경에 관한 이론정립, 사찰환경보존 시범지구선정 및 운용 프로그램 마련, 불교환경지침서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 온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환경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불교계는 그간 많은 환경분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대응 역량을 축적시켜 왔다.

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속전철 경주통과 반대운동은 96년 경주 도심 통과를 철회시키고 우회노선을 관철시켰다. 이미 90년부터 문제가 된 가야산 해인골프장 개발문제 역시 10년만에 백지화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0년도 불교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리산댐 건설 문제 역시 불교계와 종교, 시민환경단체의 결집된 힘으로 올해 3월 백지화시켰다. 이밖에 인각사 군위댐 건설, 금산사 모악랜드 건설, 문장대 용화지구 및 문경 봉암사 온천개발, 김천 직지사 인근 위락시설 조성 등 크고 작은 100여건의 사찰환경 분쟁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했거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환경분쟁을 겪으면서 불교환경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발족에 이어, 지난 달 6일 불교환경연대를 출범시켰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범불교 환경단체의 발족으로 불교환경운동은 종단 공식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보조를 나란히 하면서 각종 사찰환경분쟁의 공동대응은 물론 백두대간 보전운동 등 대사회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김재경 기자

강청화 큰스님 초청 호국영령 및 조상님 천도 대법회
오는 10월 21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봉행

인간의 생명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조상님들도 모두 살아 계신다.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과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자손들에게 호소하는 영파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자손들에게 불운, 불행,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계에 계신 조상님께 진리의 경을 독송공양을 드려 진리를 자각하시도록 해 드리고 자손들의 수호를 빌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불치의 병과 계속되는 실패와 불행은 치유되는 것이다.
불자 여러분!
금번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근세 최고의 수행자 강청화 큰스님이 증명하시고, 영도스님이 직접 집전하시는 영가천도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은 반드시 동참하시어 가정에 행운의 문을 활짝여시기 바랍니다.

※ "스님들요! 건봉사에 오셔서 부디 저희들의 해탈을 위해 독경 해 주십시오."
- 영가들을 대신해서 영도스님 합장 -

– 아 래 –

■일 시 2001년 10월 21일 (음력 9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10월 20일 토요일 철야기도
■장 소 금강산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내 용 1부. 강청화 큰스님 영가 법문
2부. 천도의식 : 호국영령과 국군 전몰장병 및 조상님 천도재
3부.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친견
■교 통 편 서 울 : 동산반야회 02-732-1215~6
진 여 회 02-821-3242 (011-216-3241)
부 산 : 부산 금강정진회 051-632-0383 (011-833-0383)
광 주 : 광주사암연합회사업부 062-653-5250 (011-604-2377)
(주)남부관광여행사 061-653-5270 (017-602-9792)
■동참방법 천도재에 동참하실 분은 "위패" 관계로 사전 접수바랍니다.
동참금 : 30,000원 (한가족당) 농 협 : 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봉사 종무소 전화 033)682-8100, 8101, 8102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 3교구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영도 합장

☞4면에서 이어짐

신년사를 통해 〈성경〉 창세기편의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말씀이 인간 중심적인 현대 산업사회의 모순을 야기한 메시지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역시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교가 환경문제를 외면한 것은, 수행을 통해 늘 깨어있으면서 중생의 고통에 귀기울이라는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환경운동은 참회와 성찰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회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 참회와 성찰을

진옥스님=사찰과 신도가 많아도 사회봉사자가 항상 부족한 게 오늘의 절집입니다. 이를 볼 때, 조계종 환경위원회나 불교환경연대의 활동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해인사 골프장 문제나 지리산 댐 문제에 부딪치면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긴 해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명망가 중심의 환경운동은 허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해요. 한국에 수만명의 스님이 있지만 발우공양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발우공양의 정신만 제대로 홍보해도 연간 8조원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종교적 권위와 명령으론 부족합니다. 먼저 광범위한 씨앗을 뿌려 환경운동의 토양을 만들어야 해요.

현고스님=옛날의 절 살림살이는 생태적 삶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운동하는 스님들 역시 이제는 사회인들과 정서적 보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매스컴을 의식한 소영웅주의적 발상은 위험해요. 순수한 불교환경운동을 훼손하고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불교환경단체는 종단으로부터도 철저한 NGO(비정부기구)가 되어야 해요.



현고 스님

"옛날 절 살림살이 생태적 삶 그 자체 꼭 계승해야 할 일"



진옥 스님

"사찰과 불자 합심 환경바라밀 실천 '같이 사는길' 찾자"



이병철 대표

"자본주의가 낳은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이병인 교수

"'환경苦' 시달리는 중생구제 처방전 '환경신행의 확산'"

이병철=새로 출범한 불교환경연대는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운동의 시행착오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실상사 도법스님의 경우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불교귀농운동을 통해 잘 보여주셨어요. 가톨릭농민회의 한 동료가 사찰수련회에 참석해 '발우공양만 제대로 되어도 모든 환경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불교가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화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지구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이 때, 이를 구제할 환경보살의 출현은 절실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신과 외부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는 수행자적인 관점에서 예토를 정토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나의 삶과 세상을 정화하는 각성을 통해 불국토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병인=사찰환경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간직한, 과거·현재·미래 삼세의 자연문화유산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찰은 대형 건축불사 위주의 반환경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계획적인 불사와 기록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찰환경문제가 생겨도 해당 사찰만 발등의 불이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항시 참여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도와준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아울러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옥스님=중국이 침공한 티베트의 경우, 자연자원은 물론 수행 및 문화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은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수행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찰 수행환경의 훼손은 인간 정신의 숲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재가를 떠나 지역과 사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런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자=환경보살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교내부의 반생태적인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환경 마인드의 부재, 대형불사, 스님들의 참여부족 등을 개선해 절집 본연의 모습을 회복, 정신정화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환경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대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는데요.

이병철=천년도량이자 새로운 생명회복의 근거지로서 사찰은 교육과 각성의 장이 되어야 해요. 이웃 종교인들과 시민들을 초청,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우공양을 재해석하거나 환경서원, 환경계율 등을 제정해 전 불자의 밥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옥스님=불교환경연대는 우선 불교 환경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철저한 비폭력과 자비의 정신에 입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의 폭에 있어서는 국가의 환경정책 모두를 문제 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론가와 함께 실천가 그리고 재정력이 담보되어야겠죠. 재정문제는 기부금 형태보다는 회원확보를 통한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대중성 확보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힘을 얻어내는 길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이병인=사찰 소유 토지는 국립공원 면적의 12%에 달합니다. 이런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고, 발우공양 해우소 등 친생태적 생활양식을 지켜나간다면 사찰은 진정한 환경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산중의 사찰은 1600여년간 산주(山主)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자연지역인 백두대간에는 불교전래이래 수많은 사찰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산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각 지역의 사찰이 환경보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고스님=환경운동 실천단위의 기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각과 생태적 생활속에서 심신의 건강과 보람을 느낄 때 효과가 있어요. 나아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가 최대단위가 되어 실천하는 것이 거대조직에 의한 활동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생활속의 실천을 위해서는 '환경 바라밀'과 같은 실천 덕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백두대간 네트워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지역과 사찰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죠.

이병철=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의 '비폭력 평화운동'에서 보듯이 운동이 곧 수행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수행적 운동론입니다. 환경보살의 근본 서원 역시 생태적 각성을 통한 자기수행과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환경 바라밀'과 같은 실천덕목을 세울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현고스님=우리 종단의 환경운동체제는 사찰단위로 신도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고, 소속된 지역사회의 환경의제 설정과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정구역별, 교구별 불교환경연대를 구축해 본사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워크숍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교파중심적 활동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환경단체나 이웃종교 환경단체와도 상호연대해야 불교 생명사상의 보편화, 사회화가 가능합니다.

대형 건축불사 지양

이병인=국립공원지역의 대부분은 반경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도시화된 지역으로 둘러쌓인 녹색섬(Green Island)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최후의 자연지역이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백두대간의 자연 및 역사, 문화에 대한 탐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시범사찰을 운영하면서 정보공유와 유대강화에 나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600여년간 이어 온 '산주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 이 시대의 환경고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사찰의 경내지는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루이니까요.

진옥스님=남해 씨프린스호 사건을 겪은 뒤 지자체를 설득하면서 얻은 경험이지만, 환경운동은 같이 사는 길을 찾는 작업임을 상대방에게 일깨울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질서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설명하면 상대방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 환경운동은 '설득이 가장 큰 압박'이란 정신으로 언어 폭력조차 없는 평화로운 활동이어야 겠습니다.

사회자=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교 환경운동의 내실있는 도약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 환경운동 略史

▲1991년 3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
▲92년 2월 29일 공해추방불교인모임(공추불) 창립
▲12월 15일 공추불 계간지 〈공해없는 세상〉 발간
▲93년 8월 '맑고향기롭게' 운동 발의
▲95년 3월 17일 경불련 환경모임 창립
▲6월 5일 30개 불교단체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 개최
▲9월 15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환경보호회 창립대회
▲96년 5월 15일 불교환경교육원, 첫 환경수행 지침서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발간
▲7월 대구불교산악회 녹색환경감시단 발족
▲10월 14일 불교자원봉사련 제1회 불교여성 환경세미나 개최
▲11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대회' 개최, 사찰환경보존위원회 발족
▲97년 7월 20일 경주 청소년 환경감시단 발족
▲9월 4~6일 불교환경교육원,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개최
▲11월 26일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 결과보고 요청서' 발송
▲98년 3월 28일 실상사 불교귀농학교 개교
▲99년 9월 11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000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기각 결정
▲4월 2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불허' 판결.
▲11월 30일 13개 불교단체, 종단 및 사찰에 '환경훼손 참회', 대형 불사 자제 건의
▲6월 10~12일 대불청, 제19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환경5계(물 아끼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모피 옷 안입기, 사후 화장 등) 발표
▲6월 29일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창립
▲8월 30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창립
▲10월 23일~11월 18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 1300리 도보순례
▲2001년 2월 1일 경불련 어머니 환경위원회 발족
▲2월 5일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 침해 사례집〉 발간
▲3월 14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발족
▲3월 26일 건설교통부, 지리산댐 사실상 백지화
▲4월 1~30일 대불청 부산지구 '낙동강따라 구도 도보순례'
▲9월 6일 불교환경연대 창립
▲9월 26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 출범

환경운동도 값진 수행방편 발우공양 정신 오늘에 잇자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보살계 수계와 영가천도 및 가사불사 회향

화엄경에 이르기를 「계(戒)는 보리심을 개발하고 지혜롭게 배움은 부지런히 공덕을 닦는 터전이니 계와 학에 항상 수순하여 행함은 일체 여래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다.」하였고 고당대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이라도 보살계를 받아 계행이 깨끗한 이는 필경에는 도과를 증득할 것이다.」하였습니다.

본 해인사에서는 연례대로 법보신앙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이웃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고려팔만대장경이 이 사바세계에 오래 머물러 부처님의 법음이 영원하기를 발원하고, 불보살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여 민족이 화합하고 국운이 융창하여 불자님의 직장과 가정에 복락을 발원하며, 모든 영가가 극락왕생하옵기를 발원하나이다.

더불어 2001년 5월 7일에 입재한 가사 불사를 회향하오니 동참하시어 무루 복락을 누리소서.

▶보살계 동참금 : 30,000원
▶영가동참금 : 영가 1위당 10,000원

접수안내

▶접수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종무소
종무소 : ☎(055)931-1001~2 ☎원주실 : (055)931-1009
천도재 사무실 : ☎(055)931-8771~2 팩 스 :(055)931-1010
▶온라인 접수 : 농 협 843174-51-003929(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예금주 : 해인사)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도림법전 합장
주지 수봉세민

법회일정안내

◉일 시 : 2001년 10월30일~10월31일(음력 9월14일~15일)
■10월 30일(음9.14) 입제 : 오후 4시
보살계법문 : 오후 7시
영가천도대령관욕 : 오후 9시
■10월 31일(음9.15) 영가시식 : 오전 4시
괘불봉안 : 오전 7시
수계식 : 오전 8시
가사불사 회향 : 오전 11시
법문 : 가산 지관 큰스님
보살계법문 : 유나 원융스님, 강주 지오스님
증명 : 혜암 성관 대종사 전계아사리 : 도림 법전 대종사
갈마아사리 : 수봉 세민 대화상 교수아사리 : 일장 혜능 대화상

법보종찰 해인사 1029일 천도재 여섯번째 49재 안내
■일 시 : 2001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영가법문 : 승산 행원 큰스님

현대불교 애독자 인터뷰

최종열 씨 가족



◇영구독자인 최종열 거사의 친척들이 함께 모일 때면 언제나 현대불교신문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최종열 거사.

7년간 삶의 길 밝혀준 등대

장인 · 장모 · 누님셋도 영구독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즐겨 읽어

"삶의 방황속에서 처음 만났던 현대불교는 7년간 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등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면 곳곳에서 만난 감로법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불교공부에 게을러질 때마다 신행활동에 박차를 가해주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94년 10월15일 창간 이후 7년간 한주도 거르지 않고 '현대불교'를 보고 있다는 창간독자 최종열(40 · 성산아트홀)거사. 최거사는 신문이 오기가 무섭게 부인과 함께 꼼꼼히 정독한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몇 번 받아보다가 읽을 거리가 풍부해 아예 영구독자가 됐다. 최거사가 즐겨보는 난은 '가까이서 뵌 큰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불자세상보기' '불교와 과학' 등.

"특히 전국에 있는 훌륭한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을 직접 사찰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읽을 수 있는 '가까이서 뵌 큰 스님' 코너를 즐겨 읽습니다."

최거사는 자신의 가족들만 이런 귀한 글들을 읽는 것이 못내 아쉬워 장인과 장모를 비롯 누나 셋과 매형을 모두 '현대불교'의 영구독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친척들이 함께 모일때면 언제나 가족들 안부와 함께 현대불교 얘기도 빼놓지 않게 된다.

예전에는 교리나 법문을 매주 스크랩했다는 최거사는 현대불교의 인터넷 일간신문인 붓다뉴스가 생기고서부터는 스크랩 작업을 중단했다. "현대불교는 지난기사들의 자료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어 컴퓨터만 켜면 원하는 기사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매일매일 인터넷 '붓다뉴스'를 보면서 불교계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최거사는 "항상 첫 신문 만들때의 초발심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일곱번째 '현대불교'의 생일을 축하했다. 김주일 기자

박순계 씨



◇현대불교를 받으면 '주제가 있는 법문'을 제일 먼저 본다는 박순계 씨는 현대불교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는 다운받아 다른 모임에 보내 주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믿음 다져주는 수행의 도반

불교계 정보 알려주는 길잡이
'주제가 있는 법문' 도움 많아

현대불교에 난 좋은 기사를 읽고 다른 불교사이트에도 보내 널리 읽게 하는 불자가 있다.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박순계(30) 대리. 그는 현대불교를 받으면 제일 먼저 '주제가 있는 법문'을 펼쳐 본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일부러 시간 내 스님들을 찾아 법문 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가장 먼저 눈길이 간다. "주제가 있는 법문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고 가슴에 와 닿는 법문이 많아 저절로 눈길이 갑니다."

9월까지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 본말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보던 박 대리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보에 실을 법문을 청탁하는 일이었다. 자신도 교리 공부를 할 때 느끼지만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읽다보면 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의문이 풀릴 때가 많기 때문인데 스님들의 법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세이클럽(www.sayclub.com)의 불교 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사이트의 금주의 법문 코너에 들어갔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거기에 실린 법문들이 "너무 좋아 다른 학생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법문들이 바로 현대불교에 나왔던 것들임을 알게 됐고 현대불교가 새롭게 다가왔다.

"경계에 부딪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법문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순화되고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99년 대학을 졸업하고 동화사 포교계장으로 일할 때부터 불교계의 움직임이나 돌아가는 형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도 현대불교는 길잡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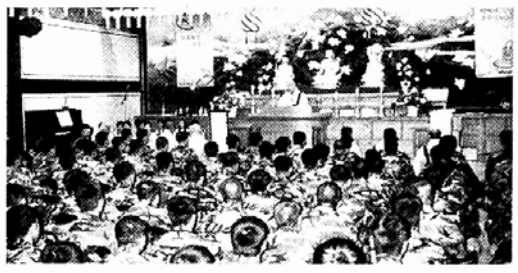
박 대리는 "침체된 청년불교와 불교대학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열성 독자로서의 주문도 잊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TV 북미 한인방송과 협정

불교TV(사장 이수덕)는 8일 아이스카이컴 회의실에서 북미지역 한인 위성방송 사업자인 아이스카이컴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이수덕 사장은 "조석예불과 사시불공, 교리강좌, 경전공부 등 미주지역 불자들의 신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국 백마사 상록수부대 위문

광주 호국 백마사는 10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 동티모르 파병부대인 상록수부대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파병장병 120명과 하사관후보생 130명 등 총 3백여명의 군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세계 어느곳에 있든지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당당하며 흐트러짐 없는 군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사 혼성 합창단 9일 창단

37명으로 이루어진 조계사 혼성 합창단이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조계사 혼성 합창단은 불교계에 취약했던 남성합창부분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음성공양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창단식에는 조계사 혼성 합창단의 시범 연주와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제주 무연고 고혼 7만기 천도재

제주도내 성지순례 전문 이벤트 '다도문화기획 투어(대표 조인석)'는 7일 제주시 노형동 아흔아홉골 시공설 공원묘지내 무연분묘지현장에서 조인석 대표 등 30여명이 동참해 연고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7만여기의 고혼들을 위한 위령제를 불교의식으로 봉행해 주었다.

일주문

정방사 낙성식 법어



혜정 법주사 율주스님은 10일 제천 정방사에서 열린 낙성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부산시장 감사장 받아



도원 삼광사 주지는 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삼광한글학술상 제정 등의 공로로 부산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1세기 한국얼굴' 뽑혀



도법 실상사 주지는 경향신문 창간 55주년 기획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얼굴 5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한글대장경 공로 월운 스님 외솔상 수상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23회 외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외솔회는 해마다 나라사랑의 뜻이 투철한 사람으로 학술과 실천 두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외솔상을 주고 있다. 월운 스님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 완간해 우리 말글의 우수성을 드높인 공로로 실천투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9일 광화문 한글회관 강당.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세이 아봐타
부처님과 큰 스승들의 말씀,
그 찬란한 환희의 빛-
21세기 최첨단 의식공학 프로그램으로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을
자아탐사 여행을 통한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질적이고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봐타- 체험해 보십시요.
세이아봐타 02) 782-0022 www.sayavata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911호



범어사 원로 여환 스님 입적

범어사 원로 여환스님이 10일 오전 밀양 석정암에서 세수 78세, 법랍 50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4일 범어사 보재루에서 거행됐다.

1924년 황해도 재령군 석정리에서 태어나 52년 범어사에서 출가 동산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여환스님은 지효스님을 은사로 교화를 배웠으며,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범어사 · 연곡사 석굴암 · 칠불사 · 불국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10여 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지리산 연곡사 서울 도봉산 천축사, 불국사 석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울산 동대사 성불사와 부산 대법사, 밀양 삼랑진 복천사를 창건하는 등 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여환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前 쌍계사 주지 통광스님의 은사이기도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본사사령

△취재부 차장대우= 한명우 김중근 김재경 이은자 △광고영업부 차장대우= 김학표 △고객부 차장대우= 이동격 △관리부 차장대우= 이승철 △불교정보센터 과장= 최정근

통도사 開山 1356주념 기념

통 도 사 개 산 대 제



입재 양력 10월 24일 | 법요식 양력 10월 25일 오전 10시

귀의 삼보하옵고,
하늘빛의 청아함이 가을을 대변하는 절기입니다.
이 좋은 계절,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 1356년을 기리는 개산대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 뜻깊은 자리에 무루 동참하시어 축하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일정표

입재
- 2001년 10월 24일(음력 9월 8일)
10:00 - 개산대제 및 문화대전 입재식 (사생대회 개최)
13:00 - 개산1356주년 기념 부도헌다
14:00 -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친견

기념법회
- 2001년 10월 25일(음력 9월 9일)
10:00 - 개산대제 법요식
12:00 - 유치부 재롱잔치
13:00 -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14:00 - 제6회 괘불탱 특별전 고승 선묵전 개막

영축예술제
10월 21일 (일) 오전 11시 제1회 영축예술제 개막 - 통도사 하노전 일대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 도 사 주지 현 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문의 : 전화 055-382-7182~7 전송 055-382-7196
www.tongdo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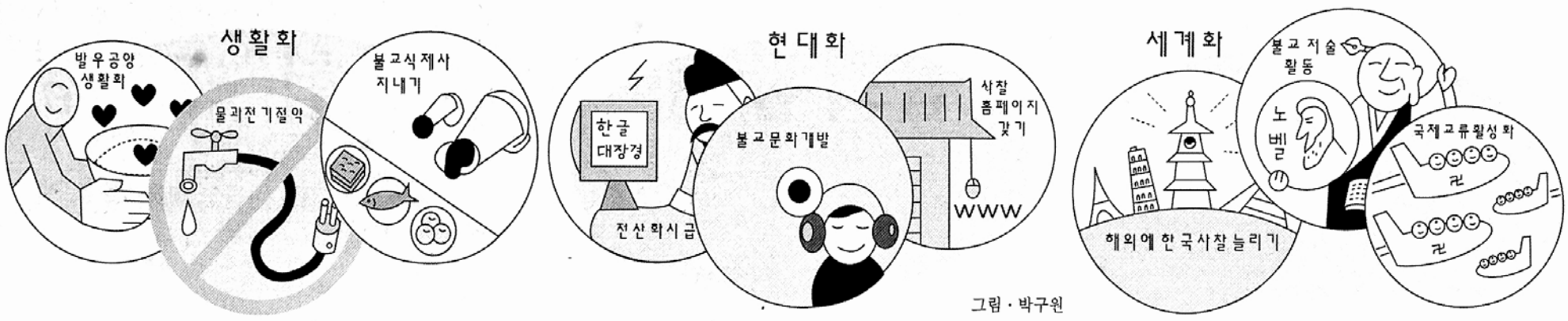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교엔 인류 문명과 정신 이끌 힘 있는데…



'21세기는 불교의 시대' 현황과 과제

21세기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문명의 극한인가 하면 반문명의 그림자가 너무 짙고, 과학 기술의 발달이 모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복잡하고도 위험한 세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 · 범죄 · 전쟁 등 눈에 드러난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의 문명은 병들어 있다. 이러한 세상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가 바로 21세기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불교계의 전체 흐름 역시 시대 흐름에 겉돌고 있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7주년을 맞아 불교가 21세기를 이끌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측면에서 점검해 본다.

불교의 생활화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바뀌고 있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수행에 열심인 불자들이 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이런 변화된 모습은 충분히 감지된다. 가족법회를 보거나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법회를 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제사나 장례 등 가정의례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졌고,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들도 늘어났다.

가족법회 · 조석예불부터 절약 · 하심 가르침 실천

불교의 생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자 인구를 감안하면 이런 불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의지 부족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훨씬 많다.

작은 부분부터 따져보자. 가정에서 물 한 방울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폐품을 활용하며 발우공양을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오계를 지키는 것으로 생활을 바르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역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법회나 불교식 의례, 합장인사 등 불교의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수효사 신도인 장화숙 보살(65)은 "매주 토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법회를 갖다보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서로 존중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족법회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된 불교의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한 달간 666명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3.3%가 불교식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방식을 몰라 못하고 있다고 밝혀 불교의례 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도와 가족 혹은 직장 동료를 도반으로 여기는 의식, 불고서적을 읽는 습관, 식사 전 간단한 공양게송을 읊는 등 생활 자체를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도 불교 생활화의 핵심일 것이다.

승가-재가 교육의 질 향상 역경·포교 '시대와 동행을'

불교의 현대화

무엇이 불교의 현대화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함께 안고 현대화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면, 불교의 근본정신과 종교적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와 걸음을 같이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야만 성불과 중생제도라는 불교 궁극의 목적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교, 교육, 역경, 문화, 불교의식 등 각 분야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대화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역경' 분야는 올해 5월 총 319권의 고려대장경 한글완역 작업이 마무리됐으나, 오역을 바로잡고 쉽고 바른 문장으로 다듬는 작업과 함께 전산화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 분야에서 승가교육은 교육체계가 수립되고 각급 승가고시가 자리를 잡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스님들의 자질은 고학력 시대의 신도들에게 사표가 되기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신도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교양대학의 질을 높이고, 다음달부터 의무 실시되는 종단 신도교육을 밀도 깊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포교는 청년의 경우 퇴보 양상까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주5일근무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소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과 사찰에 맞는 특성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포교원 이상근 연구주임은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수탁운영하는 등 간접적인 형태의 포교로도 눈을 돌리고, 불교적인 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문화와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잠재적 불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화 활동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짙은데다, 지역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계에 불교음악이나 무용 등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이 한 곳도 없음을 지적하며, 불교문화가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 전시회나 문화인사 초청 강연회 등도 활성화해 불교문화 향유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불교의 정보화 역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현재 사찰과 단체 등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체사찰 1만4천여개와 90여개 불교법인의 수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사급 사찰이 앞장서 정보화 마인드를 키우고,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식의 현대화는 아직 요원하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도심포교당이 한글법회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는 미미하며, 한글의식 역시 일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86%가 한글세대임을 감안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된 의식마련은 시급한 과제다.

불교의 세계화

숭산 스님을 빼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할 수는 없다. 한국불교가 세계로 시야를 돌리기 시작한 시점은 70년대 초 숭산스님이 홍법원을 개원하고 해외포교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숭산스님을 비롯해 몇몇 스님에만 의존하던 해외포교는 95년에 국제포교사가 처음으로 배출되고, 해외에 개원된 한국사찰에 대한 현황 조사가 실시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 관련 저술들을 외국어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됐으며, 여기에 인터넷과 같은 온 라인 상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또 진각종 복지재단이나 JTS 등의 단체가 국제난민 구호에 나서는 등의 활동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적지 않은 몫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한국불교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기본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조계종이 올해 실시한 '해외 한국사찰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개원된 한국사찰은 150여 개에 불과한데다, 이들 사찰의 포교대상이 현지인 20%, 교포 77%, 소외계층 3%로, 본래 목적인 현지인 포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 역시 9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주재 한국사찰 수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며, 기독교 선교사 수의 3%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불교 관련 저술은 코넬대 그레고리 교수의 〈태고어록〉과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의 〈돈오〉 등 3~4편에 불과하며, 80년대 이후 〈미국 종교학회지〉 등과 같은 해외 유수 불교 학술지에 한국불교 관련 논문은 전무하다. 80년대 이후 이들 잡지에 발표된 논문은 2,636편인데, 티베트 불교가 전체 논문 중 2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본불교 연구도 전체의 23.5%로 중국불교(18.5%)나 인도불교(6.2%)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보니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의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 펜실바니아대에서 강의했던 우제선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대다수 지식인들조차 한국불교를 중국불교나 일본불교의 아류 정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을 통해 한국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불교 알리기 '거북걸음' 국제 난민 구호활동 성과

불교의 세계화

교계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종단은 충분한 지원을 하고, 교계 각 단체와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홍보 및 연구작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다피아, 달마넷, 국제불교연등회 등 10여개에 불과한 영문 홈페이지를 대폭 늘리고, 국제적인 문화 · 학술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명우 · 오종욱 · 김주일 기자

봉 시흥 소래산 마애불상 보물지정 국태민안 시연 대법회 축



시흥 소래산 보물 제1324 호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 후 원 : 시흥시청, 시흥사암연합회, 삼각산도선사, 경인방송
■ 행사일시 : 2001년 11 월 4 일 (일요일,음 9월19일)
■ 행사문의 : (031) 313-2993, (031) 404-0707 ~ 9
■ 행사장소 : 시흥시 소래산 마애불상 효일사지

국가문화재 보물 제1324호기념 영산대제! 님을초대합니다

법 어 서암(西庵) 前종정예하
추 진 위 한국마사회 윤영호 회장
스위스관광호텔 윤상림 회장
김의겸 교수(한양대학교)
청룡사 조실 진혜명 스님
삼각산 도선사 주지 광록스님
청룡사 주지 삼보스님
큰 스 님 차동광스님 혜덕스님 법공스님
인봉스님 보명스님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총 신도회
시흥시 사암 연합회
대한불교 연예인 자비회
청룡사 총 신도회
시흥시청

마애여래부처님의 유래

시흥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당나라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신라 무열왕 660년에 중국 산동성의 래주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여 소래산을 보니, 산의 氣道가 비범하여 서기 가득한 장군바위에 마애불을 모시고 그 옆터 북동쪽 300m 지점에 曉日寺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로부터 소래산이 소정방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학자 권상로박사의 한국사찰전서 효일사조에서 부기하고 있어 위의 내용을 뒤받침 해주고 있다.

마애여래부처님의 영험담

소래산 마애보살은 영험하여 이곳에서 祈禱하여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近來 어떤 巫女는 이곳에서 기도하여 북한 김일성의 죽음을 미리 알았으며, 부도 직전의 사업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부도를 모면 했을 뿐 아니라 더욱 더 번창한 사람이 있으며, 노 보살님 한분은 이곳에서 기도하여 아들이 대령으로 진급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6.25전란 당시 영국군 캘러부대가 이 앞의 방아다리에 주둔중 105mm 곡사포를 여섯 발을 쏘았으나, 신기하게도 마애보살님의 상호를 피해서 맞은 흔적으로 크나큰 위신력을 보이시니, 혼탁하고 사악한 세상에 오셔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마애보살이 여기 소래산 장군바위에 마애보살님으로 세간에 출현하심이니, 이는 보고 경배하는 마음만 갖더라도 그 공덕이 항하사겁이 지나도록 다하여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서, 자식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니, 보고 들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우러러 예불하여 인간과 천상에 이익이 무량하게 합시다.

동참문(同參文)

천년 전부터 계시던 마애보살님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험하고 영험하신 마애보살님의 원력 가피력으로 국가보물제1324호로 지정 받아 기념 봉축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애보살님을 모시던 효일사의 "중창복원불사"는 여러 단체들의 개입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저희 "천년고찰 효일사 중창복원 위원회"에 힘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동참하겠다는 본인 의사와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등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2001년 10월 27일 까지 동참한 분들께는 행사 초청장과 2002년도 달력을 우송해 드리며,
2001년 11월 4일 행사이후 동참한 불자님들께는 마애보살님 보물지정 기념 2002년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①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9-84번지
② 팩 스 : 031-311-4717
③ 이메일 : bigsambo@hanmail.net

창간 7주년

"주말연휴 법회참석 – 수련체험" 77%

본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네티즌 불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9월 27일~10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주5일 근무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토요일은 휴무가 돼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고용창출과 사회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는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10월 안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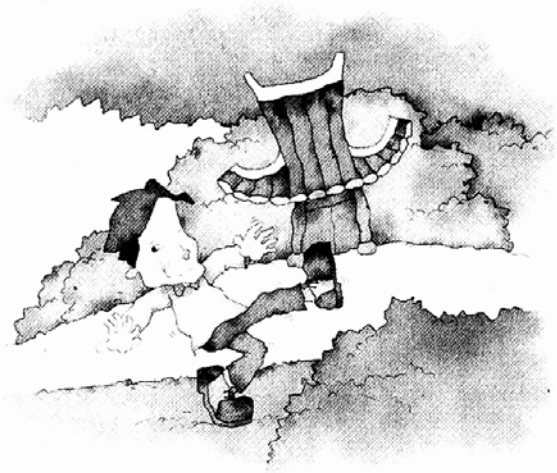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본지 '주 5일 근무제' 불자 네티즌 설문

어떤 신행생활 하겠나?

법회 – 문화행사 – 자원봉사 – 공부順

교계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절실

▼네티즌 불자 긍정적 반응

이번 인터넷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인 501명이 정부가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불자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산사를 찾거나 도심포교당에서 신행을 하는 불자들이 늘어날 것(75%)이라고 전망했으며, 여가 및 레저활동이 늘어나 오히려 절을 찾는 불자들이 줄어들 것(14%)이라는 의견과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7%)이라는 의견은 소수로 나타났다. 또 주5일 근무제 실시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사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겠지만 신행과는 무관할 것이며, 불교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상되는 불자들의 신행 변화

네티즌 불자 10명 가운데 8명(77%)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매주 법회에 나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말수련회 참가', '불교문화행사 참가', '불교단체나 동호회 회원 활동', '불교복지시설 자원봉사', '교리공부' 등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는 신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말을 여가를 즐기거나, 어학공부 등 자기계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18%에 달했다.

▼불교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티즌 불자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정례화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의 마련'을 꼽았고, 다음으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찰안내 및 홍보자료 마련'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1박2일, 2박3일 일정의 산사체험 프로그램 개발, 경전과 의식의 한글화, 불교문화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한 네티즌 불자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불교계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전통사찰의 관광지화', '사찰 환경파괴', '불교인구 감소' 등을 꼽았고, 수련 및 문화 프로그램의 부족과 미흡으로 인한 실망과 불신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불교계 '찬성' 기독교계 '반대'

종교계 반응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불교계와 개신교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의 경우 대부분 사찰의 법회가 음력을 따르고, 문화재 사찰의 관람객 증대로 인한 포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반면, 개신교계는 주말 교회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 우려와 하루를 신에 헌신하라는 안식일 제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종교간의 대처방식도 다양하다.

불교계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관람객 포교정책 수립, 사찰수행프로그램 개발, 도심사찰과 지방사찰간 네트워크 구성 등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최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불교계도 도심사찰의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종단적 대책마련과 함께 각 사찰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목회 참석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계가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김원우 기자

'여행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불교계 할일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사람들의 생활패턴도 변화할 것이라는 데 주목, 저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활동반경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박2일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2박3일 문화재 답사, 기도, 성지순례, 주말수련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루일정으로 사찰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리플렛 제작, 안내판 정비, 사찰 안내원 배치, 휴게시설을 겸한 불교홍보실 마련, 일반인을 위한 대중법회 개최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찰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인터넷과 전화로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찰정보센터를 상설화 하여 주말을 이용해 사찰을 찾아 수련과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사찰과 포교당도 도심공동화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시민선방,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신행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조사방법

붓다뉴스 닷컴

20~50세 581명 설문

본지의 인터넷 일간불교신문 '붓다뉴스 닷컴' 설문조사 창과 붓다뉴스 회원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는 20대~50대 이상 네티즌 불자 58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세~39세가 전체의 37%인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세~49세 31%(183명), 20세~29세 20%(119명), 50세이상 10%(63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70%(408명)가 기혼자로, 29%가 미혼자(173명)로 나타났으며, 기혼자 가운데 58%(238명)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내용 및 결과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찬성	501명(86%)
반대	73명(12%)
기타( )	7명(1%)

2.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당신은 법회나 수련체험 등 신행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다	452명(77%)
아니다	23명(3%)
그대로일 것이다.	106명(18%)

2-1. 2번 문항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신행생활의 변화는?

매주 법회에 나간다.	116명(25%)
교양대학 등에서 교리공부에 힘쓴다.	50명(11%)
주말 수련회 등에 참여한다.	91명(20%)
불교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50명(11%)
불교단체나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53명(11%)
각종 불교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73명(16%)
기타( )	19명(4%)

2-2. 2번 문항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가 및 레저생활을 즐긴다.	12명(52%)
어학공부 등 자기개발에 힘쓴다.	4명(17%)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명(13%)
지금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4명(17%)

3.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산사를 찾거나 도심포교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439명(75%)
여가 및 레저활동이 늘어나 오히려 절을 찾는 불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82명(14%)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44명(7%)
기타( )	16명(2%)

3-1.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주말에 만약 당신은 절에, 가족은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절에 간다.	365명(62%)
나들이를 간다.	113명(19%)
기타( )	103명(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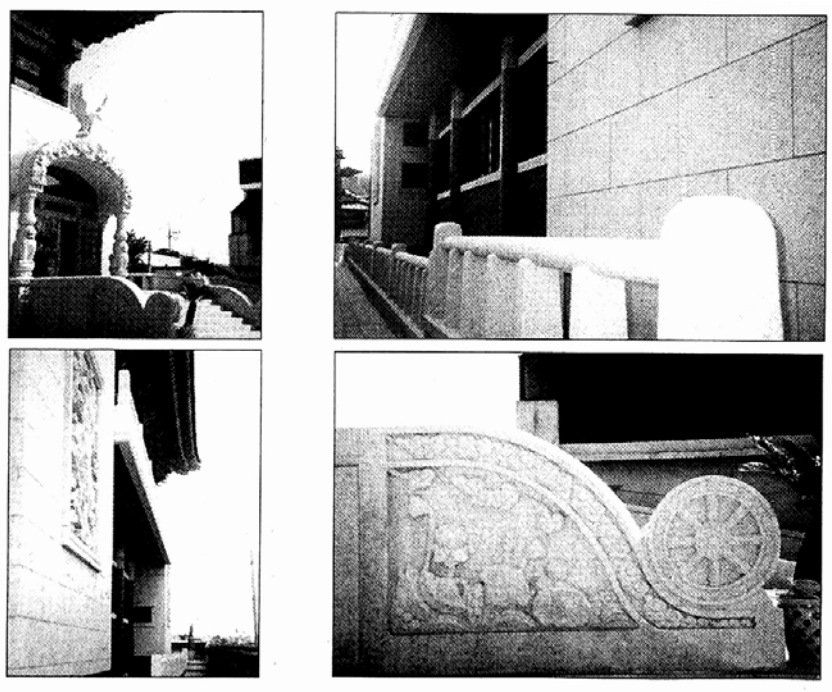
4.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은?

법회와 수행프로그램의 마련	289명(49%)
사찰 안내 및 홍보 자료 마련	78명(13%)
불교문화프로그램 정례화	186명(32%)
기타( )	28명(4%)

5.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불교계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은?

불교인구 감소	87명(14%)
전통사찰의 관광지화	256명(44%)
사찰환경 파괴	196명(34%)
기타( )	40명(6%)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합동석물(주) 대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 전 화 : 054) 955-8200~1 · FAX : 054) 955-8202 · 휴대폰 : 011) 509-1443

이제 조동선풍(曹洞禪風)을 일으키겠습니다
조계종(임제)과 조동종은 선종 양대산맥입니다.

소납(小衲)은 지난 5월 4일 조동종(曹洞宗) 적통(嫡統) 대본산(大本山)인 중국 강서성(江西省)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에 법당(法幢: 사법의 당기)을 세우고 정법안장(正法眼藏), 불조원류(佛祖源流), 조동종 제50세의 사법자(嗣法子)로 운거산 진여사 방장(方丈) 일성선사(一誠禪師: 강서성 불교회장, 중국 불교회 부회장)의 증명사(證明師) 집전 아래 조동종 제49세인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로부터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을 전수받고 귀국하였습니다.

운거산 진여사는 일천여년전 구산선문(九山禪門)중 수미산(須彌山)을 개산한 신라승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가 조동종제2조 운거도응(雲居道膺)선사회하에서 참학심인(參學心印)받는바 있는 도량입니다. 운거산 진여사는 개산(開山) 1200여년의 법등(法燈)을 밝혀온 선찰(禪刹)로 백장농선(百丈農禪)의 가풍(家風)을 실천하는 도량이며 돈오선풍(頓悟禪風)을 제일의로 표방하는 조동선(曹洞禪)의 대본산입니다.

또한 일찍이 조주선사(趙州禪師)가 주석한 바 있는 사적(史跡)인 조주관(趙州關)이 있고 임제(臨濟)의 종장 원오극근(圓悟克勤)선사와 대혜종고(大慧宗杲)선사가 주지를 역임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납은 일천여 년간 단절되었던 조동선맥(曹洞禪脈)과 선풍을 복원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바랍니다.

KOREA JODONG-JONG BUDDHISM HEADQUARTERS · 한국조동종총본산 · 우리는불교문중제

韓國曹洞宗總本山

창종위원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전 화 02)704-8065 FAX 02)704-8064
홈페이지 www.jodong.go.kr (11월중순개방)

중국 조동종 제50세 한국 법통 사법자
삼각산 원효사 금선학봉(今禪鶴峰)합장

"모든 존재 공존하는 불국정토 만들어야죠"

재가불교운동 10년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우리는 선우 이사장 박광서 VS 김동흔 경불련 운영위원장

실천을 통한 정법구현의 길을 모색해온 대표적 재가단체인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와 사회정의실현에 앞장서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이 10월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선우'와 '경불련' 창립때부터 돈독한 불심과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단체를 이끌어온 박 이사장과 김 운영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재가불교의 지도자인 두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는 선우'와 '경불련'의 10년을 돌아보고 재가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우리는 선우 박광서 이사장(왼쪽)과 경불련 김동흔 운영위원장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불교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동흔: 우리는선우(이하 선우)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불련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간 선우가 해온 활동에 대한 평가와 불교계에 끼친 영향을 말씀해 주시죠.

박광서: 불교계의 대소사들이 대부분 스님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선우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재가불자들이 스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재가불자들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가불자들이 수행과 사회의 문제를 서로 연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우의 10년은 그 두 가지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의미있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흔: 저 역시 선우가 재가결사를 선보이는 등 신행분야에서 개척자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가불교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의 뿌리도 선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광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급진과 보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재가연대입니다. 이는 폭넓은 연령층과 이념이 교차되고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불련 역시 그런 재가운동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동흔: 경불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출발했는데, 당시 200여 재가불자들이 경실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활동해 본 결과, 불교적 차원에서 사회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생겨 경불련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경불련은 초창기에 시민운동의 목표를 불교계로 가져오고, 불교계의 이슈를 사회 문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했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의 · 훼불 · 종교편향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불교라는 정체성 찾기가 어려워지더군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불자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인 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 등을 돕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전문 사회운동가나 지식인들이 배출되지 않고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새로운 한계가 되고 있지요.



박광서

72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 미국 웨이니주립대와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귀국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재가불교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91년 우리는선우를 창립했다. 현재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로 있다.

박광서: 불교계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유능한 젊은 불자들이 '불교적 삶이 좋다' 혹은 '불교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불련은 제3세계 구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외국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흔: 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불국정토란 모든 존재들이 공존해야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박광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과 달리 정신문화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시아 불교국가들 중에는 서구문화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 고유의 정신이 마비되고, 불교문화 역시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연대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불교국가의 승가를 지원하는 이유도 고유의 정신문화를 지켜보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선우는 가장 몽골다운, 캄보디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불자로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김동흔: 외국인노동자와 상담하면서 한국에 오는 이유는 그 곳에서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경불련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네팔 등의 불교국가를 돕고 있지요.

박광서: 그렇습니다. 재가불자들이 '불국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자들의 의식을 결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계에 자신감을 심는 이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재가불교운동은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지난 10년간 경불련과 선우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동흔: 여러 대안을 세우고 불교계는 물론 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재가불교운동이나 불교사회운동 분야에서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광서: 앞으로 불교에서 사회참여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불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와 관련된 교육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승가교육 과정에 마련돼야 합니다. 기관의 지도급이라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불자나 일반인보다 훨씬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흔: 재가불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재가불교 및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의식화되고 투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재들이 다시 배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가불교운동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교계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광서: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선우에서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돈의 2%를 수행과 보시, 봉사에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다른 불교단체나 사찰에서도 수용되길 바랍니다. 불교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체 신자의 41%가 십일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불자의 수는 많지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타행을 위한 보시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김동흔: 현대사회 문제에 대해 불교계에서 무관심한 것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가(Sangha)는 출가자 집단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틀로서 바라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불교의 고립을 극복할 수 없지요. 우선 선불교로 인해 관념화된 부분을 현대사회에 맞게 과감하게 재해석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박광서: 스님들이 중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승가와 재가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교육 대계를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무엇을 위한' 불교인지, '출가'이고 '재가'인지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고민 없이는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듣는 곳이 많지 않겠지요.

김동흔: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계종이 사찰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화해 놓는다면, 불교계의 흐름으로 정착될 수 있고, 불교계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자세로는 불교의 교리를 사회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박광서: 자비를 떠나 불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환자를 두고 온 사람에게 야단쳤습니다. 요즘 불교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환자'를 버리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선우는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주는 것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불교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불교지도자, 사회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우는 결사운동을 체계화시켜 회원이 아닌 불자들에게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동흔

91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을 결성하기까지 민추협, 경실련 등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발로 뛰며 이끌어왔다. 91년 경불련을 창립하고 운영위원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마을', '자비의 집', '무료 급식소', '이웃을 돕는 사람들' 등을 이끌어 오고 있다.

승가와 재가 역할분담 '따로 또 같이'

시간과 돈 2% 수행과 봉사에 쓰자

훼불 대응 – 노숙자 외국인 돕기 활동

재가불자 교육시스템 구축 급선무

김동흔: 경불련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에 상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을 불교계에서 품어안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타종교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또 환경운동이 '이론'이나 '주장'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경불련은 재가불교운동에 필요한 경전 어구를 결집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배포해 전쟁, 환경오염 등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 지를 고민하는 재가불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한·맘·유·학·원

캐나다 미국 중국 조기 유학, 어학연수 전문

현지 유학 경험자와 오랜 경력의 현지 유학 상담원의 가장 정확하고 싸른 유학정보와 수속으로 모든 유학업무를 책임지겠습니다.

취급업무
▶ 영어 · 중국어
▶ 대학생 및 일반, 회사단체의 장 · 단기 어학연수
▶ 정규유학(한, 석, 박사), 조기유학(중, 고생)
▶ 서류번역 · 항공 예약대행 유학생보험

Toronto branch
7Hayden St. #203 Toronto ON M4Y-2p2
Tel:(416)929-0175

Vancouver branch
#804-121-10th St. Newwestminster, BC V3M-3X7
Tel:(604)777-0054

L.A branch
400 South Harvard BL, #312 L.A CA 90020
Tel:(213)453-2679

Nan jing branch
Jiang-Su-Sheng, Nan-Jing city, Han-Zhoug-Men-Da-Jie
21 Hao, 5-2-204
Tel:00186-25-650-4368

수속절차 안내
유학국 선택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담 요망)
O
지역과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 결정(수속계약)
O
학교응시 (응시료 또는 학비준비)
- 출국시기를 예측하여 항공예약 -
O
입학허가서 취득
O
(필요시) 비자신청 및 취득
O
숙소결정 및 pick up 관련 결정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O
(필요시 출국안내) 출국

"풍부한 경험과 현지 사무소로 부터의 정확한 정보로 상담부터 출국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한 맘 유 학 원
TEL : (031)388-8426 FAX : (031)388-8427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0-1번지 트윈프리자 2층 205호
■ 지하철 : 4호선 평촌역 하차 ■ 위 치 : 귀인마을 먹거리 골목입구 조흥은행 2층
www.hanmamuhak.com
E-mail :hanmamuhak@yahoo.co.kr

2006년이면 개교 100년,
'참사람 열린교육의 도량(道場)'-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엽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한세기를 엮어온 동국대-
새시대를 밝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www.dongguk.edu
참사람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여수·여천·순천 등지 무의탁 노인들께

친딸처럼 점심차리고 목욕봉사

신행현장

여성불자 모임 '일심회'

"많이 드세요. 환절기에는 뜨거운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게 보약이죠."

12일 여수노인복지관(관장 진옥스님)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성불자들이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공양하고 있었다. 일심회(회장 이형숙)가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어르신 식사 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2백여 명 분의 밥을 짓고 미역국에 오이절임, 깻잎, 김 등의 반찬을 쉬지 않고 준비했던 터라 주걱과 국자를 든 손이 지칠 법도 하련만,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연신 관세음보살 같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경전으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운 행원(行願)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에서 절로 신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심회는 지난 84년 5월 여수, 여천, 순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20~40대 여성불자 17명의 공부모임으로 출발했다. 결성 전까지는 서로를 잘 몰랐다. 재적 사찰도 흥국사, 석천사, 한산사 등 각기 달랐다. 그해 5월 처음 열린 3개 도시 연합법회에서 "그저 내 가족, 내 자식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만을 좇을 게 아니라 경전공부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우자"는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법문에 화들짝 깨어난 이들은 법회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이날 새롭게 발심을 한 여성불자들은 결국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한마음으로 공부하며 봉사도 하자는 취지에서 일심

회원 집 돌며 매월 법회
신행 점검-정보 교류

회를 결성했다.

회장 이형숙 씨는 "5년 남짓 매주 모여 스님에게 〈금강경〉, 〈천수경〉, 〈원각경〉, 〈육조단경〉, 〈묘법연화경〉 등을 배우면서 불법에 어느 정도 눈을 뜨자, 이를 실천하겠다는 서원이 자연스레 모아졌고, 봉사 활동에 본격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일심회 회원들은 눈코뜰새 없는 한 주, 한 달을 보내고 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정기법회는 회원들의 집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봉행되는데, 이때 회원들은 〈금강경〉과 이산 혜연선사의 '발원문'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또 이 자리에서 한 달간의 봉사 활동을 발표하며, 자신의 신행을 점검받기도 하고 신행정보도 교류한다. 봉사 활동은 매월 둘째주, 다섯째주 금요일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노인급식 봉사에서, 목욕봉사,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간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중 황정숙 씨 등 4명의 회원들이 5년간 실시해 온 목욕봉사는 여수, 여천, 순천 지역의 70여 무의탁 노인 할머니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할머니들의 몸 구석구석을 자신들의 부모처럼 정성껏 닦으며 때를 씻어내는 일심회 회원들의 손길에 '무의탁 노인'이라는 꼬리표로 속상해 있던 할머니들의 마음의 응어리도 말끔히 씻겨 내려간다.

"제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겠다는 발심으로 모였던 20~40대가 이제는 40~60대가 됐다"는 이형숙 회장은 "'내친 걸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자는 공의가 모아지고 있어 조만간 회원들 모두 광주의 자비신행회의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심회 보살들의 손길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기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를 서원한 일심회 보살들이 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생활속의 불교

삶은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가 즐겨 쓰는 세간(世間)이란 말의 '세(世)는 가훼괴(可毁壞), 천류(遷流)라는 뜻이다. 닳아지고 무너지는 것, 바뀌고 흐르는 것이란 의미다.

옛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일컬어 뜬구름(浮雲)같다고 한 것은 허무의 읊조림이 아니라 실상을 본 나머지 내 뱉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이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를 뿌리고는 다시 수증기로 흩어지듯,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또 그렇게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의 지적이다.

불교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다만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므로 슬퍼하거나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태어남이란 곧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죽음이란 곧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누구도 영생하는 이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길어야 1백년 안쪽에 다 사라지고 말(근원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태어나(生) 자라고(住) 늙어서(異) 죽는(滅) 과정을 놓고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고 늙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공력을 들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도 예외없이 다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는다. 고로 그 자연스런 흐름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불교는 결코 허무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생주이멸의 흐름에 충실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말한다. 대 순간이 시작이요 오늘만이 영원하다는 삶, 시작은 좋고 끝은 나쁘다는 그런 관념을 내던지고 오로지 지금 할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고로 삶은 그대로 수행 과정이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 마디를 지어가며 거기에 스스로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있지만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성공·실패가 아니라 다만 수행인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악을 악으로 되갚는 전쟁 연기의 도리 모르기 때문"



무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지금 온 세계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이 원한이 끝난다'는 〈법구경〉의 말을 인용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이치를 이해함으로써만이 갈등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했다면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전쟁으로 되갚음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참나 찾을수 있다'
확신가지고 노력

이 목숨을 버려가며 왜 테러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자신의 나라인 가비라국과 석가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타들어가는 마른 나무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리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리왕은 그런 부처님을 보고 "왜 타들어가는 나무 아래에 서 있느냐"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나의 조국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이 나무와 같다"고 답했고, 유리왕은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해 되돌아갔습니다. 유리왕은 그 후 또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했다가 처음과 똑같이 나무 아래 있는 부처님을 보고는 또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이 세 번 째 출정을 하자 부처님은 유리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태도는 자존심을 내세워 무모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치욕과 민족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들어가는 나무 아래서 유리왕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과 나를 구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적대감과 원한을 확대시킬 뿐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불교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유익하고 값진 최상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연기나 인과법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무 조건이나 규제, 차별, 지위도 없고 끈도 없는 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차별과 지위와 끈에 얽매여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은 그런 모든 조건과 규제, 차별과 지위와 제약이 없는 참나를 인식시키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부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나'를 찾는다는 것은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 나'에 대한 이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위에 확신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확신이 들면 '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본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행 캘린더

10월 18일 (목)

■불교사회문화원 정기포럼=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오후 7시 문화원 교육실에서 '사회변화와 가족문제'를 주제로 제2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02)736-6940

10월 19일 (금)

■부부와의 화목한 만남 강좌=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7시 '부부와의 화목한 만남을 위한 훈련-에니 프로그램을 통하여'를 주제로 가을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김한권 홍익인간개발연구소장. (02)722-2101

■시민친절학교=대구 관음사는 오후 3시 대법당에서 '2002 월드컵을 위한 범시민 친절학교'를 개설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3)474-8228

■남대충 대종사 8주기 열반대재=천태종은 오전 10시 충북 단양 총본산 구인사에서 2대 종정이었던 남대충 대종사 8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한다. (02)573-7645

10월 20일 (토)

■동화사 학술회의=팔공산 동화사는 오후 2시 대불전에서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53)819-1450

10월 21일 (일)

■전국경찰불교회 창립법회=전국경찰불교회는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안심, 안전, 안정을 위한 전국경찰불교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18)250-3116

■만일염불결사 회향법회=대구 염불선원은 23일까지 선원에서 만일염불결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만일염불의 결사는 1974년 故 수산스님에 의해 입재됐다. (053)782-0120

■호국영령천도법회=건봉사는 오전 10시 30분 청화 스님을 초청,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전몰한 호국영령들의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33)681-8100

10월 24일 (수)

■조계사 창건92주기념 학술회의=서울 조계사는 오후 2시 문화교육관에서 '조선불교 조계종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 연구'를 주제로 창건 92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2)732-2115

■전법일법회=서울 강남포교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신 전법일을 기념하여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전법일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탈 종 공 고

법륜사	법진	우암사	지공
보현사	묘안	유명사	문현
지장암	정각	용문사	성도
유신암	평등각	불성사	청월
청룡사	지연	변성암	종안
갑성사	법륜	계명사	계명
지장암	범성	태봉정사	태봉
정토암	초이	연실암	의연
각성사	경공	대덕사	묘진
		자비암	자비행

귀 종단의 종풍 종지가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15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으며
고집멸도의 반야심경 시대는 지나고 새인류 도법의 고집진도의 반야심경 여래후후오백세 2500년 불법이 도래된 지게 수복자 달마의 근본법도 진 태양
● 오본래자토 五本來玆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제 66회 웅조달마진인경신도통하여 세계평화 종교통일 일류평화이룩하자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베일을 벗기는 경신일밤 자시와 오시에 진인도통군자들에게 원방각 해인도법을 직접받아 즉시 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며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달마의 진법을 수강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웅조달마진인경신도통이란 염라대왕 경자로서 생명을 관장하고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선천법도는 가고 후천대운으로 세계 인류평화종교를 통일 할 수 있는 초능력을 득도하여 새태양 새 운기 도법으로 상통천문 하달지리에 감추어진 원방각 해인법도인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혈단법으로 진인도통군자 대인류의 스승되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특별기도임을 명심할 지어다. 천문도통이 되는 날이 육십일에 한번 열림으로 양력 10월 23-24일 자시와 오시에 다시없는 법의 잣대를 얻어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잣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 할 수 있는 십이식의 법장보살에 도전하시어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대 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지 못하고 제멋데로 지껄이는 잡도에 끌리어 태산같은 병으로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척 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남의 공덕을 대접받고 갚을줄 모르며 스승사자를 알지 못하면 중음신과 잡신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질병, 고통과 근심으로 급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외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견성하고 토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자 영통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57-1

● 입제 : 양력 10월 23일 해시 ● 해제 : 양력 10월 24일 해제
동참하시는 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자만이 도통에 입문하시어 자기가 닦은 공덕으로 초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골목입구

熊祖達磨 진인 경신 도통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달마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6.불교-이슬람 41년 전쟁

바미얀대불이 파괴된 지 한달 후 나는 실크로드 지역을 여행했다. 이 여행에서 본 돈황을 기점으로 한 서쪽지역, 즉 신강자치구의 투르판, 하미, 호탄, 쿠챠, 카쉬가르는 철저히 이슬람권이었으며, 불교는 황량한 타클라마칸사막의 모래 속에 덮인 유적으로만 남아있었다. 오아시스 도시마다 불교왕국이 찬연한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꽃피우던 불교시대는 역사의 신기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실크로드 간선의 불교왕국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슬람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인가. 지금도 숱한 성보문화재들이 전 세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옛 불교왕국 호탄(지금의 신강자치구 서남부 和田市 일대)의 경우만 살펴보자.

9세기 후반 카라한 왕조가 중앙아시아에서 흥기하자 불교신도들도 그의 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10세기 초 카라한 왕족의 일원이었던 사툭 이 칸의 지위를 탈취하여 사툭 부그라 칸이라고 칭하면서 이슬람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불

칼날과 창끝 앞 강제 개종 당했다

교도와 기독교의 네스토리안 신도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면서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강요한다. 955년 혹은 956년 사툭은 고창(투르판)의 위그루 왕국과 전쟁 중에 죽고 그의 아들이 칸의 지위를 계승하여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계속 진행한다.

960년 20만명의 투르크(突厥)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961년 혹은 962년 불교국가 호탄을 정복하는 성전을 시작한다. 호탄은 수차례 세사람의 왕자와 승려를 감숙성의 돈황과 송나라에 파견하여 이슬람과의 전쟁에 필요한 후원을 얻어 카라한 왕조에 대항하면서 카쉬가르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점령이 10세기 불교와 이슬람간에 벌어진 최대의 종교전쟁의 원인이 되어 41년간의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

펠리오가 수집한 돈황 문서 제5538a호 〈우전왕위지서랍여사주대왕조원충서(于闐王尉遲徐拉與沙州大王曹元忠書)〉에 의하면, 969년 7월 호탄군대는 카쉬가르를 공격하여 그곳에 지방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데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조원충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호탄왕국의 시도는 카라한 왕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돈황 문서의 기록처럼 '아랍인들이 이미 바람같이 사라져 버려' 세워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9년 후 이슬람군은 카쉬가르를 다시 수복한다. 이슬람군의 장군 카디르칸 유숩은 4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카쉬가르로 진군하여 주민들에게 "이제부터 그대들은 이슬람에 귀의하여 참된 주를 기쁘게 하라."는 포고령을 내리자 주민들은 이슬람군의 칼날과 창끝 앞에서 강제 개종을 당하고 말았다.

이슬람군은 계속 동진하여 불교왕국 호탄국과 결전을 벌이게 된다. 1012년 이슬람군에 포위된 호탄왕성은 함락되고 왕이 전사한다. 이슬람의 전설에 의하면 호탄이 함락된 후 호탄의 잔여병력들은 동쪽으로 후퇴하여 산성을 쌓고 저항하였으나 강력한 이슬람군의 공세에 밀려 곤륜산을 넘어 티베트로 후퇴하다가 추위와 기아로 전멸하였다는 불교왕국 호탄군의 비극적인 최후가 전해진다. 이슬람학자 마흐무드 알 카시가리가 1075경 편찬한 〈디반 루가트 르크〉에 실린 "우리들은 홍수처럼 빠른 물결로 그들의 성시로 쏟아져 들어가 사원을 파괴하고 불상에 오줌을 갈겼네"라는 구절은 당시 불교에 대한 이슬람군의 만행을 보여준다. 호탄함락 이후 불교사원들은 파괴되고 승려들은 살해되거나 지금의 청해성 시닝(西寧)과 티베트로 피신하였다. 호탄에 머물던 쿠챠, 위그루족 불교도들도 승려들을 따라 피신하였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타민족에 용해되거나 사라지고 말았다.

뉴욕테러사건 이후 국내의 이슬람 전공자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며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의 불교왕국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슬람이 미국과 어떠한 관계이든 그 평화의 종교라는 외침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게 된다. 바미얀대불의 파괴를 보라. 이슬람은 인도불교를 소멸시켰으며 중앙아시아의 불교를 면도칼로 밀어내듯 소멸시켜버리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한국의 불교도들은 너무 모르거나 옛 전설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경학회 회주

화합·상생으로 가는 길이 될것인가

물자 세상보기

미국의 對테러 전쟁 현실과 당위 짚어본다



정천구
정치학 박사
영산대 교수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요새는 인간의 마음 속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UNESCO) 헌장의 서문이 요즘처럼 절절하게 들리는 때도 없다.

연일 아프가니스탄의 공중에는 포탄이 쏟아져 내렸고 탈레반의 주요 거점들은 초토화되었다. 이어서 지상군 투입과 탈레반 병력에 대한 직접 공격 등 다음 단계의 군사작전을 앞두고 있다. 어쩌면 이 신문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미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빈 라덴 보호의지를 거듭 밝히며 미국의 공격이야 말로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세계가 미국에 대해 성전(聖戰 jihad)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세계 여러 곳에서 반미(反美)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반전(反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 테러 전쟁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명분이 반 테러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대량살상을 금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오랜 규범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6천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반문명적 테러 행위를 응징하고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아랍 정책과 이에 대한 이슬람 세계의 반미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전 헌팅톤 교수가 예측하고 경고한 문명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문명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미국이 테러를 응징하면서 이슬람 종교나 이슬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무척 고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일 뿐 이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중돼 왔던 미국의 중동정책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이슬람 쪽에서도 합리적인 지도자와 국민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과 연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따라서 테러 조직과 그 배후 세력의 제거라는 반 테러 전쟁의 목적이 적은 희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취될 수 있다면, 반미 항전에 이슬람 세계 전체를 끌고 들어가려는 탈레반 정권과 알카이다 조직의 성전(聖戰) 구호는 호소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성공여부는 미국이 얼마나 이슬람 세계를 성공적으로 포용하느냐에 있다.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 속에 평화는 없다.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를 위협하는 자들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반 테러 전쟁을 정당화 하였다.

그는 또한 이번 작전명이 "항구적인 자유"(Enduring Freedom)라고 하면서 미국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무차별 테러공격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반테러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전쟁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자를 추적'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보다 더욱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왜 그들이 미국에 대한 자살공격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살펴 그 원인치유에 노력하는 일이다.

미국은 아랍세계의 이익과 자존심을 손상시켜온 중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첨단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서구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외교정책 전반을 재고하여 다른 국가의 이익과 다른 문명권의 가치도 함께 존중하는 화합과 상생의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테러를 낳게 한 증오심을 잠재우고 미국이 평화적인 세계 건설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하는 길이라 본다.



'서장' 통한 선 공부 ㉝

왕장원(往狀元)에 대한 답서(2)

다를 것도 없고 같을 것도 없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것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학문을 삼고 격물(格物)과 충서(忠恕)와 일이관지(一以貫之) 등으로 도(道)를 삼으니, 마치 수수께끼놀이를 하는 것 같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써 여래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고 석가세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와 좋고 나쁘고 손해보고 이익되는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인은 바로 성(性)의 인이요, 의는 바로 성의 의요, 예는 바로 성의 예요, 지는 바로 성의 지요, 신은 바로 성의 신입니다…. 만약 인의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격물과 충서와 일이관지도 그 속에 있습니다. 승조(僧肇)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학을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捨敎入禪)' 고 하여, 언어로 된 가르침을 버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禪)에 들어가는 것이 곧 선 공부라고 한다. 또 '선은 교 밖에 따로 전한다(敎外別傳)' 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 하여 선 수행은 어디까지나 선수행이고 교학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교학의 연구일 뿐이라고도 말한다. 또 학문은 이론적 관념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선 수행과는 그 범주가 달라서, 학문과 선 수행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제 공부에 입문한 학인(學人)의 입장에서는 일면 타당한 견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학문적 연구란, 관념들을 도구삼아 이리저리 추측하고 맞추어보아서 그럴듯한 관념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분명 자신과 세계의 본성(本性)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념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마음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선 공부이므로, 관념의 테두리 속에서 관념적으로 마음을 그리는 것으로는 선 공부를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차별적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선이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세계의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공부란 이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이 공통되고 유일한 바탕에 성(性)이니 도(道)니 선(禪)이니 마음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 즉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관념적이든 실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것이라도 모두 성(性) 혹은 도(道)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수행은 별개가 아니라 성(性)일 뿐이며, 교(敎)와 선(禪)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사교(捨敎)와 입선(入禪)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문자(文字)와 불립문자가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학문과 수행이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관념과 실재가 별개가 아니라 성일 뿐이며, 선이니 도니 성이니 하고 말하는 것도 성일 뿐이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성일 뿐이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성일 뿐이며, 성이니 무어니 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일 뿐이며, 성일 뿐이라고 하는 것도 성일 뿐이다. 이렇게 알면 다를 것도 없고 같을 것도 없어서, 다만 이럴 뿐이다.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는가? 말을 듣되 그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이 나오는 순간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글을 보되 그 글의 관념을 따라가지 않고 글이 보이는 순간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깨어 있거나 잠자거나, 늘 지금 여기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잠과 깸에 속지 않는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흔들리지 않는 초발심으로 정진하는 지도자

제3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3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흔들리지 않는 초발심으로 정진하는 지도자"라는슬로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회가 창립하지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열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생각하던 처음 발심하였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 여러분!

다시금 초발심을 바로세워 불국토를 향한 정진의 장에서 원대한 발원을 하여봅시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연수회 안내

■일 시 : 불기 2545년 11월 10일(토) 오후4시~11일(일) 오후1시(1박2일)
■장 소 : 경주온천관광호텔
■연수참가비

구 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비 고
미 리 접 수	40,000원	50,000원	레크리에이션전문과정
당 일 접 수	45,000원	55,000원	자격검정비30,000원별도
제주도,울릉도,군종병	30,000원	35,000원	※해외거주자는 무료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레크리에이션CD), 어린이법회지침서
■접수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2) 송금계좌: 우체국 601310-01-002215[예금주: 대불어]
다. 접수기간
11월 3일까지

주요강의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레크레이션(2과정)	상담교육(2과정)
대상	구분없음	31차 연수회 1과정 이수자	31차 연수회 1과정 이수자
방향	어린이법회 지침서의 활용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양성	전문 상담 지도자의 양성
교육내용	· 특성화된 법회의 소개 · 특별법회의 활용 · 법회는 이렇게 합시다.	· 친교프로그램 · 우리놀이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 분위기 집중 게임과 팀게임	· 인간으로서 나는. · 불교어린이지도자로서 나는. · 내게 아이들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 자신과 친구의 장점 찾기 · 문장완성하기 · 자비관과 마무리.
특전	기본과정 이수 인정하며 이수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 됩니다.	1과정, 2과정 및 소정의 자격검정을 이수하면 (사)한국여가교육협회가 인정하는 레크리에이션 2급자격증이 수여됩니다.	1과정, 2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 레크리에이션 1,2과정 이수자는 연수당일 자격검정이 있습니다.

주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 철오, 회장/정여, 상임부회장/운성, 부회장/각만 · 덕신 · 덕진 · 무등 · 심산 · 영조 · 원행 · 원혜 · 인성 · 지광 · 지현 · 해관(가나다순), 감사/성형 · 박창식, 지도위원장/박보리성, 운영위원장 /김주환

지역문의처 ■서울 · 경기 (02)433-1506.7/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051)818-7187/부산지구 사무국 ■대구 · 경북 016-505-3143/김청중 사무국장 ■대전 · 충남 011-9804-5955/김선림 사무국장 ■경남 (055)545-9599/최미영 사무국장 ■제주 019-9660-9583/이춘숙 사무국장 ■울산 (052)258-9944/정토사

7th 창간 7주년

클릭 … 클릭 … "불국토 열어요"

사이버 공간 스타 스님들

인터넷 시대를 사는 불자들은 사이버 공간에 설립된 사찰을 찾는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네티즌의 수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는 많지 않다. 아직 불자들에게 인터넷 공간이 낯설기 때문일까. 아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온 불교계의 '선구자'가 많지 않은 탓이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적지 않은 팬들을 확보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있다. 전법과 수행의 일념으로 사이버 공간에 뛰어들어 불국토를 열어가는 스님들을 통해 인터넷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구현될 불자들의 세상을 가늠해 본다.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교 IT계 이끌어



●성법 스님

경전총론 서비스
화엄경 CD롬 펴내



●벽공 스님

금강경 교리 등 연재
참선 상담교실 운영



●정도 스님

1년간 나우부마 법사
카페 법문 올려 호평



■ 종림스님(www.sutra.re.kr,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불교계 IT 선두주자이다. 1993년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전산화 사업은 우선 팔만대장경을 CD에 담아 지난해 말 완성하면서 1차적 결실을 맺었다. 스님은 93년 이후 꾸준히 세계전산화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난 8년 간 끊임없는 전산화 열정을 불태웠다. 사이트도 개설해 그간의 활동 사항은 물론 대장경연구소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장경연구소 홈에는 대장경 열람 검색 코너가 있어 언제든지 대장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곳은 경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번역자, 저자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종림스님은 "아직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봄전전산화 작업으로 불교계는 정보화 사회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 성법스님(www.sejon.or.kr, 고양 용화사 주지)= 성법스님이 운영하는 불교경전총론 홈페이지는 초심자와 깊이있는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화엄경〉과 〈법화경〉을 총정리하고 있는 곳이다. 1910년대 이후 가장 최근까지의 불교와 관련된 각종 해설서와 자료, 논문 등이 총망라 되어 있다. 경전 본문의 불교용어를 사전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불교용어를 경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타종교와의 비교'도 정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스님이 그동안 정리해온 〈화엄경〉을 〈화엄경총론〉이란 이름으로 CD롬에 담아 펴내는 등 발군의 전산화 노력을 보여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성법스님은 "'총론 전산화불사'는 주요경전 등 불교교학은 물론 수행에 관련된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와 사상 등이 총망라 된 것"이라며 "불자들에게 출가자다운 '법보시'를 행하는 일이 승려의 본분인데 나에겐 그 '법보시'의 결정체가 바로 '전산화 불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벽공스님(www.mahazen.org, 마하선원 주지)= 벽공스님이 인터넷에 둥지를 틀게 된 계기는 부처님이 설하신 교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일반 대중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이 없었던 20년 전부터 불전의 현대화에 관심이 있었던 스님은 그 관심을 이제 인터넷에서 마음껏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하선원 홈에서 스님이 주력하는 코너는 금강경 교리 연재와 인터넷 참선교실. 벽공스님이 운영하는 마하선원 홈페이지에는 생활과 직결된 실천 불교를 지향하는 곳이다. 벽공스님은 "랩송이 젊은 세대들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듯이, 다가오는 세대들의 남다른 의식에 맞추기 위해 불교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옛 것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불교계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천정진의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마하선원 홈에는 생활 속의 상담과 함께 교리상담 정진상담 등 여러가지 상담으로 네티즌들을 사로잡고 있다.

■ 정도스님(www.ijogyesa.net/club/default.asp, 조계사 카페 운영)= 조계사 포교국장인 정도스님은 나우누리 불교동호회인 부처님마을 회원들과 생사고락을 나누며 지도법사로 1년여 동안 활동해 왔다. 지금은 조계사 홈페이지에 카페를 개설해 네티즌 불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부처님 말씀이나 좋은 글들을 올리면서 불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정도스님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더 카페가 활성화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올 초 오픈한 조계사 홈페이지는 네티즌과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카페는 조계사 회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 정법스님(jb8985.buddhism.org, 다음넷 카페 운영)= 정법스님의 홈페이지에는 정이 가득하다. 지난해에는 언론사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홈페이지 등에 선정된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해왔다. 그러던 홈페이지가 스님이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잠시의 침체기를 거쳐 다시 지금 주소로 이전하면서 더욱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지금은 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다음넷에 카페(cafe.daum.net/jb8985)까지 개설해 왕성한 사이버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카페에서는 일미스님의 하버드 이야기, 혜민스님의 프린스턴 이야기 등의 게시판이 인기를 얻고 있다.

강지연 기자 jgang@buddhapia.com



◇컴퓨터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새로 업데이트 된 홈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좌로부터 원세, 명경스님과 앉아있는 혜관스님.

찰나에 부처님 말씀 '사바로'

청암사 승가대 컴퓨터실

새벽공부, 발우공양에 이어 오전 수업이 끝나는 9시. 청암사 강원의 학인스님들은 입승(학인의 대표자), 찰중(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 소임자), 원주(후원 살림 책임자) 등 자신이 맡은 소임에 따라 각자의 일을 시작한다.

명경, 원세, 혜관스님도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실로 향한다. 작년 봄에 처음 생긴 컴퓨터 소임. 컴퓨터 소임은 청암사 승가대학에만 있는 특이한 소임으로 컴퓨터실과 청암사 홈페이지(http://chungam-sa.or.kr)를 관리 운영하는 일을 담당한다.

정법루에 위치한 컴퓨터실. 10대의 컴퓨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제일 먼저 컴퓨터실에 도착한 명경스님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스님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한다.

원세, 혜관스님도 컴퓨터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유게시판과 편지보내기 코너를 통해 들어온 불교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고 육화로(이야기에 부처님 말씀을 선별해 올린다.

컴퓨터도 소임 과목
최신 멀티시스템 구축
대중과 통신교류 활발

스님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자유게시판은 하루에도 평균 10여건에 가까운 글이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청암사를 찾을 수 없는 신도들이 스님들과 E-Mail을 통해 매일매일 자기 주변상황, 공부상태, 불자로서의 힘든 일 등을 상담하고 있다.

명경스님은 "얼마전 미국에 살고 있는 허옥신 보살에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학인스님들의 단체인 금강회와 어린이 법회를 위해 써달라고 200불을 보시 받았다"며 "청암사 홈페이지는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웃음을 내 보인다.

청암사 스님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달마넷에 '이곳이 위치한 곳은 깊은 산속의 분지에 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라고 청암사를 소개했던 내용 때문. 소임자 스님들이 달마넷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산중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개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북묵부답이었다. 그래서 강주스님과 강사스님이 의논하여 홈페이지제작에 뜻을 모았고, 4개월의 준비 끝에 2000년 7월 15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야말로 전화위복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더불어 사내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사무실, 도서관, 극락전, 진영각에 30여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최신 빔 프로젝트 등 멀티시스템을 구축,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승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강사 상덕스님은 "학장이신 지형스님과 급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승가가 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의 청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며 "산중이라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스님들도 정보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젊은 학인스님들을 위해 현대식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소박한 미소를 지으신다.

스님은 또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체"라며 "전통강원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 인터넷 관련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직 많은 사찰들이 정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현실 속에 청암사가 이미 1년전 부터 학인스님을 위해 최신 멀티미디어를 구비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석예불, 새벽과 오전공부에 이어 2시에서 4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학인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실을 지키고 있는 세 명의 소임 스님들에겐 하루 24시간이 짧기만 하다. 컴퓨터 소임의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데다 강원 수업을 따라가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들은 강원의 대중생활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불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오늘도 컴퓨터실을 지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삼보에 귀의하옵고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불자여러분과 함께
국민우선정치에 힘쓰겠습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하순봉, 김진재, 김기배, 김태호, 정재문,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김용갑, 이상배, 이해봉, 임진출,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용학,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원형,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천년의 소리' 다시 울린 서라벌의 가을

에밀레종 9년만에 한글날 시험타종

"神音 듣자" 1천명 발길

내년부터 개천절 타종

비천상 모형 탁본뜨기 등

'문화체험 한마당' 성황



◇9일 오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이 9년만에 타종됐다. 신음(神音)을 듣기 위해 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한글날인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종각에 설치된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신음(神音)이 9년만에 서라벌 땅에 울려 퍼졌다.

제29회 신라 문화제(8~10일) 기간 중 열린 타종식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이원식 경주시장, 경주박물관회 소속 회원, 관람객 등 1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신라 문화제 기간 중에는 비가 내린다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는 올해도 어김없었다. 전날부터 내린 가랑비에 서라벌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소리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 아침까지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오전 9시 풍물패 두두리 극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타종 행사가 시작됐다. 박영복 국립경주박물관장의 헌향(獻香)에 이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경주 문가차회, 울산 정로차회, 대구 수정차회, 부산 관정차회, 문경 다우회 회원들이 차를 올렸다. 백련도 바쳤다.

이윽고 오전 10시 정각, 1200여 년 전 신라인 복장을 한 두 사람에 의해 18번 종이 울렸다. 18번은 108번뇌를 증인 것이다.

이날 타종을 맡은 사람은 1980년대 초부터 1992년까지 제야의 종을 쳤던 경주박물관 방호원 김선도(55) 씨, 서유성(56) 씨가 옆에서 도왔다. 이들이 종각에 설치된 당목(撞木)으로 당좌(撞座, 종 몸체의 종 치는 자리)를 치자 9년 동안 잠자던 신종이 천년의 소리를 들려줬고, 숨 죽여 지켜보던 관람객들의 '아~' 하는 탄성이 이어졌다.

타종을 맡았던 김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종소리를 울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긴장감에 어제는 새벽 3시에야 잠이 들었다"며 "종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밖엔 없었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종소리를 듣기 위해 포항에서 부인과 함께 온 정기열(63 · 포항시 남구) 씨는 "녹음된 소리는 몇 번 들어봤지만 실제 종소리를 듣기는 처음"이라며 "이 소리가 1230년 전 울리면 그 소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온 정시마(36 · 울산시 야음동) 씨는 "종소리가 가슴을 때리는 느낌이었다"며 "역시 종은 늘 울려야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기능보유자인 이애주(서울대) 교수는 타종에 맞춰, 신종을 만들 때 희생됐다는 전설 속의 어린아이를 위한 살풀이 춤을 30여 분 동안 추었다.

원래 이날 타종은 신종을 칠 때의 진동과 음향 신호를 분석해 현재 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종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신라 혜공왕 7년(771)에 조성된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제야의 종으로 타종했으나 보존관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 1993년부터 타종이 중단됐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에 걸친 안전진단 끝에 1999년 문화재위원회가 타종 결정을 내렸다. 내년부터는 개천절인 10월 3일에 타종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예전처럼 혹한기인 12월 31일에 종을 치는 것은 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종일을 10월 3일로 잡았다.

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비천상을 4분의 1로 축소한 모형 탁본 뜨기, 성덕대왕신종 스탬프 찍기, 다도 실습 등을 곁들여 타종 행사를 '서라벌 문화체험 한마당'으로 꾸몄다. 박영복 박물관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범종이요 세계적 문화재인 성덕대왕신종의 타종은 학술자료의 확보는 물론, 온 국민이 신종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경주 분황사에서는 화쟁사상을 통해 여러 종파의 사상을 통합하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 있는 불교를 만들려 했던 원효 스님과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제6회 원효 예술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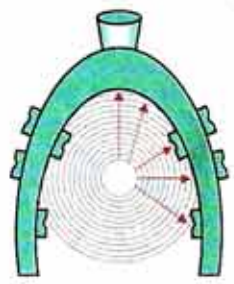
'원효 성사의 가르침은 새천년의 빛'을 주제로 열린 예술제에서는 거리낌없는 노래와 춤으로 대승 보살도를 실천했던 원효의 무애가무행(無碍歌舞行)을 오늘날의 의미로 되살린 시와 노래, 음악과 춤, 극, 굿 등으로 표현했다. 창작 무애무 공연을 비롯해 부산 남산놀이마당의 풍물과 불국사 선재어린이합창단의 노래 공연, 대금산조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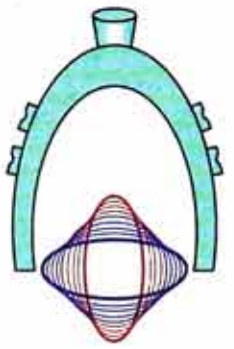
신비한 종소리의 비밀

진동수 차이나는 맥놀이 현상

둥근 종소리 1분이상 수축→확산



◇종 안에 있는 덤쇠 등 '비대칭성'이 맥놀이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타종시 종의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둥근 소리가 수축 · 확산을 반복하면서 맥놀이로 이어진다는 것이 배명진 교수의 주장이다.

긴 여운, 그윽한 소리, 신비의 종소리로 유명한 성덕대왕신종. 이날 타종식을 지켜본 국립경주박물관 박영복 관장은 "중국과 일본의 종소리도 많이 들어 봤지만 성덕대왕신종만큼 웅장하면서도 맑고, 심중을 울리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소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신비로운 종소리의 비밀은 바로 '맥놀이 현상'에 있다. 맥놀이 현상이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의 여운이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주파수 차이가 근소한 2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면서 진폭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합성파를 만드는 현상. 신종을 칠 때 소리의 여운이 1분 이상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맥놀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을 만들 때 재질이나 종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종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 않아 진동수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다.

진용옥 경희대 교수는 1996년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회의'에서 신종 상부에 만들어진 36개의 연꽃형 돌기와 내면 상부의 커다란 사발모양 돌기(덤쇠)가 맑은 종소리를 내기 위한 고도의 장치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안쪽의 사발모양 돌기가 종을 비대칭으로 만들어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내부에 쇠 찌꺼기같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역시 "이 쇠 찌꺼기로 종의 비대칭성의 폭을 확대해 맥놀이 현상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배명진(숭실대) 교수는 최근 "신종 아래 부분의 오므라든 부위에서 발생하는 원 모양의 종소리가 맥놀이 현상의 근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통설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배 교수는 "유리잔이나 크리스탈 잔처럼 주둥이가 오목하고 무늬가 없이 대칭을 이루는 용기에서도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대칭에 의한 맥놀이 발생 이론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종을 치면 둥근 종소리가 발생, 수축과 확산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수축과 확산이 종소리의 탄력주기이며 이것이 이어지면서 맥놀이 주기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종의 아래가 오므라들어 있어 소리를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여운을 길게 유지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맥놀이 현상과 연결시킨 연구는 없었다.



◇타종에 이은 서라벌 문화체험 한마당에서 관람객들이 신종에 새겨진 비천상 모형의 탁본을 뜨고 있다.



◇신종이 울릴때의 진동과 음향신호를 분석해 현재 종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구적인 보존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회 신라 문화제 기간(8~10일)인 9일 경주 분황사에서는 제6회 원효예술제가 열렸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선식을 하자

몸청정 마음청정

맑고 깨끗한 음식은 맑고 깨끗한 혈액을 만든다. 만병의 근원은 염증인데, 체세포에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혈액의 산성화에서 비롯된다. 이는 모두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 섭취한 결과다.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혈액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인간의 숙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대 고승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즐겨 먹어온 선식(禪食)이야말로 왕도중의 왕도이다.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 음식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결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식은, 수행하는 불자들에겐 일석삼조이다. 또, 선식의 효과는 누구에게나 정직하다. 누구든지 실천하는 만큼,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그 결실이 주어진다. 그 실천의 덕목은 의외로 간단하다. 적게 먹고,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으며,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봄에는 생물의 기운이 어린 새싹에 모이고, 여름에는 줄기나 꽃으로 모이며, 가을에는 열매로, 겨울에는 뿌리 쪽으로 기운이 모인다. 그래서 봄의 나물, 여름의 줄기 채소와 꽃요리, 가을의 과실과 씨앗, 겨울의 뿌리채소가 선식의 주재료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 재료는 모두 선식의 '몸'에 해당하는 죽식(粥食)과, 선식의 '정신'에 해당하는 차(茶)로 활용되었다.

또한, 선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마음을 비우게 하는 것이 선식이며, 마음을 비울 수록 실천에 옮기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식(小食)이 강조되고 느긋하게 천천히 씹어가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인간사의 길흉화복은 그 근본이 먹는 것에 있다. 음식을 조절해야 비로소 마음의 뿌리를 관(觀)할 수 있는 법이다. 아무리 뛰어나도 눈과 머리로는 팔만대장경의 깊은 뜻을 관통할 수 없다. 오직 어진 마음으로만 꿰뚫을 수 있는 법인데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선식은 불자들에게 의미가 깊다. 평생 먹는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의 향기를 규정한다. 미래에는 선식으로 모든 불자들의 향기가 맑고 청정해지고, 온 세상이 청정해지길 기원해본다.

어느덧 선식 기행을 연재한 지도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 찾지만
장수의 비결 눈앞에 있는 줄 모른다네.
나는 아주 간단한 도리 터득해
죽으로 신선이 올고 가게 한다네.

〈끝〉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백파선사의 '吾覺'

선사는 조선 영조 43년(1767)에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속성은 이(李)씨 법명은 긍선(亘璇), 당호는 구산당(龜山堂), 법호는 백파(白坡)이다.

18세 되던해 정종10년(1785)에 선운사에 가서 시현장로(詩憲長老)에게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맹자(孟子) 있는 구결(口訣)인 일자출가 구족생천(一子出家 九族生天)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모두 천상에 난다"라는 것을 보고 출가를 하였다. 연곡대사(蓮谷大師)에게서 사미계를 수지하였다.

선사는 화엄학의 거장이던 설파상언(雪坡尙彦:1707~1799)화상을 찾아 지리산 영원사(靈源寺)로 향했다.

설파문하에서 수학 일년 만에 구족계를 받아 율종(律宗)의 계맥을 이어받았으며, 선(禪)을 수참하였다. 선사는 29세 되던 해에 영원사를 떠나 백양사 운문암에서 선강(禪講)을 시작하였다.

머리카락 더부룩 눈 불거진 모습

이 늙은이의 진면목일세

다시 순창의 구암사(龜岩寺)에 머물었으며, 율사로서 강론을 하였다. 45세 되던 해 우연히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진실한 법은 문자밖에 있음을 깨닫고 그동안 문자를 중심으로 강론해온 것을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서 평안북도 초산(楚山)의 용문암(龍門庵)으로 들어가 용맹정진에 돌입하였다. 용맹정진 5년만에 심지본연(心地本然)의 본체를 깨달아 확철대오 하였다.

오각(悟覺 : 나의 본모습)

頭髮叢多眼卓朔
두봉송혜안탁삭
此其老僧眞面目
차기노승진면목
上柱天之下柱地
상주천지하주지
佛祖元來覓不得
불조원래멱불득
呵呵呵呵是甚麼
가가가가시심마
南北東西唯是我
남북동서유시아

"머리카락은 더부룩하고 눈은 툭 불거진 그 모습,
이 늙은이의 진면목일세.
위로 하늘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선 그것을,
부처님도 조사(祖師)님도 원래 찾을 길 없구나.
우습도다 그것이 무엇일까,
남북동서에 오직 나 혼자이로다."

선사는 용문암에서 5년간 수선결사를 마치고 고향의 인근 고을인 장성 백양산 운문암으로 돌아와 쇠잔한 불교계에 새로운 전력을 하게 되었다.

이때 선사께서 설파하신 선강(禪講)은 조사선(祖師禪)의 선구(禪句)하였다. 또한 그때 선구를 정리해 놓은 〈선문수경(禪文手鏡)〉은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의(草衣)선사와의 선논쟁의 계기가 된 〈선문수경〉은 5종의 강요와 어구를 입제의 3구(句)에 배대하여 도표식으로 설명한 역작(力作)으로 3만여 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선사께서는 64세 되던 해에 순창 구암사로 가서 퇴락일로에 있던 가람을 중창하였으며, 대규모 선강(禪講)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많은 납자들이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선사를 선문(禪門)의 중흥조라 불렀다.

선사께서 설파한 선의 사상은 임제삼구(臨濟三句)에 두고 있다. 즉 대기대용(大機大用), 살활기용(殺活機用)으로서 의미를 부각시켰다.

한마음 청정함(佛)을 대기(大機)라 하고 마음의 광명(法)을 대용(大用)이라하고 청정과 광명이 함께 베풀어짐(道)을 기용제시(機用齊施)라 하였다. 그리고 이 삼구(三句)가 하나라고 설파하였으며, 조사선은 마음의 큰 기틀과 큰 작용이 함께 베풀어지며 진공(眞空)과 묘유(妙有)가 함께 작용하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하는 경지라고 설파하셨다. 이것이 선사의 가르침이었다. 선사께서는 쇠잔해가던 조선후기 불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학장(學匠)으로서 침연한 학문적 업적과, 선의 선장(禪匠)으로서 선불교를 부각시켰으며, 율사(律師)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철종 3년(1052) 8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가까이서 뵌 큰스님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불교를 철학아닌 실천으로 알자"



◇좌선과 염불을 함께 하면서 늘 부처님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신다는 도원스님.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많지만 불교의 순수한 형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철학을 공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한 일본 선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선사는 덧붙여 불교가 철학적으로 심원한지, 훌륭한지 보다는 불교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불교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철학이나 가르침만을 논하는 것보다는 불교를 철학 아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을빛이 완연해지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휘돌아 찾아간 파계사 대비암에서 도원(道圓) 스님께 들은 법문은 그것이 전부였다.

佛法 어려울 것 없다

"나는 불법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불법이 별스럽게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설수행, 즉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수행하라고 했고 의교봉행, 즉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받들어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그 속에서 인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를 분명히 알고 사리에 밝아야 합니다. 사리에 어둡고 인과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지 인과를 분명히 알고, 사리에 밝으면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뿐이지 불법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고 엉뚱하게 헤매지 말라는 것이죠."

"늙은이가 자꾸 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한사코 법문을 마다하시던 스님께서 던진 이 말씀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그것말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는 듯. 기자를 건너다 보시는 스님의 눈빛이 참 맑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일상 생활에서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부처님은 오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사람노릇 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계만 제대로 지켜주어도 이 사회는 대단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살생', '불투도'의 계만 지켜져도 자물쇠로 잠글 필요도 없고 남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어져요. 그런데 잘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계는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불사음의 계를 제대로 안 지키니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 졌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누구없이 혼란스러워져서 그 피해를 자손들이 모두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살아가면 신뢰를 가지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 술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술을 먹으면 앞의 네 가지를 다 범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예요. 교통사고, 싸움 등 모든 것에 술이 주범이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먹어서 안달이 나고 술 먹지 말라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겨요. 그것은 청소년이나 지키는 것쯤으로 무시해 버리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혐이 들어서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지킨 사람이

> "부처님 하라는대로 하면 제자의 할 일 다하는 것 엉뚱하게 헤매지 마세요"

있는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지켰다고 하는 이가 드물 거예요. 천기자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습니다."

스님이 크게 웃으신다.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신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에 따라 웃고 있으니 스님께서는 "그런데 무슨 불법을 별스럽거나 야단스럽고 어렵게 알아 가지고 그럴 게 있느냐"며 마지막 일침을 놓으신다.

"그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행복해지길 원하면 이 여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하는 것이 육바라밀이예요. 그런데 실천 안 하잖아요. 실천 안 하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가 되었지. 모든 사람이 남에게 보시하고, 봉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가 극락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이 오계만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령, 규율, 질서 등이 다 계율입니다. 이것을 잘 지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법 정신 속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욕 인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부처님은 욕된 것을 참으라고 했거든. 당장 좋은 것에 빠져들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아는 것과 함께 남이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 바라밀은 부지런하고 조밀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선정 인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탕 비워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든 담을 수가 있게 되거든. 마지막으로 지혜 바라밀인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듯이 지혜로운 이는 분수를 알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것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잘 지키면 행복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았어요. 너희가 행복 하려거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하고 다 제시해 놨거든.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그리고 진리를 드러낸 말씀으로 요약돼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밀천 하나도 안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다 설해 놓았는데 하나도 실천은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불법을 따로 구할 게 있냐 이 말이지."

생활 속의 행(行)을 강조하시는 스님의 일상은, 2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주지직을 맡아온 파계사 시절부터 대비암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녹용경옥고

경옥고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1) 정이 허한 것을 충전시켜 준다
2) 뇌척수와 골수를 보하여 준다
3) 인체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
4) 정신력을 충만하게 한다
5) 오장을 모두 좋게 만든다
6) 빈혈을 고치고 체력을 증진(강장)
7) 심장을 강하게 함(강심)
8) 소변을 좋게 함(이뇨)
9) 인체의 독성을 제거함(해독)
10) 피를 북돋음(보혈)
11) 신경을 안정시킴(진정)
12)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움

녹용경옥고
50일분 고환 42만원
문의전화 02) 742-5872
016) 231-5872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도원스님은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고 인과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고 강조하신다.

도원 스님은?



도원 스님은 어려서 몸이 몹시 약했다. 1928년 경북 영천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스님은 12살 때는 숨이 거의 넘어가 거적에 덮힌 채 하룻밤을 지내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스님은 그날 밤 어린시절 소풍갔던 수도사에서 참배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시작된 불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에 동향인 은사 고송 스님이 상좌를 구하러 마을에 왔을 때 부모님들의 권유로 고송스님을 만나면서 염매를 맺었다. 그 다음날 절로 들어와 버린 스님은 41년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 51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다음 월정사 · 파계사 주지,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포교가 잘못되었는지 불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교리보다는 기복에만 끄달린다고 걱정한 스님은 "스님들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신다. 그래서 스님은 매월 18일 대비암과 대구 은적사 초하루법회때 〈승만경〉, 〈유마경〉 등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 전하는 일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불보살의 화현을 곳곳에서 만나면서 살아왔다"는 도원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무심의 경지에 이르러 우주법계에 충만한 부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에 촌각을 아끼며 팔공산의 기운을 지켜가고 있다.

으로 옮겨온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 23년 동안 파계사 주지를 맡았던 것에 대해 스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 "오래했지? 내가 명예에 탐착이 되어 너무 오래했어요. 하하하!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막급 이지. 그때는 파계사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파계사를 극락세계로 만들어 놨다 한들 내 본분사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상좌 보고는 주지 하지 말고, 참선 염불하면서 살라고 하지요." 파계사를 위한 23년은 오늘 스님의 더욱 첨저한 수행이 있게 하는 정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다. 아미타불 주력을 수행 삼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스님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탑을 세 번 돌고 간절하게 서원을 세운 뒤 마당의 큰 바위에 앉아 나무아미타불 주력 천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하루 일과 중 참선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아미타불 주력을 쉼없이 하고 있다고 하신다.

요새는 아미타불 주력

"부처님 생각하는 것이 내 일상이야. 젊어서는 관세음보살 주력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아미타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좌선과 염불을 함께 하면서 늘 부처님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스님은 15살 되던 해, 은사이신 고송스님과의 인연으로 음력 삼월 삼짓날 절에 온 이후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처럼 따르며 익혀왔다. '마치 부처님을 뵙는 듯 눈이 부셨던' 고송스님과의 인연 이후 한암스님 회상에서 경학을 배우며 승려의 기본을 갖추어 나갔던 스님은 한암스님을 '선교를 겸비한, 청백가풍이 철저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한암스님은 중은 중노릇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지. 딴 생각을 내지 말고 스스로 발심하여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시줏물을 무섭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 수행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전부 남의 시줏물로 살고 있으니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는 오직 중노릇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거였지. 도량에 다니시다가도 쌀 한 톨, 팥 하나라도 일일이 다 주웠을 정도니까. 그렇게 검박한 생활을 하는 분은 처음 봤어. 당신 방에 가봐도 조그만 책상 하나뿐이고 식생활도 아침엔 죽, 점심은 밥, 오후에는 불식(不食), 철저히 지키셨지."

> "계율만 제대로 지켜도 살기좋은 세상 될텐데 안지키니 혼란 생겨요"

중이 출가를 했으면 참선, 염불, 경학, 대중봉사, 포교 다섯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한암스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선택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열린 수행의 기틀이 되었다. 도원스님은 또한 불교는 승속이 없고 장유가 없고 귀천이 없는 공부임을 늘 강조한다. 그리고 공부방법에 있어서도 참선, 염불, 주력 어느 것이든 길이 다르다 뿐이지 마지막 도착지는 같다고 가르친다.

"염불도 참선도 삼매에 들면 한가지야. 망상 다한 자리는 똑 같은 거니까. 매 순간 삼매 가운데 있으면 부처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지"

스님은 한암 스님을 모시고 있던 상원사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등의 경전을 배웠다. 도원스님의 경학은 그 깊이나 넓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러고 있지 않아. 벌써 절은 확인돌 가르친다고 나섰지." 아는 것이 없다는 스님의 부정은 겸손이기보다는 늘 새로운 정진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다른 표현으로 보였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만큼 스님은 종단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개선책이나 해결책까지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원로스님들이 종단의 기본 골격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기에 누구보다 종단에 관심이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원로회의에서 집약된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스님은 늘 어른 노릇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원로들이 앞장서서 체계를 새롭게 잡아 주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교육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강원은 3~4백년전 선사 스님들이 순한문으로 하던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천해 돌아가는데 불교를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현대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없다는 거지. 현대의 빠른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이 나와야 해. 또한 행자교육 문제도 말만 행자교육이 부족하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은 없어. 행자시절에 승려 기본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근본교리도 모르면서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야. 이런 것도 종단의 어른인 원로들이 고민을 해서 행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어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계속되는 도원스님의 종단 걱정에서 실감한다. 스님은 "종단의 소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개인의 이익에 매이지 말고 종단 화합을 위한 큰마음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어른노릇 해야 하는데

다과를 앞에 놓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스님의 모든 말씀은 과일의 단맛처럼 술술 넘어갔다. 스님이 이처럼 받아먹기 좋은 쉬운 법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법문 하라고 하면 모두 어려운 법문만 해요. 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면 '아이구, 저 스님 선법문 하는구나' 하지만 법문이란 알아듣게 해서 깨우쳐 주자고 하는 것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해 가지고 뭐하겠어. 선법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쉽게 알아듣도록 해주는 것만 못해요."

이어 스님은 "집착을 놓고 생사가 둘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을 공부해 왔는데 참선을 했든, 염불을 했든, 절을 했든 죽음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면 공부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큰일이 아닌가?

스님은 놓치지 않고 중간 점검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다.

"그래서 불법을 생활화하자는 거지. 일상 생활이 불교화가 되어야지.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면 잠깐 앉아서 자기 하루를 돌아봐야 해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처님답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또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을 돌아보고, 일년을 살고 나면 일년을 돌아봐서 어떤 것을 못 살았고 어떤 것을 잘 살았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는 앞으로는 더욱더 부처님답게 살수 있도록 다짐을 해나간다면 중간 점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반조하는 정신이 있어야 불법을 생활 속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 일초스님

문득 계룡산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면 빛나던 눈빛으로 또랑또랑하게 글을 읽던 내 도반들과 그윽한 미소를 지닌 강사스님을 뵈올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동화사 강원시절에 난 강사 일초(一超) 스님의 시자를 자원해 세 철을 살았다. 그 당시 전국의 강원에서 가장 알차고 깊이가 있는 강의를 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으신 일초스님은 강사란 일상의 모든 삶이 경전 속에서 녹아 내릴 때라야 제대로 부처님말씀을 전할 수 있다며 항상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우선으로 하셨다. 그 분이 강의를 하시면 아주 난해한 논서들도 아름다운 수필처럼 가슴에 와 닿았고 편지글들은 마치 역사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처럼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어느 때 보아도 스님 방엔 불이 켜져 있다. 그 때마다 낮고 고즈넉한 경 읽는 소리가 어두운 밤길을 따라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아서 염화실 마루에 앉아 졸면서도 일어설 줄 몰랐다. 사실 내가 스님의 시자를 살았던 것은 나름대로 공공이가 있었다. 강사스님 방에 있는 많은 경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반 수업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방의 모든 책들을 섭렵했다. 그런

늦은밤과 새벽 경읽는 소리

난해한 논서 강의 수필처럼

데 문제는 점점 다른 책들을 읽고 싶은 욕망이 일어 나는 것이다. 그 당시 강원에서는 경전을 제외한 책은 외전이라 부르며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지금은 도서관까지 환출하니 지어 다양한 책들을 보며 공부할 수 있지만 20년 전엔 어림도 없었다. 몰래 읽다가 걸리면 무조건 정학이었다.

하루는 강당채 마루를 지나가다 보니 몇 명이 책상을 쌓아 놓은 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살그머니 다가가서 "뭐하는데?" 갑자기 묻자," 저리가라마. 난 또 입승스님인 줄 알았잖아." 허둥 대는 그들 손에는 당시 신부님과의 슬픈 사랑을 주제로 세간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던 〈가시나무새〉라는 책이 표지가 벗겨진 채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들려져 있었다. "어, 소설책이네? 오랜만이다. 나도 좀 보자." 겨우 졸라서 입주임 후에 그 책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그 책을 들고 매일 책을 읽던 강사스님 방에 들어가 걸레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책읽기 삼매에 빠져 그만 강사스님이 들어오신 것도 몰랐다.

"원욱, 뭐 하는고?" 순간 나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하필이면 소설책을 보다 들켰으니 정학은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보던 것 이리 가져오고 그만 나가봐라." 시자실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어찌나 불안한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묻으시면 출처를 대야할 내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 때 시자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강사스님이 부르셨다. "달이 좋다. 이리 나와 봐라. 공양간에 가서 양동이랑 바가지 가지고 나를 따라 오렵." 동화사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골바람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몹시 추워 사람은 물론 숲도 전각들도 심지어는 시간마저 얼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 바람이 몰아치는 이 추운 달밤에 나를 어쩌시려고 저러시나 싶어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표족한 수가 없으니 시키는 대로 개울가로 나갔다. 스님은 바짝 긴장한 나를 보고 웃으시면서 개울물을 퍼오라고 하셨다. 그 웃음에 나는 벌받는 게 아니구나 싶어 얼른 물을 길어왔다. 양동이 물을 받아든 스님은 갑자기 주지실 옆 작은 비탈길 아래로 쏟아 부우셨다. "이 추운 겨울에 공부하느라 애쓴다. 내 눈에 그 책이 뜨인게 달포쯤 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 걸 보니 꽤나 심심한 모양이구나. 외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세속인연들을 다 털어내지 못한 마음자리를 가다듬게 하기 위함이야. 차라리 자연에서 즐기는 것을 하나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구나. 하인 시절에 우리는 이곳에 물을 뿌려 밤새 얼리고 다음날 아침에 신나게 미끄럼 타고 놀았단다. 내일은 강의를 일찍 끝낼 터이니 한판 재미있게 놀아보거라. 탈 것으론 가마니가 제일 좋지."

그 날밤 강사스님 하고 나는 개울에서 뜀을 펴다 비탈에 계속 뿌렸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우리의 작업은 끝났고 때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양동이랑 바가지를 내 손에 쥐어주시고 책 많이 보면 눈 버린다며 걱정스런 눈빛을 남기고 가시는 뒷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침이 되자 눈 내린 비탈길을 곱게 쓸어 놓고 반 스님들이랑 가마니에 대여섯명씩 올라타고 신나게 미끄럼 타며 아이들처럼 웃고 놀았다. 그 웃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계룡산 급이급이 메아리 치는 게 듣기 좋다며 흐뭇해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너무 그립다. 철없던 하인에게 꾸지람보다 따뜻한 마음을 주셨던 일초 스님은 동학사를 떠나셨지만 가끔 방송을 통해 깔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나마 아쉬움을 달랜다. ■ 반야사 주지

국제 불교 유적 성지순례 인도 · 네팔 · 중국 · 미얀마

인도 9일 상품가 1,690,000원

- 일 정 : 서울-방콕-캘커타-파트나-라지기르-보다가야-바라나시-쿠쉬나가르-룸비니-사라와스티-곤다-아그라-델리-방콕-서울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 방콕 초특급 호텔 1박(관광 없음), 국제선 왕복 항공(타이 항공 이용), 인도 전지역 디럭스 호텔 숙박,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캘커타 국립 박물관 관광-부처님 진신 사리 친견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 대학 관광
○ 마하보디 사원 관광
○ 갠지스강 보트유람 및 황금사원 관광
○ 부처님의 탄신지 룸비니 관광

인도 - 네팔 11일 상품가 2,190,000원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쿠쉬나가르-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방콕-서울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포함 사항 : 전일정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에어컨 디럭스 차량, 전일정 쓰루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인도 비자피 (55,000원), 네팔 비자피 (40,000원), 카메라피,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 라지가트, 인디아게이트, 대통령궁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불리는 타지마할, 아그라성 관광
○ 갠지스강 보트투어로 갠지스강 일출, 화장터, 황금사원,힌두인의 목욕의식 관광
○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인 날란다 유적지
○ 열반지에 세워진 보리수나무와 불교사원
○ 포카라 향발중식후 포카라 시내 관광 - 페와 호수, 데비폭포 등
○ 히말라야 일출 감상
○ 스와얌부나쓰 사원, 황궁광장, 보드나쓰 불교사원

중국 - 북경, 대동, 오대산, 태원 5일 상품가 : 599,000원

- 일 정 : 인천-북경(대동)-오대산-태원-북경-인천
- 출 발 일 :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중국 비자피 ,음료수, 기사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사가잉 6일 상품가 : 1,690,000원

- 일 정 : 인천-방콕- 양곤-바가-폼빠-바간-파간-마달레이-민군-만달레이-양곤-방콕-인천
- 출 발 일 : 수시 출발
- 포함 사항 : 디럭스 호텔 숙박및 식사, 디럭스 차량, 전일정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 불포함 사항 : 김포공항 출국세 (25,000원), 미얀마 비자피(30,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등 개인 비용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 투바드 투어 TUVRD TOUR. CO. LTD

서울 용산구 한남동 258번지 현대리버티하우스 102-4호
Tel : 02-797-7686~7 / Fax : 02-798-3877

URL : www.gagatour.com
E-mail : master@gagatour.com

8개국 3천개 燈 한자리 모인다

지구촌 등축제 2001 남산 한옥마을 23~28일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불교 전통등도 밝혀
내년 6월 다시 행사

어둠을 밝히는 등(燈)은 실용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부처님 앞에 불을 밝히는 등공양은 향, 꽃과 함께 중요 신행의례로 행해져 왔다. 우리 조상들은 등불을 켜면 부정한 기운과 잡귀가 물러난다고 믿어왔다. 혼례때 청홍색의 초롱을 드는 풍속도 이같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며, 오랜 옛날부터 모든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로 등을 밝혔다. 이처럼 등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왔으며, 재료와 모양 또한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23일~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 등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등축제 2001' 행사가 열린다.

전통 불교 등과 현대적 창작등을 꾸준히 연구 발표해 온 전통등연구회와 서울시 월드컵 추진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불의 생명력을 통해 세계의 어둠과 고통을 밝음으로 해소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멕시코, 세네갈 등 8개국의 3천여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깊은 가을, 한옥과 등이 어우러져 서울의 밤을 장엄하게 물 이번 행사는, 2002년에도 월드컵 경기 기간중인 6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목어등을 비롯한 불교의 전통등,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귀면등과 같은 우리 전통등과 창작등이 선보인다.



◇'지구촌 등축제 2001'은 불의 생명력을 통해 세계의 어둠과 고통을 밝음으로 해소하자는 의미가 크다. 사진은 전통 등 연구회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선보인 비천상등.

이밖에도 18m 길이의 용등을 비롯한 중국의 전통 등과 일본의 간토 마츠리 공연등(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머리위에 장식하여 밝히는 등), 세네갈의 양가죽 등,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별등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주마등(그림이 종이나 천을 바른 바깥쪽에 비치게 만든 등)과 함께하는 그림자놀이, 전통등잔 사용법 체험, 소망등 2002만들기 등 시민참여행사와 타악과 전통 무용이 어우러지는 타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중국 사천성 나한사의 오백나한당에 모셔진 무상공존자.

신라왕자 무상 스님 中 5백나한 반열에

신라 왕자 출신으로 염불선을 창도하여 정중종을 연 무상 스님(684~762)이 중국 오백 나한 가운데 455번째로 모셔진 사실이 밝혀졌다.

불교춘추사 발행인 최석환 씨는 최근 중국 선종사찰인 사천성 나한사와 운남성 공죽사 등의 오백 나한당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문화〉 10월호에 관련 자료를 실었다.

중국의 오백나한은, 마하가섭을 시작으로 인도 스님만을 모신 우리 나라 오백 나한과는 달리 석가모니부처님뿐만 아니라 청대의 제공선사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사들을 함께 모셔 중국화된 나한 신앙의 특징을 보여준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았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출신의 시인 빠블로 네루다(1904~1973)가 망명해서 이탈리아의 어느 섬에 머물렀을 때,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그에게 전해주는 한 순박한 우편배달부와 나눈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우편배달부는 그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 눈을 떠간다. 그는 시인에게서 "'비가 온다'를 '하늘이 운다'로 표현하는 것이 곧 시의 원리인 메타포(은유)이다" 등을 배우면서 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네루다의 시 한 편이 소개된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시가 날 찾아왔다.
난 그게 어디서인지 모른다
그때가 겨울이었는지
그게 강가였는지
언제 어떻게 인지 난 모른다
그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다
내가 헤매고 다니던 길거리에서
밤의 한 자락에서
뜻하지 않은 타인에게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고독한 길에서
그곳에서, 나의 마음이 움직였다.

네루다 '시가 날 찾아왔다'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비록 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서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이 살짝 움직이면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시심(詩心)이 되어 시의 씨앗을 길러간다.

한편 '시가 날 찾아왔다'는 구절은 '마음이 날 찾아왔다'라고도 들린다.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순박한 마음이 내게도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여준 소박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물질문명이 너무 번성하여 인심이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옛날 고대중국의 요(堯)임금은 순(舜)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이기심은 날로 커져가고 도덕심은 날로 작아진다.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려서 서로 균형 있게 하라.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기심(人心)이 문제인 것 같다. 욕심은 우리 눈을 가려 마음을 흐리게 한다. 좁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과 신뢰를 나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도심(道心)을 키울 수 있을까? 역시 큰 스승들(佛祖)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도심'을 키우려면 '인심'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 집중(三昧)을 통해 내 마음이 점처럼 작아질 때(點心), 큰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장자(莊子)의 말처럼, 빈방이라야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虛室生白)이다. 내가 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비우고 기다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문학평론가



◇붉은 단풍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송광사의 부도전.

사진속 송광사의 사계

전제우 개인전, 11월말까지 송광사서

사진가 전제우씨가 '송광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개인전을 14일부터 11월말까지 송광사에서 갖는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및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전 등에서 작품을 선보여 온 전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카메라에 담은 송광사의 아름다운 사계(四季)와 그 속에서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사당(下舍堂) 처마에 지팡이를 짚고 앉은 방장스님의 여여한 모습도 엿볼 수 있고, 붉은 단풍사이에 선 부도전의 운치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관광차 찾은 사찰에서 놓치기 쉬운 후원의 여유로운 풍경들과 송광사 산내 암자로 가는 고즈넉한 산길도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061)755-0107 이은자 기자

'용주봉 진신사리탑' 남한 첫 공개

KBS 역사스페셜 '묘향산 보현사' 편

북한 묘향산 보현사의 수장고에 보관된 불교유물 5천여점이 13일 TV 화면을 통해서 공개됐다. KBS가 기획한 역사스페셜 '묘향산 보현사' 편에서 공개된 보현사의 불교유물은 국보급 보물인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비롯해 청동리 다라니 석당에서 나온 청동탑, 고려불상, 팔만대장경 인쇄본 전질 6,780권 등 규모와 내용면에서 하나의 작은 박물관을 이룬다.

특히 분단 50년만에 넘한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던 것을 임진왜란 때 전세가 악화되면서 일본군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사명대사가 금강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부를 보현사에 보관한 것이다. 또 팔만대장경 인쇄본은 1937년 일제시대에 보현사 스님들이 해인사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좋았다. 이같은 사실은 20여년간 보현사를 연구해 온 북한 불교학자 김영숙씨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씨는 "보현사는 단순한 사찰이라기보다는 금강산에 있던 유점사 등 폐사지들의 유물 유적이 전시된 북한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보현사를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서 김영숙씨가 신재국 KBS PD에게 탑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소식

'문화의 날' 거리행사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이 문화예술 마당으로 변한다.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오후 2시 문화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며 문화예술계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이어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 대학로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클래식과 팝 음악 연주, 대중가수 공연, 널뛰기, 뮤지컬, 마임, 창작무용, 민요, 어린이 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념공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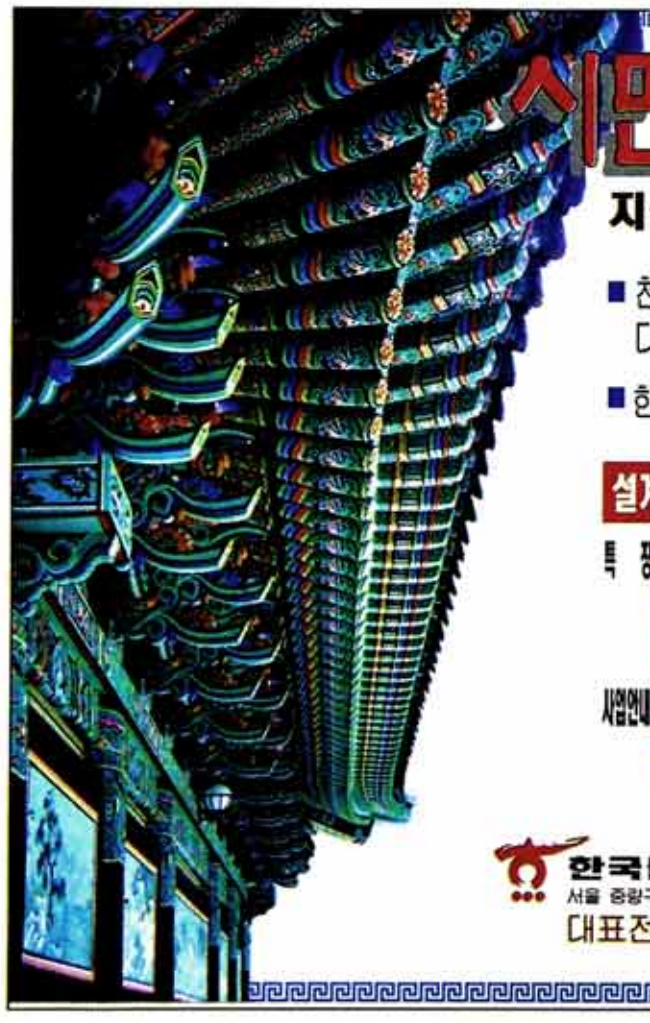
목동 파리공원에서는 오후 1시 청·장년층을 위한 올드팝과 포크송 공연이 열리고, 건국대 정문 앞에서는 하드코어, 펑크와 힙합의 무대가 꾸며진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오후 3시 마임 무용 재즈로 짜여진 지하철 예술무대가 시민을 만나고, 이날 낮 임시 '스테이지 카'가 시내를 누비며 곳곳에서 '깜짝 문화이벤트'를 갖는다.

창작찬불가 20일 마감

조계종총무원이 실시하는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작품접수가 20일 마감된다.

공모작품은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미발표 창작찬불가여야 하며,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1인 2곡만 응모가능하며, 응모작품은 가사가 적힌 멜로디 악보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거나,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배부받으면 된다. 대상작에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02)739-1830



시멘트 법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에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불교의 시공은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
- 가격이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사업안내
- 고건축사업부: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닷집, 16나한, 500나한.
- 무역부: 옥불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0-29
대표전화:02)494-4890-1

평화위한 종교간 책읽기

'종교간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종교간의 벽이 오히려 두터워진 때문일까? 여러 종교의 수행자와 성직자들이 타종교의 경전이나 저술을 읽고, 그 감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 그 첫 번째로 최근 2년간 〈장자 산책〉, 〈대학 중용 읽기〉, 〈금강경 읽기〉 등을 펴낸 이현주(57) 목사의 글을 싣는다.

편협된 '나' 깨부수는 망치



이현주 목사가 읽은 '금강경'

〈금강경〉은 눈부시게 빛나는 금강석 망치다. 모든 허상(虛像)을 두드려 부숨으로써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잡히지 않는 실상을 드러낸다. 이 망치에 맞으면 깨어지지 않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지면, 한편 당황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쾌하다. 내가 무엇 무엇인줄로 알았는데 그 '앎'이 깨어질 때에 당황스러우면서 통쾌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에 입문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다가 좋은 선지식을 만나 차츰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 어느새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이 물로 보이지 않는다. 산이 산 아닌 것들의 쌓임이고, 물이 물 아닌 것들의 모임임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산은 산 아님이요, 물은 물 아님이라고 말한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모두 그것들의 '비어있음' 즉 공(空)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앎'이 어느새 '암(癌)'으로 바뀌어 사람을 망쳐 놓는다. "제법이 공이라, 너와 내가 어찌 따로 있으리오"라고 떠들어대면서 위아래 없이 함부로 처신하는가 하면 무위도식하는 삶을 오히려 자랑스레 여긴다. 이런 사람을 두고 공변(空邊)에 빠졌다고 말한다.

나누지 못하는 이들에 '空'의 평등 가르침 제시

〈금강경〉은 내 생각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가르침 같다. 적어도 산이 산 아님이요, 물이 물 아님을 알았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른 사람에게 그 '앎'이 '암'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깨어 부수는 망치가 바로 〈금강경〉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 경전은 처음부터 수보리라는 장로로 대표되는 대비구들을 상대로 베풀어진 가르침임을 밝혔다. 현재 많은 칠보로 보시를 하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란 말이다. 아직 산이 산 아님을 모르고 물이 물 아님을 보지 못한 중생들,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미처 배우지 못한 자들, 오직 저와 제 가족(나라, 민족, 주의, 종교…)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밖에 모르는 자들은 〈금강경〉을 읽을 자격이 없다(읽어도 그 뜻을 이해 못할 것이다).

독립하여 존재하는 '나'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이 금강 망치에 깨어지는 모든 허상의 우두머리요, 바탕이다. 이것 하나 깨어지면 문득 확연무성(廓然無聖)의 불지(佛地)가 눈앞에 전개되거니와, 그것을 보는 나도 없고 여기까지가 불지라는 경계 또한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건 온통 없음 뿐이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탤 것인가? 〈금강경〉이 〈금강경〉까지 두드려 부셨거늘, 망치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휘두른 자 또한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아직 '나'는 〈금강경〉을 더 읽어야 한다. 그것을 읽으면서 깨어지는 '나'를 통쾌한 아픔으로 느끼는 행복에 당분간 젖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진데, 무엇을 조바심하여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기계도 불성 있어요"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 모리 마사히로 지음



로봇공학이라는 창을 통하여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로봇에게 배우는 불교>(경서원)가 우리말로 옮겨져 나왔다. 지은이는 일본 로봇 공학계의 권위자 모리 마사히로 씨. 그는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다소 허황된 주장이라고 판단할 독자들을 위해 그는 들머리에서 "기계적 고안물인 로봇이 무슨 불성을 있느냐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교도 로봇도 알지 못한다"고 말문을 막는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꼴찌로 입학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졸업할 정도로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수학과 물리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고야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그는 사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다소 엉뚱하게도 '손가락 연구'를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로봇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이 연구에서 몸의 균형 유지, 온도계, 계산기 등 손과 손가락의 역할과 기능이 무

인간처럼 로봇도 空의 발현

부처님이 조종·제어 역할

궁무진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우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나름의 철학을 얻는다. 새끼손가락의 경우, 그 가늚과 작음으로써 인간 전체를 살린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삶의 진리를 로봇 연구를 통해서 배웠다"고 고백한다. 불성도 마찬가지다. 그는 로봇의 불성 탐구를 통해 인간 불성을 찾는다.

"우리들은 모두 공(空)에 의해 발현된 색(色)과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머리털 한 올에 이르기까지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로봇은 어떠한가. 지은이는 로봇 또한 공(空)에 의해 만들어진 색(色)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로봇은 공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결국은 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란 얘기다. 부처님께서 돌멩이에도 불성이 있다고 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만든 로봇은, 부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설계 제작한 것이므로, 부처님이 로봇을 설계 제작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만든 인간이 부처님께서 부여한 의지에 의하여 같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기계를 조정하며 제어하고 있다고 해도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한 대로여서, 제어하는 편도 제어당하는 편도 불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계(로봇)를 작동할 때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은이의 생각은 반대다. 부처님이 불성을 움직이고 있다고.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일체 유심조 꿰뚫은 유식학 소의경전

'해심밀경' 서대원 역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서대원(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박사후 과정) 씨가 관역한 〈해심밀경〉(씨공사)은 바로 이러한 일체유심조를 말해 주는 가장 대표적 경전이다.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불교를 소승과 대승으로 나눈다면, 대승불교는 다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 중관이란 공(空)을 강조하는 학파로서,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에 의해 흩어지므로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반면에 유식이란 식(識)을 강조하는 학파로서, 오직 마음뿐이며 바깥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의 활동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해심밀경〉은 바로 이 유식학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소의 경전이다.

이 경은 모두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1품 설법의 장(서품)에서는 경을 설하게 된 장소와 배경을 말하고 있고, 2품 진리에 대하여(승의제상품)에서는 언어와 사변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한다. 3품 마음에 관하여(심의식상품)는 윤회의 주체인 아타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계의 존재양상을 설명하고, 4품 모든 부처님의 말씀(일체법상품)은 일체법을 변계소집상, 의타기상, 원성실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5품 세 가지 자성 없음(무자성상품)은 상·생·승의의 자성 없음을 말하고, 6품 수행 1 : 사마타와 비발사나(분별유기품)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인 사마타와 비발사나에 대해서, 7품 수행 2 : 십지와 십바라밀다(지바라밀다품)는 보살의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경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품 여래의 경지(여래성소작사품)는 여래법신의 모습과 화신의 여러 가지 원만한 공덕을 말한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는 다른 대승경전과는 달리 〈해심밀경〉은 법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지관수행의 단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경을 설하게 된 장소와 배경을 비롯해 언어와 사변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하고 보살의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 얻게 되는 경지 등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 경을 접하는 불자는 처음부터 겁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의 깊고 오묘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식공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삶의 숨결 묻어나는 산문집

'길에는 먼저 간 사람의…' 고은 지음



한곳에 있기를 마다하고 이곳 저곳을 떠도는 시인 고은. 여행자 고은의 삶이 녹아 있는 산문집 〈길에는 먼저 간 사람의 자취가 있다〉(마주한)가 나왔다.

고은 시인이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나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이국의 도시를 순례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읽고, 시를 쓰면서 건져 올린 세상 이야기 45편을 모아 묶은 책이다.

만주 벌판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꿈꾸고 한반도의 삶과 역사를 계승하는 백두대간을 여행하며 국토에의 감격을 적은 '국토에의 감격', 하버드에서 보내는 시인의 감회와 게리 스나이더와의 인연에 관한 글 '하버드 편지 그리고 스나이더', 미국 하버드대, 버클리대 객원교수를 마치고 귀국 길에 이집트와 그리스 그리고 터키 지역을 두 달간 기행하며 인류가 창조한 문화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한 기행문 '고대에의 떠돌이' 등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원대한 中문화 이해 디딤돌

'중국문화사' 김원중 지음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물질문명과 정신 문명의 총화로 한 사회집단을 이해하는 디딤돌이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신간 〈중국문화사〉(을류문화사)는 중국 최고의 문화유적이 피어난 하 상 주시대에서 5.4 신문화 운동과 그 이후까지 중국문화의 변천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중국문화사 해설서다. 지은이는 건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원중 교수.

책은 북방 호족 세력의 남하로 이민족과의 충돌과 융합이 본격화되는 위진 남북조시대에서부터 중화 의식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이 이뤄졌던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따른 문화사적 흐름과 특성을 서술한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제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불교수행요론	박 현	바 나 리
4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5	선림승보전	원 혐	장 경 각
6	보면 사라진다	김 열 권	자체의나무
7	이론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디지인하우스
8	소박한 밥상	웰렌 니어링	정신세계사
9	아, 일타 큰스님	김 현 준	효 림
10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달라이 라마	아 테 네

도서 안내:(02)737-0695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金河堂 光德 大禪師 行蹟碑 및 浮屠 建立 除幕式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행장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범어사 청봉당 정진
1955년 부산 범어사 몰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부의장 청담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부장)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순수월교 운동지 월간 「월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선랑 대본산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1992년~1999년 도서출판 한강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메아리 없는 골짜기 만법과 통하지 않는 자, 선관책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화오천 등 다수

찬불가 - 창작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미타찬아의 노래, 연꽃피는 날, 찬탄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유골, 임은 대양 위 대양, 촌자 인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반염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

스님, 스님의 우렁찬 사자후는
오늘도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소리 없는 소리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지만 스님께서 세연을 다하시고 적멸의 바다에 이르신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이 가을, 문중의 여러 스님들과 평소 스님을 흠모하고 따르던 불자들은 스님의 행적비와 부도를 건립하고 세세생생토록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불교계에 남기신 스님의 크나큰 족적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의 공부처럼 여겨질 때 불교를 대중의 것으로, 불성을 만인의 품으로 돌려주시며 중생을 일깨워주시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 대중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선지식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행적을 온 몸으로 보이셨으니, 출가하시고 혹독한 수행을 하시고, 종단이 어려웠을 때에는 선뜻 나서시어 힘겨워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끝없는 전법의 원력으로 충만했던 스님의 모습이 선연합니다. 스님께서 일생동안 밝혀놓으신 정진과 수도와 포교의 불빛은 오늘도 파랗게 타오르고 있으며, 만 중생의 가슴을 울리던 신념에 찬 사자후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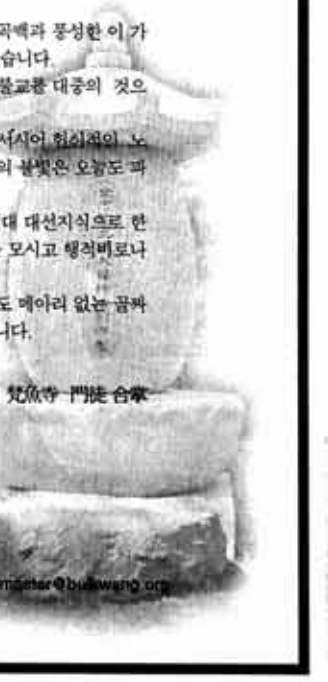
스님께서는 생전 모습 그대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시며 산골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법과 수행이 둘이 아님을 일깨우시며, 우리 시대 대선지식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일생을 보여주신 스님의 깊은 뜻은 세세생생 기려져야 할 귀감이기에 스님의 출가 본사인 선찰 대본산 범어사에 부도를 모시고 행적비로나마 새겨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여적정(如如寂靜)한 자리에서 본래 나투신 바 없이 그 모습을 나투시고 그 흔적을 남기시지 않으셨지만 스님의 우렁찬 사자후는 오늘도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소리 없는 소리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삼가 스님의 각령에 거듭 엎드려 절하오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禪利大本山 梵魚寺 門徒 合掌

· 법어: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 2001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선찰 대본산 범어사
· 주관: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 송파구 석촌동160-1 전화 02-413-6060 팩스 02-413-6817 http://www.bulkwang.org E-mail:webmaster@bulkwang.org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㉘

이제 여덟 번째 법회가 다시 보광명전에서 열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세간품(離世間品) 한 품만이 설해진다. 여기서는 보혜(普慧)보살의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한 물음에 10가지 씩 대답하니 모두 2,000가지 법문이 설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세간(離世間)이란 곧 처염상정(處染常淨)을 뜻하는 말이니 동사섭(同事攝)으로 중생과 함께 어울리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경계이다(如蓮華 不着水). 게송으로 보자.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 되고 편안한 것 즐기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菩薩如蓮華 慈根安隱莖 智慧爲衆蘂 戒品爲香潔) / 부처님 법의 광명을 놓아 그 연꽃 피게 하니 하염 있는 물(有爲水)이 묻지 못하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佛放法光明 令彼得開敷 不着有爲水 見者皆欣樂).

이어서 아홉번째 서다림(逝多林)법회에 참여하기로 한다. 먼저 사위국 기원정사의 장엄루각(莊嚴樓閣)에서 부처님께서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에 드신 후 설법을 시작하신다. 그 거룩한 모습을 경문으로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큰 자비로 몸이 되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獅子頻伸三昧)에 드시니,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 때에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별안간에 넓어져서 끝닿은 데가 없었다.

이렇게 근본법회를 마무리하고, 문수사리동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남쪽으로 만행의 길을 떠난다. 이 때 문수보살은 복성(福城) 동쪽 장엄당(莊嚴幢) 사라(紗羅) 숲에서 500명의 복성 사람들을 교화하고 계시면서, 그 중에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 대승의 불법을 잘 이해할 근기임을 알아보았다.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착한 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求善知識 勿生疲懈 見善知識 勿生厭足 於善知識 所有敎誨 皆應隨順 於善知識 善巧方便 勿見過失).

여기서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둘째, 도중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요 셋째, 선지식의 선교방편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등으로 격려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승락국(勝樂國)의 묘봉산(妙峯山)에서 수행하는 덕운(德雲)비구를 비롯하여 모두 54분의 선지식의 찾아가 법문을 배운다. 모든 선지식을 찾아가서는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습니까라 하였다.

찾아간 선지식은 모두 54분인데 그 중에 다양한 각 방면의 해탈문을 보여준다. 소개된 선지식으로는 보살, 비구, 비구니, 장자 등이며, 그 중에는 여성이 21분이나 되고, 외도인 바라문은 물론 수행자가 아닌 뱃사공유녀(遊女)에까지 법을 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화엄의 만행성불(萬行成佛)신앙은 그 밑바탕에 남녀평등과 종교평등 나아가 진속무애(眞俗無碍)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문화충돌로 빚어진 이번의 아프간사태로 뭇 생명이 희생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 · 문병성

욕망 줄이면 인류 앞날 밝다

불교와 과학 〈47〉 · 끝

과학은 인류에게 크나큰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과학의 덕택이었다. 땅덩어리 저쪽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될 것이라는 옛사람들의 믿음은 땅의 끝이 곧 우주의 끝이라는 아주 좁은 물리적 우주관일 뿐이었다. 이제 겨우, 우주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라는 것, 조금은 알게 되었다. 비행기로 열 시간만 가면 지구 저쪽 대륙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콩나물 사러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할 정도로 편한 세상이 되었다. 컴퓨터의 혁명은 말할 필요가 없겠고, 유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복제된 생명체가 원래 자연의 생명계를 대신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여 지금도 10억의 인구가 기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분명히 인간의 수명이 늘기는 했지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다. 인구가 60억을 넘어서면서 공급과 소비의 구조가 깨어져 가고 있다. 서구과학 이면이 숨겨진 권력의 논리는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을 강행하기에 이르러, 볼행의 역사는 악순환으로 빠지고 만다.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환경위기는 단적으로 말해서 지나온 과학기술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컴퓨터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자아의 상실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의 안전성 파괴문제는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유전자 공학의 발전이 과연 진정한 인류의 진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큰 불씨를 안고 있다.

진보란 무엇인가

기술은 행복 보장 못해
만물 더불어 사는 원리
깨닫는게 진정한 발전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행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이 있어 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의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질의 충족은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과학기술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역시 환상이다. 인간에게서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려고만 들 것이 아니라 욕망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는 추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인류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 이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이런 강령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끝없는 소비욕구를 채우려고 원래 제한되어 있는 공급구조를 영원히 늘릴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비와 욕망을 줄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인류문명의 시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불교의 인류적 과제가 크다. 과학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과학기술로부터 야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에는 불교 역시 과학과 어떤 방식이든지 같이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보인가? 앞으로 무작정 나가는 것이 진보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물리적 시간의 미래가 앞인가? 그 앞이라고 해야 150억 년이라는 우주적 시간의 바다에 비교하면 코 박고 죽을 접시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미래일 뿐이다. 아마도 모든 사람과, 모든 벌레들과 풀들, 모든 물과 땅과 하늘이 함께 맥동하고 같이 숨쉬고 더불어 움직이며 서로 얽혀 꿰어 있음을 안다면 미래의 진보는 벌써 진작에 내 마음 속에 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 바지 고쳐서 어머니 고쟁이 만들고, 어머니 고쟁이 뜯어서 오빠 팬티 만들고, 오빠 팬티 닳으면 꼭꼭 삶아서 부엌 행주로 쓰다가, 그것도 헐렁해지면 마루 닦는 걸레로 하다가, 그것도 조각되면 아궁이 불막이로 썼다가, 끝내는 아궁이 속의 불쏘시개가 되어 구들장을 데워 주니 우리 할머니 푹 주무시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 sangji ac kr

오늘로 '불교와 과학' 연재를 마칩니다. 지난 일년동안 '불교와 과학' 원고를 접하신 모든 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 가운데서도 주로 물리학, 생물학과 천문학을 제가 조금 아는 물교의 화엄학과 비교했습니다. 괜히 어렵기만 한 글을 내놓게 되어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과학이 갖는 한계라고 위안하지만, 사실 과학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불교공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부가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저의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테러 상처 치유책"

지구촌 불교 / 리처드 기어 '화해론'

"테러의 상처는 사랑과 용서로 치료해야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스타 리처드 기어(Richard Gere, 영화배우)가 9일 티베트 스님의 수상록 출판기념회에서 언급한 이 말이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에비시뉴스(ABCNEWS)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할리우드의 최대 스타의 말이라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나왕 게이엑 린포체(Rinpoche Nawang Gehlek)의 〈선한 삶과 죽음(Good Life, Good Death)〉 출판기념회에서 기어는 "테러를 당한 우리(미국)는 테러의 희생자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회교도나 그 나라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좀더 넓은 안목으로 이번 사태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다음 "테러범이나 이들의 종교와 나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공생의 존재이자 내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랑과 용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처드 기어

또한 기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살필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과 테러범과의 인연의 고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우리(미국)'라는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포용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소중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 · 피해자 모두 공생" 역설

전쟁 상황 미국 내 찬반 대립

기어의 말을 인용, 보도한 에이비시뉴스는 "기어가 할리우드 영화인 중에서 가장 독실한 불자라는 점에서 그의 말이 십분 이해되지만, 미국 내에서 이슬람국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범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이비시뉴스는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이후 기어의 첫 공식적인 입장은 찬반론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비시뉴스는 "이미 할리우드가(街)에서는 기어의 말해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홀랜드 커터(Holland Cotter)는 '폭력의 그림자에 감춰진 아름다움(Beauty in the Shadow of Violence)'에서 기어의 말을 인용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뉴욕과 버클리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잇따랐다. 8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아프간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무정부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대부분인 시위군중들은 "폭격을 중지하라,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반전시위는 과거 베트남 전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도 9일 계속돼 300여명의 시위대가 대아프간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번뇌 물들지 않는 동사섭

만행성불신앙 남녀 · 종교 평등 가르쳐

지 못하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佛放法光明 令彼得開敷 不着有爲水 見者皆欣樂).

이어서 아홉번째 서다림(逝多林)법회에 참여하기로 한다. 먼저 사위국 기원정사의 장엄루각(莊嚴樓閣)에서 부처님께서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에 드신 후 설법을 시작하신다. 그 거룩한 모습을 경문으로 보자.

그 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함을 아시고, 큰 자비로 몸이 되고 큰 자비로 문이 되고 큰 자비로 머리가 되고 크게 자비한 법으로 방편을 삼아 허공에 충만하사 사자의 기운 뻗는 삼매(獅子頻伸三昧)에 드시니, 모든 세간이 모두 깨끗하게 장엄하여지고, 그 때에 이 크게 장엄한 누각이 별안간에 넓어져서 끝닿은 데가 없었다.

이렇게 근본법회를 마무리하고, 문수사리동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남쪽으로 만행의 길을 떠난다. 이 때 문수보살은 복성(福城) 동쪽 장엄당(莊嚴幢) 사라(紗羅) 숲에서 500명의 복성 사람들을 교화하고 계시면서, 그 중에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과거의 여러 부처님께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 대승의 불법을 잘 이해할 근기임을 알아보았다. 문수보살이 말하였다.

"착한 남자여,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求善知識 勿生疲懈 見善知識 勿生厭足 於善知識 所有敎誨 皆應隨順 於善知識 善巧方便 勿見過失).

여기서 온갖 지혜를 구족하는 첫째 인연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둘째, 도중에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요 셋째, 선지식의 선교방편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등으로 격려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승락국(勝樂國)의 묘봉산(妙峯山)에서 수행하는 덕운(德雲)비구를 비롯하여 모두 54분의 선지식의 찾아가 법문을 배운다. 모든 선지식을 찾아가서는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습니까라 하였다.

찾아간 선지식은 모두 54분인데 그 중에 다양한 각 방면의 해탈문을 보여준다. 소개된 선지식으로는 보살, 비구, 비구니, 장자 등이며, 그 중에는 여성이 21분이나 되고, 외도인 바라문은 물론 수행자가 아닌 뱃사공유녀(遊女)에까지 법을 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화엄의 만행성불(萬行成佛)신앙은 그 밑바탕에 남녀평등과 종교평등 나아가 진속무애(眞俗無碍)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문화충돌로 빚어진 이번의 아프간사태로 뭇 생명이 희생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특허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불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 루 막	남 · 여	130,000
	동 방	남 · 여	120,000
누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 루 막	남 · 여	160,000
	방 한 복	남 · 여	130,000
	보 온 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

우리 마음이 곧 우주의 근본

돈을 잘 벌수 있는 비결

문 스님,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매달 한정된 봉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보니 여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모든 게 생명이 있듯이 돈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탁자 같은 것도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있지 않죠. 움죽거리고 돌아간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돈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니까 언제나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면서 자기 근본자리에 맡겨 놓으면 돈도 슬그머니 나를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데서 부부가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즉 사람도 따뜻하게 고여주는 데로 이끌리게 돼 있거든요. 겉으로는 부부라고 하면서 말은 "어휴, 저거…," 이러고, 또 뭐라고 그럴까봐 하지 못할 말이 생긴다면 그건 벌써 참다운 부부가 못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다른 어떠한 문제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짐승 하나를 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 짐승이 돼 줘야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거든요. 소의 속에는 소가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뱀 속에는 뱀이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합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된단 말입니다. 돈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철새처럼 다녀도 부자입니다. 난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를 털어줘야 돼요. 주고 다녀야지 글쎄, 금방 주고 금방 주고 이러니까 들어오죠. 내가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쌓아 봐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버리죠.

그러니 질문하신 분이 이 도리만 알면 돈이 저절로 들어와요. 누가 마음에서 돈 주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 돈 생기니 좋지, 가정 화목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사는 맛이라는 게 뭡니까? 아, 이게 세상 살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을 잔뜩 쌓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왜? 전부 내 돈이니까요. 그걸 왜 무겁게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주만물 어떻게 탄생했나요

문 과거로부터 여러 성현들도 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도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기로는 전생에서부터 윤회가 되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또 다음 세상에도 윤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태초에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 생명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의문이 생기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를 찾아보지만, 기독교의 성경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다른 곳에서 말하는 내용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들뿐입니다. 궁금증이 더해만 갑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떨쳐버리고 마음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겼는가, 한마음은 어떻게 있어 왔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거대하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 때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콩깍지를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 가지고는 까려고 해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까져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애쓰다가 결국 우리는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으면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듯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 생각이 나걸랑은 맡겨놓고, 저 생각이 나걸랑은 또 맡겨놔요. 울고 싶어도 그 자리를 붙들고 울고, 감사해도 그 자리를 붙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년 계속해 봐요. 진짜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모두 겉껍데기로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났을 때 남이 나의 불을 껴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들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지 누가 대신해서 불 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꿈에 보여주고 생시에도 보여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아요?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라.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보자고요.

도(道)란 무엇입니까

문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 세계라든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고 도를 깨친다든지 도를 이룬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도란 무엇이며, 도인이란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도라는 것은 전체가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체(公體) 공식(共食)하는 도리 속에서 참나에 나투며 화하면서 바뀌지고 돌아가는 자체를 확신하고 그게 물리가 터지면 무심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라는 것은 무엇을 규정지어서 나다 너다 하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부처도 부처라는 게 없는 것이 부처이지 "나는 깨달아서 부처다."한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잘한다 권세가 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런 건 좀 빼버리고 겸손하라고 해서 삼 배를 올려라, 삼천 배를 올려라 하고 스님들이 절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고깃덩어리가 절 받으려고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 마음이 숙여지고 자기를 자기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실이라면 진짜로 익어서 중생을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 남아서 다시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련의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찾아먹을 줄 알고 남을 찾아 줄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들을 자기 벗으로 알고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안다면, 한 참나에 빛보다 더 빨리,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어느 혹성이라도 탐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심 도리를 아는 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가 터져서 자기를 깨달아 둘이 아니게,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면, 전력은 다 똑같은데 전구는 여러 가지가 따로 있는 그 도리를 알면 그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자유도인이죠.

그러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돌로 보지 마시고 마음의 도리를 하루바삐 체득하셔서, 꼭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편안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선한 도리를 짓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부드러운 말만하게 되고 부드러운 행만 하게 되니까 홀연히 밝게 참 자기의 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맛을 본다면, 한생각이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자식의 뿌리를 도와줄 수 있고, 위로는 조상들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햇빛을 쬘 수도 있고, 또 부처님과 내가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공부한 분들은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 조사들하고도 둘이 아니요, 일체 스님들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 모든 벌레라 할지라도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도리를 아신다면 자유인으로서 여여하다고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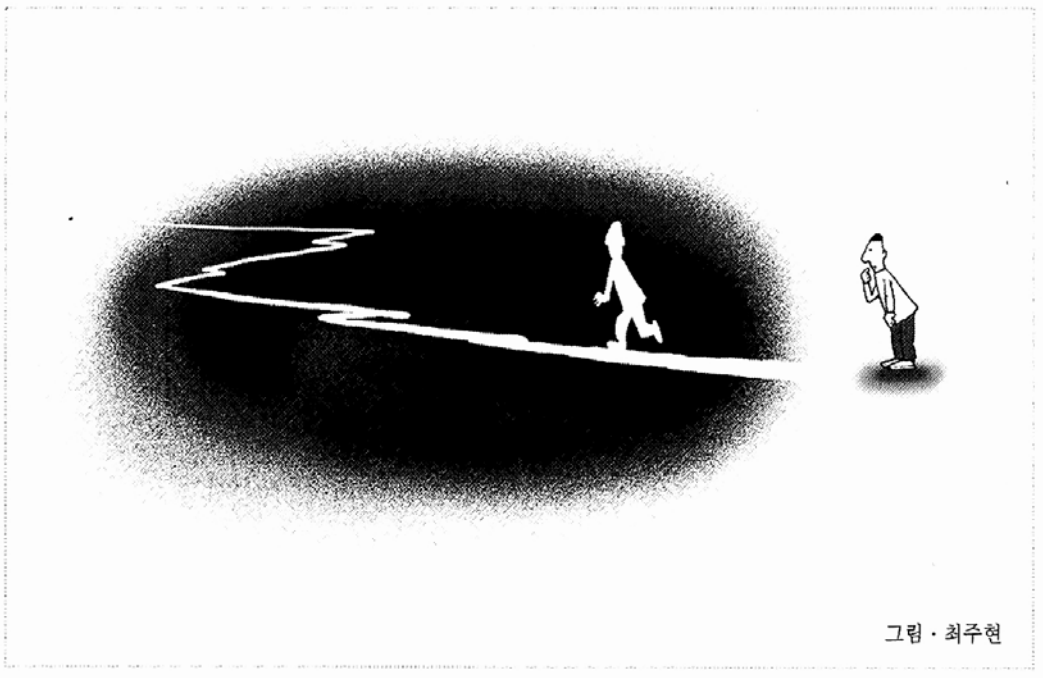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간에서 선수행할 수 있는지

문 제가 알기로는 선(禪)이라는 건 스님들이 선방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생활선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세간에 살면서 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주 진리가 더불어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잘 땐 자고 움직일 땐 움죽거리면서 찰나찰나 돌아가죠? 또 우리 살아나가는 현재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생활이죠? 그 생활이 조금도 빈틈없이 행선(行禪)입니다.

생활 자체가 행선이자 진리요, 과학, 천체물리학도 됩니다. 이거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라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있는 거고, 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마음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할 수밖에요.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어떤 거를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했다고

> 돈도 생명이 있으니
> 베풀면 다시 돌아와
> 쌓아 놓기만 하면
> 돈이 도깨비가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모두가 공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모두 몰록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하면서도 똥 누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참선이며 행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진리라는 거는 없고 참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울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또 고달프든지 즐겁든지 그 모두가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 나한테서 나오는 걸 알고 나한테 되놓고 맡겨놓는다면 모든 게 유유하게 걸림 없이 돌아가게 되자 화목해지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갈등이며 스트레스며 다 없어지고 업장이 다 녹아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니 와선이며 참선이며, 생활선법인 것입니다.

그대로 참선이고 진리이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라는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겠습니까? 지금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을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기름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마음으로 나를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나라는 이 껍데기를 믿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 20면으로 계속

> 전구 달라도 전력 하나이듯
> 상대와 둘아닌 도리 알면
>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인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화두 삼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는 거죽을 믿지 말고 너 자신부터 알면 나의 속도 알 수 있다고요. 생활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뜰앞의 잣나무'라 한 뜻은

문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예전에는 그렇게 물으면 '할!'하기도 하고 '부처가 어떻습니까?'하면 주장자로다 골통을 치고 또는 '부처님 법은 어떤 겁니까?'하면 손가락 하나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방편상 내리신 말들인데 그것이 전부 생사를 갈라내는,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함이 없는 말씀을 모두 해 놓으셨거든요. 똥둑간에 가다가 부처가 무어냐고 물으면 '똥 친 막대기다'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뭐 말할 수 없이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였을까? 한마디 이르지 않는다고 죽였을까?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나 또 조주가 왜 머리 위에다 신발을 얹어 가지고 나갔을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그건 정말 부처 아닌 부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체 보살이 돼서 허공에 꽉 찰 겁니다, 아마. 그런데 왜 잣나무만 부처겠습니까? 전체 어느 거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그네들의 스승이고 모두가 서로 서로의 스승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몰라서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죠.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 군데 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아라.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모든 거를 감사하게 놓고 또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부 놔라. 일거수일투족 다 놔라."이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초는 닳습니다. 녹습니다. 그 녹는다는 그것이 바로 업 덩어리인 이 몸체 속에 들은 모든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태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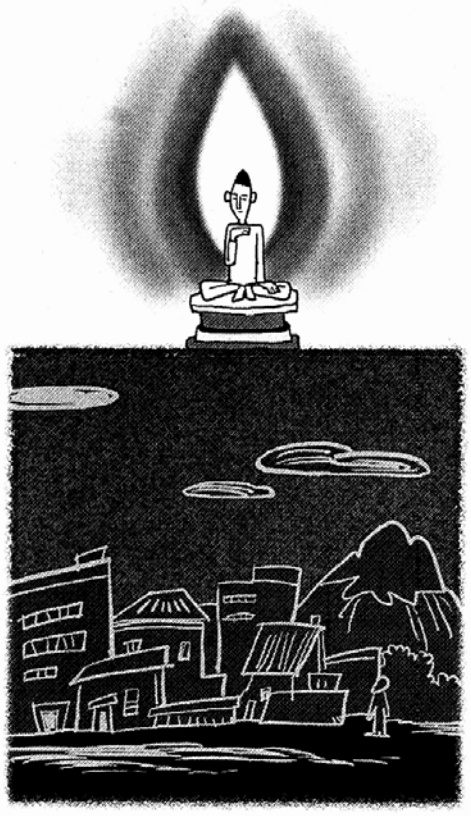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 이건 절대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을 때는 진짜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다 녹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 바로 깨우친 겁니다. 초도 없고 불도 없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두 난 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그대로 그 공이 화두니라.'한 겁니다. 내 육신 나온 것이 화두이자 공이고 공이자 화두니까, 지금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으로 돌아오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공하였으니, 공에서 나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그대로 공에다 일임해서 맡겨 놔라.'고 한 겁니다. 일일이 그것을 말기다 보면 진실로 내 참나를 발견하고 찾는 데에 아주 지름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 군데 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이라는 것은 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내가 하는 거, 악을 썼다든가 화를 냈다든가 하는 것도, 내가 불자로서 이렇게 악을 쓰고 화를 내서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화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한 겁니다. 돌아가는 전체가 마음의 주인이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나오지 않고 자기 나오기 이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마음의 주인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하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즉 실상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깐 어디에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놔 버린다면, 그러면서 그대로 여여하게 생활을 하면서 돌아간다면 화두니 공안이니 하는 것이 따로이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 나의 실상을 말한 것임을 안다면 그대로 간단하게, 누구 말마따나 펄럭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기 때문이지,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라면 미륵불이라고 따로 부를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젊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늙을 거와 전자에 젊었던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내가 늙어서 아무개, 젊었을 때 아무개하고 따로 따로 이름을 불러야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식하고 있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공체로써 공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나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못했으면 '미륵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서 또 다시 나올 때, 만약 여기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탄생을 해서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그런데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기 때문이지,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라면 미륵불이라고 따로 부를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젊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늙을 거와 전자에 젊었던 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내가 늙어서 아무개, 젊었을 때 아무개하고 따로 따로 이름을 불러야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가고 공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공식하고 있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공체로써 공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나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거고, 부처님이 정말 가르친 뜻은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따지는 건 여러분이 따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온다 뭐 어쩐다 하는 것도 그건 그분의 생각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다 할지라도 역력하게 모레는 모레고 글피는 글피입니다. 내년은 내년이고 후년은 후년이에요. 그런 것도 여여하게 그대로 쓰되, 자기가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 착을 두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걸 깨우쳐 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본다면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인데 인간사는 데는 질서라든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되고…, 이런 상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되 그거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송장이 합니까, 내 육신이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집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으로써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들이 지금 우리 몸 속에 세포 하나 하나에 전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한데 합친, 공생 공심이 한데 합쳐서 공용을 하고 공체로써 전부 자기 분야를 맡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있기 때문에 나라는 큰 체(體)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생명들이 분야를 맡아 가지고 한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룹니까? 너무 공장이 많은데. 한두 군데를 맡아줘야, 여러 군데를 다 맡아줘야 세계적으로도 돌아가는 겁니다. 국내에도 국방부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다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은 학생, 또는 국민이면 국민, 경제는 경제 기획원 같은 데를 다 맡아줘야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바로 우리 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속에도 공장이 많습니다. 심장에서 잘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까? 심장에서 잘해서 대장이 사는 것도 아니고 대장이 잘해서 소장이 사는 것도 아니고, 소장이 잘해서 이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콩팥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간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아니 되기 때문에 다 조목조목이 분야를 맡아서 소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진리가 바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오온의 뜻이, 우리가 삼각원형을 이룬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삼세심이 일심으로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는 겁니다.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니까 오온 속에 칠보가 가득 차 있느니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만 원 천 원 백 원 할 때, 만 원이 진리라면 그 만 원 속에 전부 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 원을 쓰려면 백 원을 쓰고 천 원을 쓰려면 천 원을 쓰고 이천 원을 쓰려면 이천 원, 만 원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참나를 홀연히 깨달으면 스스로 지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과거불 · 현재불 · 미래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바로 삼세제불

예수 재림후 미륵불 오는지…

문 친구 중에 타종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미륵불이 이후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대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뿐이지 무슨 앞으로 미륵불이 나타난다느니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 미륵불이라는 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미륵불이라면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 차차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륵불이 오신다' '미륵불이 나오신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깨달으면 미륵불이 지금 현재의 불(佛)과 미래의 불(佛)과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미륵불입니다. 앞으로 깨달으면 '불'이고 지금 현재에 깨닫지 못했으면 '미륵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몸을 벗고서 또 다시 나올 때, 만약 여기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탄생을 해서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이 미륵불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태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 일급호텔(건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 운젠(1박 운젠지옥,무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

佛法의 진리를 향한 믿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大韓佛教眞覺宗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1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 印 覺 海
統理院長 孝 庵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http://www.jingak.or.kr

▶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 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 泓 坡
副 院 長 金 智 攝

總務部長 黃法明 敎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朴松月 副 議 長 金性哲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敎院長 鄭法性
布敎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봉 현대불교 창간 7주년 축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자리이타의 대승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종 령 록 정
통리원장 혜 암

http://www.chongji.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大韓佛教 三論宗

현대불교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본 종단 제 2세 종정 석파 전석봉 대화상의
추대식에 참석 축하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전석봉
총무원장 석혜승
중앙종회의장 석혜광
삼 론 종 종도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이 사 장 정 일
상무이사 선 근
임원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동진 상월
정덕 상원 자민 성우
감사 대허 법운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우 110-240)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 혜 성
주 지 : 광 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FAX : 02)993-3164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지 도완

대중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033) 374-9177
FAX 033) 374-9176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 덕 원

이사장 서성운

인덕노인복지회관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타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회관
은평구립도서관 · 인덕치매단기센터 · 노인전문요양호암마을
노숙자 희망의집 · 청소년 응암 공부방 · 인덕어린이집
수색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 불광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전화 : 02) 385-8205~6 팩스 : 02) 385-8207

은평불교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 (삼천사주지)
부회장 한자용 (수국사주지) 부회장 김혜진 (시연사주지)
부회장 이법성 (관음사주지) 부회장 김혜장 (송천사주지)
총 무 김도광 (불광한의원원장) 경선스님(보문사)
은평경찰서 경승실장-서성운 , 서부경찰서 경승실장-이법성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27-1
전화 : 02) 353-3004 , 359-7766

감사의 말씀

대웅보전 낙성 및 대법회
삼존불 / 탱화 봉안 점안식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원력과 지혜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남시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약사사에서는
각고의 노력끝에 3년여의 대웅보전 중창불사를 이룩하는 낙성을
평소 진리에 목마르신 분과 신심이 깊으신 불자님을 모시고
2001년 10월1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남한산성 약사사에서
일생일대의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앙상담 : 매일 오전 8시~10시, 오후 1시~3시
- 찾아오시는길 : 700, 700-1번 종점 916, 36, 66번 종점 30, 30-1, 55번 종점 성남남한산성 관리공단 입구에서 도보로(차운행) 20분 거리
- 문의전화 : 031)734-3205

남한산성 영험도량 약사사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 주는

나의행자시절

논둑 길이었다.
스님 한 분이 걸어가고 있었다. 가을걷이를 끝낸 늦가을, 텅 빈 들녘을 배경으로바람에 휘날리는 장삼 자락과 어깨에 올러멘 걸망 위로 넘치던 평화.
그렇다. 그건 완벽한 평화의 모습 그것이었다.
나는 그때 아무런 망설임도, 걸림도 없이 결심했다.
'승려가 되어야겠다'고

-혜남스님의 행자시절 중에서 -

박원자 엮음
신국판/275쪽/값8,000원
다할미디어

☎ 02-528-023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 사람빌딩 805호



극락세계 가고 싶어라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삶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고 귀의할 수 있는 아미타불의 대구제력이 절실히 요청 되는 시대입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라'는 대승불교사상의 꽃인 정토신앙을 세친보살이 '왕생론'이라는 게송으로 쓴 것을 중국의 담란대사께서 정토왕생을 길을 밝히기 위해 쓴것입니다. 오랫동안 한문원전속에만 있는 이 왕생론을 정태혁 교수님이 현대인들이 읽고, 삶의 원전이 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 할 수 있도록 강해 하신것입니다.

정태혁 강해
신국판/247쪽/값9,500원
도서출판 동산법문

☎ 02-732-1206-8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운주사 천불 천탑의 비밀

세계에서 하나뿐인 거대한 와불이 있는 운주사!

남도의 화순, 동양의 아크로폴리스라고도 불리는 세계 유일의 천불 천탑의 성지 운주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바 없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운주사! 역사의 기록으로부터 단절된 그리하여 네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확증을 얻지 못한 운주사의 유일한 문헌상의 가장 오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 권 40에 "천불산에 있다. 절의 좌우 산마루에 석불, 석탑이 각 일 천씩 있고 석실이 있는데 이석불(二石佛)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혹시 석불 조감 안에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 하여 해체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째서 운주사는 창건 연대나 창건의 주체세력을 역사의 무안길에 영원히 숨겨버려야만 했을까?
이제 이 책을 통해 그 신비스런 역사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강형구 지음
신국판/368쪽/값10,000원
띠앗

☎ (02)499-4486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316-74



금 강 경

현대인을 위한 법의 향기

「금강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주의, 세계의, 중생들의, 인간들의 원초적인 '어떤 근본 자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은 고대이래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의 기본적인물음이기도 하였고, 현재 우리들의 의문이기도 하다. 이 경전은 이러한 질문들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많은 생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심오한 것이지만, 독자들은 「금강경」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명상을 하다보면 심오하고 원초적인 '어떤 자리의 실체'에 대해 체험할 수 있다.

편저자 유왕진
신국변형판/147쪽/값 8,000원
띠앗

☎ (02)499-4486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316-74



한국역대고승(高僧)의 다시(茶詩)

- 고승문집 어록 등 조사 26명 한국다담 선맥 정립

우리 나라 역대 고승들의 다시를 모아 엮어 만든 책. 역자인 무산스님은 선 생활외의 큰이 다도이며, 그 핵심이 '다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것을 다담선'이라고 말한다. 이 다담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중국 송나라 때의 백운수단(1024-1072)선사.
그가 차를 마시면서 화경청적(和敬淸寂)과 명선(茗禪)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다담선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다담선의 묘미를 알게 하는 역대 조사들이 남긴 다시를 찾아내고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우리 나라 다담선의 선맥을 처음으로 정리하여 한국 다담선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한데 큰 의의가 있는 책이다.

무산지음
신국판 양장본/271쪽/15,000원
명상출판사

☎ 02-733-4277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영가천도와 49재

불교에서 영가(죽은 이)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천도하고 49재를 지내는 이유는 그가 속히 고통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들은 영가를 위하여 부처님께 축원하고 또 보시(영가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를 통하여 그의 명복을 기원하는 것은 망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파계사 율주 종진스님 감수
박연진 글
4×6판/215쪽/값 6,000원
민족사

☎ 02-732-2403-4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 창간 7주년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 02)737-8881



불교수행요론

계율, 기도, 염불, 간경, 진언, 참선수행 등을 하나의 바탕에서 꿰어 실천적 수행의 방도를 제시한다.
각각의 수행마다 각 수행의 의의, 방법, 효능 및 수행자의 자세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수행길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불교 및 일반수행자들에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박현 지음
신국변형판/269쪽/ 값 10,000원
바나리 출판사

☎ 02-358-5634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75-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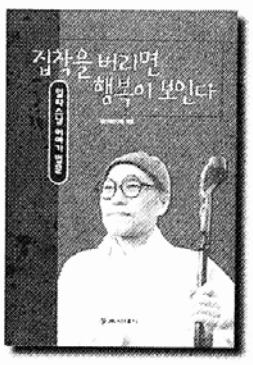
금강경 역해

금강경 산스끄리뜨 원전 분성 및 주해

부처님께서 고구정녕히 말씀하신 메시지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금강경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문본인 구마라집 역본이 가장 널리 읽혀왔는지라 지금까지는 구마라집의 안목에 갇혀 금강경을 접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산스끄리뜨 원문, 구마라집 역본, 현장 역본, 번역, 대역, 주해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산스끄리뜨 술어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마라집 역본과 현장 역본을 산스끄리뜨 원전과 비교해 가면서 대역하고, 당대의 시대상황에 이르기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놓았다.

각묵스님 역해
신국판 양장본/473쪽/값18,000원
불광 출판사

☎ 02-420-3200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발심수행장>, 야운스님의 <자경문>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
신국판/344쪽/값 10,000원
불교시대사

☎ 02-730-25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풍경소리

이 책은 복잡한 이 시대에 보내는 부처님의 메시지이자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띄우는 침묵과 자기로의 여행이다.
부처님 불교 설화나 경전의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깔끔한 이야기나 시로 재구성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며 한 편 한 편의 글은 짧고 간결한 듯하지만 선문답과 같이 삶의 본질적 물음과 해답이 담겨 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병례
신국판/올컬러 136쪽/값 7,000원
(주)샘터

☎ 02-763-8965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15 샘터빌딩 3층



나의작은별이야기

이 책은 존재와 사랑에 대한 동양적 관점을 누구나 알기 쉽게 동화의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쓰고 있으며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짧은 글이지만 담긴 내용은 매우 깊고 넓어서 존재의 이유, 물질과 마음의 상관 관계, 우주의 탄생,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답을 담아내고 있다.

이안 글 그림
신국판 양장본/200쪽/값8,000원
씨앗을뿌리는사람

☎ 02-511-349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1-9 인성빌딩 2층



알몸이야기

마음의 평온이 어디서 오는가? 황금을 모으기 위해 뭇 대중들은 알몸의 순수무구 상태를 곧 망각하고 우매한 방랑을 하지는 않는가?
알몸시집을 통해 중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
이 시집을 통해 설산스님의 '알몸철학'을 만나십시오

설산스님 지음
신국판/176쪽/값6,000원
백만문화사

☎ 02-325-5176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22-2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종 30권 완역. 과거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정수 1,700 공안이 실려있는 선종 최고의 고전, 전등록!
견강 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이를 재현하듯 생생히 살아숨쉬도록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대원 문재현 역/신국판/462쪽/각권 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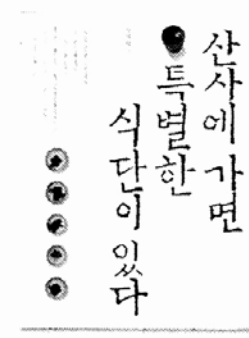
영원한 현실

제대로 된 선서를 읽고 싶으십니까?
<바로보인 전등록>을 번역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문집,
영원한 현실에서 통달한 선지식의 법에 대한 안목과 살활자재한 법문을 만나십시오.

영원한현실/대원 문재현 법문집/신국판/396쪽/값 15,000원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46 정윤빌딩 401호 ☎ 02-597-2460

몸과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이끄는 길라잡이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세채 지음(MBC '피자의 아침' 선식 특강 출연)
신국판 변형 / 238쪽 / 값 14,000원

탁낫한 스님의 귀향(歸鄕)



탁낫한 지음 / 오강남 옮김
양장본 / 224쪽 / 값 12,000원

☎ 02-733-1757
서울 종로구 통인동 31-4 우남빌딩 2층
무색

초기불교개척사



초기경전 바알리-니까야에서 발견한 붓다와 초기 대중들의 순교적 개척사. 아니 순교를 넘어선 고요한 삼보헌신의 Buddhist India 개척사

김재영 지음 신국판 양장본/571쪽/값 22,000원

광덕스님 시봉일기- 내일이면 늦으리



불교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일까?
스승과 제자사이에 벌어지는 백 여덟 가지의 일화를 통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불교의 지극한 사제관계를 재조명해 본다.

송암지원 글/신국판 양장본/387쪽/값 10,000원

도피안사 ☎ 031-676-87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수선화에 관한 몇가지 기억

땅거미가 지는 시간, 건초를 모아 모깃불을 피웠다.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 아련한 고향같은 연기 내음이 퍼졌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도 전깃불을 켜지 않고 마루에서 혹은 건너편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건초 위에 얹어 놓은 젖은 풀 사이로 퍼지는 연기와 그 아래 발갛게 달구어진 불빛만 보인다.

대원 지음
신국판/229쪽/값6,500원
솔과학

☎ 02-876-4655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10 1110호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는 명상법, 위빠사나! 이 명상법을 차근차근 그리고 부지런히 연마하면, 사고와 관념과 굳어진 생각 따위에서 벗어나 아주 쉽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위빠사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명상이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위빠사나를 통해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편보다는 위빠사나를 통해 더 많이 깨달음을 얻었다"
- 오쇼 라즈니쉬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 손혜숙 옮김
신국판/262쪽/값8,000원
아름드리 미디어

☎ 02-3141-0221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20 공명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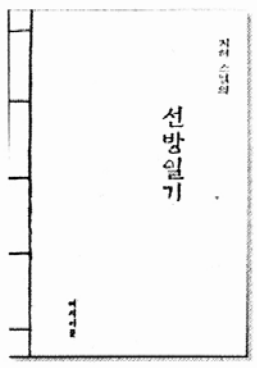


깨달음의 꽃1,2

이 두 권의 책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이 없었다면 어떠 했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한국 근대 비구니스님들의 삶에는 옛 조사들의 치열한 구도열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다.
이 책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비구니들을 역사의 현장에 당당히 드러낸 한국최초로 발굴한 근현대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이다.

하춘생 지음
신국판/296쪽/각권 8,000원
도서출판 여래

☎ 02-730-8976
서울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 201호



선방일기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세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하는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될 것이다.

지허 지음
4×6판/136쪽/값 5,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2-1521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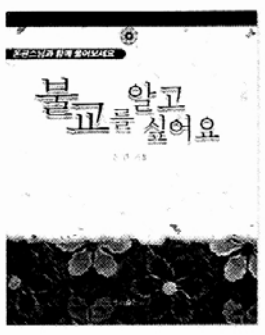
절알고보니 세상속에 있더라

이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에 갈 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엮었다.
절에서 만나는 돌 하나,건물 하나,
그림 하늘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엮었다.

귀로 듣고 얻는 것은
눈으로 보고 얻는 것보다 넓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얻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보다 깊지 못하다.

- 정련스님 추천사 중에서 -

성재도 글/사진
신국판/225쪽/값5,000원
날마다 좋은날 02)732-1521



불교를 알고 싶어요

BBS 대구불교방송의 신행상담 프로그램인 '열린불교, 지혜의샘'의 진행자 돈관 스님이 프로그램에 쏟아진 일반 불자들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묶었다.
경전이야기 · 불보살이야기 · 상징이야기 · 기도수행이야기 · 신행이야기로 나누어 불교 의식과 문화, 상식, 교리 등 불자라면 알아야 할 기초 지식 등 그야말로 불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돈관 지음
4×6 변형판/315쪽/값10,000원
우리출판사

☎ 02-313-5047
서울 서대문 충정로 3가1-38호

본 광고란에 소개된 책은 책방 여시아문의
특설 판매 코너에서
11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개점 7주년

클릭 한번으로 책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amun.com ☎ 02)732-1521





능가사자기

초기 선종이 주로 <능가경>의 심요를 선지로 하여 심인상전(心印相傳)한 종(宗)이었기에 그 선사들을 능가사라 칭하고, 그 선법을 능가선, 그리고 그 종을 능가종이라 칭한다.
<능가사자기>는 초기 선종 선사들의 어록과 전기 및 그 계승관계를 명시한 책으로 1세기 전 돈황에서 발견되어 초기 선종사의 실상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원문 및 우리말 번역과 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정각 저/박건주 역주
신국판 양장/256쪽/값10,000원
운주사

☎ 02-3672-7181-5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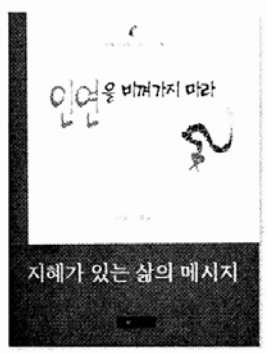
산하대지가 참빛이다

-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이 책은 과학을 통해 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있는 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와 과학, 연기론의 의미, 생명과 물질 세계에서의 연기론 및 중도사상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으며 부록으로 생명세계에 대한 확연적 이해와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에 대해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양형진 지음
신국판/288쪽/값 8,000원
도서출판 장경각

☎ 02-744-1541
서울성북구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빌딩 2층



인연을 비껴가지 마라

평범한 현실에서 날카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
인연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지혜의 속삭임

우리가 기다리는 인연은 한달음에 달려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관계가 때가 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연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애써 찾으려 할게 아니라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누구를 위해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고 마음을 씻어내야 만 하는 것이다. 인연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는 지혜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이상각 엮음
신국판 /228쪽/값 7,000원
지혜의나무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지금 여기에 살아라

있는 그대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느낄것이다.

삶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 삶 자체가 목적이다.
모든 목적을 버려라. 미래에 대한 관념을 버려라.
내일을 생각지 말라. 여기저기 분산된 그대의 의식을 한군데로 모아 지금 여기에 살아라.
그러면 한순간에 행복한 삶을 알게 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손민규 옮김
신국판/319쪽/값 9,800원
지혜의 나무

☎ 02-730-2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층



말썽꾼 귀신도 내말은 듣지요

귀신 쫓는 성안스님의 퇴마 이야기와 마음 다스리기

귀신은 실제로 있는가?
1,000여명에 가까운 신병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낸 퇴마스님 조성안. 이 책에는 그가 다양한 치유사례를 통해 밝혀낸 엄청난 비밀들과 치료 뒷이야기,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진 적나라한 퇴마이야기가 가감 없이 소개되어 있다.

성안스님 지음
신국판/295쪽/값9,500원(테이프 포함)
청하출판사

☎ 02-702-1660~2
서울 마포구 용강동 117-4 월명빌딩 5층



달산스님의 수족온욕법

- 간편한 수족온욕법으로 과학을 앞서는 치료효과를 경험-

이 책은 남산스님이 15년간 연구, 임상실험한 민간치유요법을 근거로 수족은욕법의 효과를 100% 증대시켜주는 핵심 파스요법 및 테이핑 요법 145가지 및 각종 질병에 알맞는 수족은욕법의 시간과 물온도를 상세하게 수록 하고 있다.

경상중인 여러분 중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이 요법을 시행하면 성인병과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족은욕법은 운동법이고 치료법이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수족온욕법은 15년간 수수 임상실험을 거쳐 얻은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족온욕법을 경험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

- 남산스님이 말하는 수족온욕법-

남산스님 지음
신국판/282쪽/값 10,000원
하남출판사

☎ 02-720-321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꽃 담

혜만 스님

'들꽃들이 수줍은듯 고개 내민 나지막한 꽃담 너머 바다를 닮은 섬 스님이 발그레미소를 지으며 보석 같은 섬 비진도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어느날 노트 한 권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꼭꼭 눌러서 정성스레 쓴 노트에는 어느 섬 스님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 해, 너그러울 만. 해만 스님은 남해의 작은 섬 비진도에 암자를 마련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구니 스님이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수행기입니다.

시공사 www.sigongsa.com ☎ 02-588-083 서울 서초구 1628-1

"眞訣 전하여 받았으니 超生了死 할지어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51

(50) 의발전수(衣鉢傳授)

달마는 사자경(四字經)과 육자경(六字經)을 설명한 데 이어 이른바 삼장 십이부(三藏十二部)도 풀이해 주었다.

"진경(眞經)은 종이에 쓰여진 경과 동일하지 않느니라. 따라서 종이 위에서 진경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니라. 하지만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꿰뚫어 아는 사람은 진경의 참뜻을 알게 되느니라.

진경은 무자경(無字經)이니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느니라. 본래부터 무일자(無一字)이지만 깨달아 닦으면 주야사시(晝夜四時)로 밝은 빛을 뿜어 내느니라. 사람의 몸은 비록 작으나 소우주(小宇宙)이니 삼장 십이부가 모두 그 안에 있느니라."

혜가는 머리 숙여 스승에게 물었다.

"삼장 십이부를 보다 자세히 풀이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게송을 읊었다.

오훈채 三厭 마구먹고

"금강경은 머리(頭)이니 그것이 신(信)인줄 누가 아는가. 반야경은 다리(脚)이니 누구에게 물어서(問) 알 수 있을까. 관음경은 눈(眼)이니 방촌(方寸)에서 떠나지 않도다. 뇌음경(雷音經)은 귀(耳)이니 가야금과 거문고 소리로다. 미타경(彌陀經)은 코(鼻)이니 현(玄)에서 나와 빈(牝)으로 들도다. 법화경은 혀(舌)이니 호흡의 맑음을 혀끝으로 길들이는구나. 다심경(多心經)은 마음(心)이니 침묵이 위본(爲本)이로다. 청정경(淸淨經)은 뜻(意)을 지키는 것이니 전강(前降) 후승(後昇)이로다. 청룡경(靑龍經)은 왼쪽 간(肝)이니 목모(木母)가 수정(守定)하도다. 백호경(白虎經)은 오른쪽 폐부(肺腑)이니 금공(金公)이 보살피도다. 북극경(北極經)은 물(水)을 다스리니 신장(腎臟)에 담아 두도다. 황정경(黃庭經)은 비장(脾臟)의 중궁(中宮)이니 법륜(法輪)을 돌게 하도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서천(西天)으로 가기 위해 천신만고했도다. 구구(九九)의 재(災)와 팔십일(八十一)의 난(難)을 겪으며 사중득생(死中得生)했도다. 삼장은 곧 성(性)이고 손오공은 심(心), 사오정은 명(命), 저팔계는 정(精), 백마(白馬)는 의(意)이니 오행(五行)에 배합(配合)하도다.

삼장법사 일행이 서행(西行)하기 14년. 십만팔천리(十萬八千里)를 가서야 비로소 뇌음(雷音)을 듣도다. 처음엔 무자(無字)의 경(經)이었지만 뒤에 글자로 옮겨 고쳤도다. 십이부의 진묘품(珍妙品)이 모두 사람 몸에 있거늘, 티끌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미매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분명 진경(眞經)이 초생료사(超生了死)의 도(道)이거늘 찾아 닦으려 하지 않는구나. 중과 도인들은 갖가지 경전에 매달려 목탁 치며 염불만 하는구나. 치심(癡心)으로 귀혼(鬼魂)을 제도한다고 착각하고 성심과 경건함이 없구나. 오훈채(五葷菜)와 삼염(三厭)을 마구 먹고 냄새나는 입으로 독경하며 염불하는구나. 가짜를 찾아 예배하고 부주(符呪)를 사르니 이토록 불문(佛門)을 깔볼 수 있을쏘냐. 부처님은 우선 이들의 망령(亡靈)에 죄삼등(罪三等)을 부가하리라. 가짜 중과 도인들의 과오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때가 되면 예외없이 삼도(三途) 즉 화도(火途)=지옥도(地獄道), 혈도(血途)=축생도(畜生道), 도도(刀途)=아귀도(餓鬼道)의 고통을 치루게 하리라.

> "진경은 無字經이니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느니라"

양무제(梁武帝)가 불교를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대도(大道)는 밝히지 못했도다. 그는 단지 불문을 일으켜 이익만 취하려 획책했을 뿐이로다. 어찌 불법(佛法)을 문란케 하여 후생(後生)을 그르칠 줄 알았으랴.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진(眞)과 가(假)의 길을 잘 살필지어다. 무자경(無字經)으로 자기를 초탈하고 나아가 불문의 종친(宗親)들을 제도할지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법된 지 28대에 이르렀도다. 동쪽 땅에서 본래의 그 사람을 찾아 도의 뿌리를 잇게 하도다. 그대에게 지점(指点)한 것은 황태아(皇胎兒)를 갖게함이니 방문(旁門)을 버리고 정도(正道)를 따르도록 할지어다. 진결(眞訣)을 전하여 받았으니 초생료사할지어다."

혜가에게 구전심결(口傳心訣)로 진경을 전한 달마는 소림사에서 전의수법(傳衣授法)의 의식을 거행했다. 달마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법명이 혜가임을 공표하노라. 아울러 그대가 노납의 선종법사(禪宗法嗣)임을 선포하노라!"

혜가 스승따라 면벽좌선

달마는 승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축에서 갖고 온 낡은 붉은색 가사와 음식 담는 그릇을 혜가에게 물려주었다. 선종에서 의발(衣鉢)을 전법의 증표로 삼는 것은 이때부터 비롯된 전통이다. 하지만 이 전통도 2대 혜가에서 6대 혜능까지만 이어졌을 뿐이다. 이것은 진법이 단전(單傳)되는 전통이 혜능 이후로는 복수(複數)로 분파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를 입을 때 오른쪽 팔을 바깥으로 내어 놓는 전통은 3대 승찬 이후의 승려들이 오늘날까지도 지켜 오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2조 혜가가 달마 조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을 때 눈밭에서 왼쪽 팔을 계도(戒刀)로 베어 바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요, 두번째는 좌방(左旁) 곧 사도(邪道)를 버리고 우방(右旁) 곧 정도(正道)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달마가 혜가에게 의발을 전할 때의 또 다른 예화(例話)로 이른바 안심(安心)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마음에 만법(萬法)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달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 앞으로 갖고 오너라. 너를 위해 안심(安心)을 주리라."



◇이홍기(1956~) 作 달마도(종이에 담채).

혜가는 스승의 말에 따라 자심(自心) 즉 자기의 마음을 찾아 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마음을 찾으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사옵니다."

혜가는 솔직하게 마음이 불가득(不可得)임을 고백했다. 이에 달마가 즉답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마음을 편안케 해 주었느니라."

달마의 해답은 불가득이 곧 안심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혜가가 스승 달마에게 구한 마음은 소아(小我)의 자아심(自我心)이었다. 이에 반해 달마가 혜가에게 찾아 준 마음은 대아(大我)의 자연심(自然心)이었다. 자아심과 자연심은 같은 것일까 혹은 별개의 것일까? 이것을 분별하여 알아 내는 것이야말로 안심을 찾는 지름길임을 달마는 깨우쳐 준 셈이다. 청산(靑山)은 본래 부동(不動)이다. 흰 구름만이 절로 오고갈 뿐이다. 여기에서 불역(不易)과 변화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안심으로 귀결된다.

소림사에서 전법의식을 끝마친 달마는 공식적으로 법제자가 된 혜가를 대동하고 치우 동굴 곧 달마 동굴로 올라갔다. 혜가는 스승을 따라 면벽 좌선에 열중했다. 때때로 시간을 내 스승과 함께 선법을 논했다. 역근법(易筋法) 세수법(洗髓法) 등 두 가지 공법으로 이뤄진 선체조도 전수받았다. 하지만 혜가는 선체조나 선무공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일었다.

"스승님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청정과 자비와 마음을 위주로 하는 불문에서 주먹과 팔다리를 놀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온지요?"

달마는 웃으며 말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얻으신 것은 육체의 고통을 떠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느니라. 심신일여(心身一如)이니 마음과 육체를 따로 구분하여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육체를 무시한 좌선만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얻어질 수 없는 법이니라. 심신일체의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난행(難行)이나 고행(苦行)만이 참된 수행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음을 도외시한 채 몸을 닦는 것 또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심신을 함께 닦는 것은 수행의 상보상성(相補相性)을 도모하는 것임을 명심할지어다."

혜가에게 모든 것을 전한 달마는 소림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혜가는 스승의 훈도를 계속 받고 싶은 심정으로 만류했다. 하지만 달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마치 바람처럼 치우 동굴을 떠났다. 떠나는 달마의 뒷모습에선 후광이 빛났다. 혜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향해 배례(拜禮)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혜가는 부복한 몸을 좀처럼 일으킬 수 없었다. 다시는 스승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절로 무거워지며 눈물이 흘려 내렸다.

혜가는 새삼스럽게 책임의 중차대함을 인식했다. 스승의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다.

"선천무위(先天無爲)의 대도(大道)는 성불(成佛)하는 묘용(妙用)의 기관이로다. 초생료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느니, 얻은 것을 어찌 가벼이 여길 것인가. 나는 생사와 성명(性命)을 위해 왼팔을 베어 내어 전법(傳法)을 얻었도다. 어려움을 이겨 내고 절차탁마하여 하나(一)의 전법을 얻어 밝혔도다. 스승께서 층층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로다. 풀어 놓으면 하늘과 바다처럼 넓고, 거둬들이면 겨자씨처럼 한끝으로 수습되니 하나(一)로 만(萬)을 꿰뚫는 참이치가 이것이로다. 후배 불자동려들에게 부탁하노니 만금(萬金)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법게 전하지 말지어다. 고해의 중생들이 정성과 경건함이 있으면 미망을 떼어내고 참(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지어다. 육도의 윤회를 살펴보니 백골(白骨)이 산처럼 쌓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나. 천기(天機)를 삽삽이 밝혀 누설하고 싶지만 상천(上天)의 감찰을 피할 수 없어 두렵도다. 다만 반은 밝히고 반은 감추어 후세에 대강 전하도다. 스승에게 현관의 지점(指点)을 구하면 영원토록 극락궁원(極樂宮院)을 증득(證得)하리라."

소림사를 떠나는 달마

혜가는 스승에게서 얻은 정법(正法)과 도맥(道脈)의 계승을 못내 감사하며 찬양의 시를 지어서 소리 높여 읊었다.

"불법은 분명히 설명으로 다하지 못하니, 한 권의 심경(心經)은 글자마다 진(眞)이로다. 종이 위에 쓰여진 유자경(有字經)은 원래 무자(無字)경에서 나왔으니 남가몽(南柯夢)을 꿈꾸는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날지어다. 큰바다 파도 속에 등잔불 하나, 심지를 돋우는 사람 없어 푸렷이 밝히지 못하도다. 만약 명사(名師)를 만나 친히 지점받는다면 안팎으로 사람을 비춰보게 할 수 있으리라. 큰바다 파도 속에 돛대를 세울지어다. 부처님께서 피안(彼岸)에서 기다리신 지 오래로다. 삼환구전(三還九轉)하여 그대들을 제도하려 오셨으니 인연 있으면 만나서 태미(太微) 곧 극락 이천(理天)을 증득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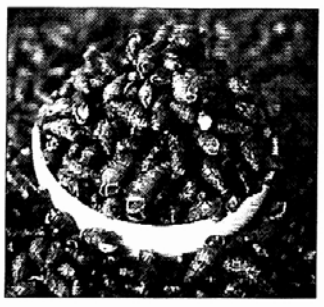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건강의천연가습황토달마



우주 달마의 기(氣)
자연 황토의 기(氣)
마음 청성의 기(氣)

성수로 달마의 전신을 적시면서 기도로서 합쳐졌을때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을 흡수하여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주는 황토로 빚은 달마입니다.

(실물크기 300×200×150)

금강토굴 호경 김휘철 합장

생일선물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효도선물

이런분께 권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마음먹은 일이 잘 안되는분
◆나쁜꿈에 시달리는분
◆이유없이 시름시름 아픈 분
◆부부 정이 멀어지는 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황토 달마의 신통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수맥과 전자파차단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실내의 습도조절은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각종세균및 곰팡이화를 황토달마가 해결합니다
◆세멘트 건물의 독성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인체의 면역성을 키워주는 황토달마입니다
◆황토달마를 곁에 두시면 정신의 건강육체의 건강생활의 건강 자연의 기(氣)를 충족시켜 줍니다

대구·경북 보급본부(딜러 및 대리점문의) 080-5858-080

"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어린 수자령을 해탈시켜 드립니다."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어둠 속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한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작은 생명들을 위해 나무 본존 지장 보살의 원력으로 천도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그 생명들이 지금 아빠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 우리들은 쉽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밖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이들, 부모들의 원인 모를 병환, 여기저기 무너져 가는 사업체들...
이런 현실은 우리가 함부로 버린 생명들의 저항입니다.
쉽게 버렸던 생명들을 이제는 감싸안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생명들의 한을 믿어주시고 현재 우리의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좋은 세계(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발원합니다.
핏덩어리 채로 죽어간 모든 생명에 다같이 참회하여 광명을 찾아줍시다.

선망 부모 천도제 상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648-5호
전화 053)957-9551, 954-9129
팩스 053)957-9551 휴대폰 011)398-9807

천도제 비용은 한 명당 3만원(옷, 과자, 우유)입니다

성불사 법장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구운 마늘환
100% 토종 구운 마늘
- 심한 피로/정력 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 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영물산 080-299-7700

평생같이 수행하실 분 모십니다
비구,행자 스님하실 분
노부부나 노보살님 또는
기도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1-6644
054)632-3184

산세가 수려한 청정도량에서 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도량에서 참선기도 요양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033)344-8616
011)732-86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052)211-100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93-3065
992-7064

대입시험 합격성취
- 특수비전 → 신비한 위력의 힘
- 수십년간의 전통 80%이상 효험
- 효험 없으면 100% 환불

천년사찰터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원조농산 (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삼백초 차 (건조 600g) 4인가족 1달분 4만원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증가, 뇌졸증예방, 중풍·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당뇨, 혈압 등
서울지사 02)508-0867
011)479-0633
어성초·삼백초 동우화원 모집

모 집
부전 소임을 보며 전통적인 불공시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스님을 약간명 모집합니다
- 강사 : 동주(元明)스님 (불교의식집, 승가의범 저자)
- 주지 : 성오 스님

서울 대방동 흥원사
연락처 02)822-1990
핸드폰 011)9646-1990(동주스님)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보 조
경기도 파주시
031)942-0265
011)730-0265

부전스님 모십니다
▷ 연봉 1500만원
053)656-676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16

스님이 안계시는 사찰에서 스님을 모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단 부산지역에 한함
018)222-7127
054)373-6108

독실한 불교신자 도반으로서 같이 이끌어 주실 분
성지순례 동반자 구함
▷ 55세~65세(여자분)
011)775-8070

오탁악세와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청정도량에서 소정의 기간동안(습의,참선,불교교리,염불)을 이수 후 포교당이나 암자를 맡으실 분이나 청정수행(정진, 기도)하실 뜻분을 모십니다
- 인원 : 5분
- 자격 : 승속피,기혼남여불문 5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 017)531-8582 묘 적 암

찬불가 피아노 렛슨
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찬불가 피아노 3개월 완성 ◇
◇ 찬불가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 직업연주반 ◇
피아노 전공자만 가능 에드튬 및 재즈와 클라식과 실용음악을 동시
◇ 피아노과 입시생 실용음악과 입시생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여러가 연주를 배우실 분
도연피아노학원
02-741-2214/018-272-2815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대각사옆

도와주세요
작은 후원금 도와주시면 전화 팩스로 연락주시면 즉화, 난그림을 보내드립니다.
- 우체국 300582-02-013752
- 예금주 : 석민

문의 휴:011)9846-3718
팩스:043)846-3718

알립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구암 큰스님 상좌 월파 스님께서는 이 광고를 보시는 즉시 하남시 정신사 (031-791-7732/031-794-1222) 나 달능스님(011-9802-0222)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월 6일 광고인 광선 합장
011)649-8588

보령제약
주부 사원 모집
- 연령 : 35~58세
- 주 5일 근무, 10시~17시까지

02)2235-7512
(2호선, 6호선 신당역)

기도법사(비구) 스님 모심
- 새벽, 사시기도 끝낸이후 본인시간
- 대학원 예정자, 재학 중 스님도 가능
- 법사지망생, 출가(행자)희망자
- 동대, 불교대학 지망생

나이 : 16~45세
서울 02)352-6407

아미타불은 전리요 생명이요 광명이다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행법 논쟁을 일삼고 육신이 세속과 승가에 안주하니 불법멸시로 신심을 고취하고 오탁악세에 선불장과고는 인심을 어지고 경통수행을 선불장은 올바른 존재 질서는 계율없으므로 바라 제도되어 죽음은 두렵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 갑고
1)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
2) 정토에 태어나 성불합시다
3) 한국의 임불 수행
4) 드로아미타불 (한국최고소 유심로부도 대우육성법력)
총 4권 27,000원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033)254-5397

사찰 안내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불 사
천년 고찰 복원 불사에 이천만원 보시하시면 결에서 명생 모셔 드립니다
공덕주(학주보살) 모십니다
농협 703088-52-037905 이민택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약북리 489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효도선물 - 부모님께 건강을 찾아드리세요!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억약품외 특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저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주 풍 :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몸에 없어져 몸이 가벼워집니다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포교원 하실분
- 의치 : 부산시 사상구
- 건물 : 4층 건물 4층 전관(옥상사용가, 남향)
- 건평 : 약 40평 법당, 큰방 2, 작은방 2, 주방, 욕실
- 가액 : 합 5500만원 전세 30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 : 삼존불,후불,신중,지장,탱화, 범종 기타 불교용품 및 광고물
- 특징 : 전철시 도보 3분거리, 6차선 코너 건물

051)317-0011

사찰 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동내를 끼고 있으며 경관이 수려함.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번화가
- 평수 : 4층 35평형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특징 : 법당 운영하실 분 대환영

016)710-85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 1동 지하철역 근접,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0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입법당, 후불탱화, 신간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5000만원

051)331-9937

포교원 안내
- 교통조건 최적
- 명륜역, 동부시외터미널 근접 온천동 요지
- 4층 45평, 큰방 2, 삼존불탱화, 지장 108불
- 시설비 : 2500만원
- 보증금 : 2500만원, 월 20만원

011)563-445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버스정류소 50m)고목,대나무 울창
- 가액 : 4억 8천

051)245-4012
011)617-4013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량섬)
- 부지 : 임야 3800평
- 중교시설허가용지 : 400평
- 법당, 요사채 : 35평
- 가액 : 해외이주관계로 3천 5백만원

※ 천연 청정해역 바다 묫산 산세수려하고 계곡물이 아주 좋음

016)207-5600
017)844-9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동(부천역 중동역 사이) 교통 및 주변 여건 좋음
- 건물 : 5층 건물 5층 옥상 사용 함 시설은 A급
- 평수 : 70평 법당 40평 방 5개

법당 : 석가모니불탱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단탱화 산신단탱화 영가단, 인등
- 보증금 : 14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32)666-7463/071)289-74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5분, 문경 (점촌)시 8분, 구미시 30분 거리
- 대중전,기와15평,고사칠실, 요사채 30평, 방 5, 기름보일러,용왕단,산신각,미륵당,성황당,각별채있을 부지 1800평 각종고목,대나무울창,산세수려함 1년에 1센티자라는 신비의 돌부처는 문화재일 산신의 영험있는 도량. 중생들의 기도처이경서
스님, 법사, 보살님의 법회최적지임
- 보증금(3년) 300만원, 권비 : 2500만원

011)541-1331
054)534-3883, 534-3361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 2동
- 건물 : 주택(1층) 법당, 방
- 내부시설 :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탱화, 호신불, 에어콘, 보일러시설
- 가 액 : 전세 1300만원

053)653-484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양목면 소재지 대구 김천시 구미 외간 중간 지점
- 신축, 요사체, 돌탑, 연못 완비
- 실평수 320평, 방 30만원
- 야산 5천평 사용 가능
- 창건주 직접
- 전세, 월세도 가능

017)813-9126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융자1천만원별도)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아닙니까

지리산 사찰부지
- 위치 : 욕조 혜능 스님의 정상이 모셔져 있고 일찍이 스님께서 예언한 해동제일의 명당쌍계사를 마주 하고 있는 화계장터 십리 벚꽃길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
- 현재 100% 녹차 밭 (1954평)
- 지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30, 606-2, 607
- 도로접 즉시 건축 가능
- 가격 : 평당 10만원, 주인직접

011)875-5500

행 자 모 집
이 시대 진정한 선지식이 될 주인공을 찾습니다.
여기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는 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진하고 있는 도심사찰 최대의 도량입니다
수행,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공부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문의 011-9852-0075 (송무스님)
통신과정, 인터넷과정 모집 중 TVbuddha.co.kr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평구청 지하철역 30m
- 평수 : 35평 방 2개 4층상가건물 3층
- 구조 : 본존불 본존탱화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중전 신중탱화 영가단
- 특징 : 주방살림 가능 집기일체 에어콘설치
- 시설비 : 가격절충

032)506-2369
018)350-5807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에서 택시로 20분거리)
- 부지 : 건물 2동 논, 밭 6000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승림 울창한 적정처. 주위에 송이버섯 많이 남 묫나무 유실수 다수 정원 잘 꾸며져 있음. 전기 전화 있음 가제도구 다 줌
- 가액 : 6,500만원 절충 가능

051)257-0052/018)762-4387

토굴 안내
- 대지 : 189평
- 법당 : 22평 • 요사 : 35평
- 수목다수, 전원주택 사용가능
- 이천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1억 1천(융자 1천만원 별도) (전세가능 5천만원)

031)634-2136
018)309-1760
※ 특이사항 : 묵언이 좋은것 아닙니까

사찰안내
- 위치 : 밀양 근교
- 임법당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40평
- 보증금 천만원 (시설비일체 양도함)

H·P 011)875-0730
- 문의 :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 장난 전화 삼가 바랍니다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곰팡이 방지 및 제거제, 퇴색방지 발수제"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031)479-2940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 치 : 서울시 강남 소재
- 법 당 : 108평
- 요 사 : 방 3개
- 보증금 : 6천만원 월 350만원
  ※ 내부시설은 최고 A급이며,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포교당
- 위 치 : 서울시 강북 소재 (지하철역 200m)
- 법 당 : 50평
- 요 사 : 방 4개
- 보증금 : 6천/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
- 대지 : 450평 전답 : 2100평
- 법당 : 30평, 요사체 : 30평 심야보일러, 신축 3년, 7층석탑, 미륵관세음 15자 증, 운란, 청정계곡접, 미시령터널 착공
- 가액 : 2억 7천(주인직접)

033)462-8073
011)699-6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번화가 (3층 건물 3층)
- 시설 : 50평 법당, 육존불, 후불탱화, 방 2개, 주방 등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16)261-2068
02)488-206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옆
- 법당 : 45평 • 방 2칸
- 주방, 삼존불 • 시설비 : 2000만원
- 보증금 :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절충가능

상 원 사 02)895-7512
011)230-7511/033)442-78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공주시 유부읍 읍내에서 5분거리
- 법당 22평, 산신각 5평
- 창고 8평 요사채 40평
- 특징 : 남향 임법당으로 단청 하였슴
- 가액 : 1억 3천

017)845-7090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촌 포교원개원 청담 1동
www.bulljichon.com 한글도메인 수산스님.com
무료 역학 상담 氣치료
서울시 강남구 청담 1동 원앙예식장 후문 맞은편 4F
문의처 02)3444-4376
02)3442-419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
- 법당 : 22평
- 요사 : 50평
- 부지 : 350평(종중)
- 가액 : 8천 5백

- 위치 : 경남(해안가)
- 법당 : 23평 산신각, 종각 옹왕당
- 요사 : 25평 외
- 부지 : 2,000평 (국유지 포함)
- 가액 : 4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 일자 2억 가능 외 일부금액 후불 가능
※ 도심에 접한 산속의 아늑한 1급 도량 임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체 : 35평
- 가액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경주 감포 10분거리)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 인법당포함, 건물 2동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1)495-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40평(신축), 삼존불(석자전),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입법당, 방 3, 화장실 2, 창고 1, 마당 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 명당, 전망좋음,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사찰을 운영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전세가능)
- 위치 : 충남 아산 온천 주변

011)701-0104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3억 9천만원
- 특징 : 산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지리산 토굴터
- 경남 함양 마천
- 부지 : 2583평, 대지 : 100평
- 특징 : 600고지, 천왕봉안대
- 가액 : 3,000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16)501-2725

포교당 안내
- 위치 : 고양시 중심 상가
- 규모 : 160.8평(빌딩 7층)
- 시설 : 법당 80평, 주방의 방 5칸, 명상실 1칸, 목욕실 1칸, 사무실, 가스냉난방 완비, 최고의 엘리시설, 시설비 2억 투자
- 특징 : 지하철역 근처, 법당 앞 공원, 아파트 숲 중심
- 가액 : 3억 5천만원(전세 1억 8천 포함됨) 답사 후 절충가능

011)306-0177
031)978-0530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일원
- 임야 : 5000평 대지 : 700평
- 기타부지 : 400평, 주차장 : 무한정
- 법당 : 20평, 칠성각 : 10평
- 산신각 : 1동, 요사채 : 2동(50평)
- 버스종점 보도로 5분
- 계곡 청정, 산세수려, 70년
- 가액 : 2억 3천

017)855-9551
055)637-1201

사찰 안내
- 경남 사천 사남면 와룡산 법성사
- 2층 법당, 삼존불
- 1층 요사채, 산신각 별도로 있음
- 경치 좋고 수려하고 조건 좋음
- 대지 : 158평 • 건평 : 65평
- 가액 : 8천만원
- 전세로 할경우 3000만원

011)834-9989
(비구니스님 환영)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 평수 : 55평(4층건물 중 3층) ※ 옥상 사용함
- 구조 : 청동본존 아미타불 청동 108원불 신장 지장탱화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2000만원/월 3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016)9889-8000

암자및토굴터
- 지리산 쌍계사에서 1.5Km
- 계곡낀 동남향 경관수려
- 부지조성
- 대지 387평
- 주인직접
- 가액 평당 10만원

011)559-3501

암 자 안 내
- 법당 25평
- 요사체 25평
- 관음전 7평
- 전 10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55)291-6405

전역 군종병들 군법당 세웠다

20여명 신행회 만들어 십시일반 모금

화천 관음사 새건물 낙성…위문법회도



◇관음회 회원들과 불자 장병들이 7일 호국관음사 신축 낙성식을 마치고 관음사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전역 군종병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군법당을 새로 지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비역 군법사들이 아닌 군종병들이 군법당을 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 화천 사창리 소재 27사단 78연대 법당 호국관음사에서 군종활동을 한 전역병 20여명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7일 50여평의 현대식 새 법당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여법하게 치렀다.

사창리 인근 불자장병들의 유일한 신행터전인 관음사는, 지난 76년 25평의 독신 장교 숙소(B.O.Q)를 개조해 만든 임시 법당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장병들이 불법에 귀의한 전법도량이다. 이에 비해 법당의 시설은 최악의 상태. 25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구석구석이 낡아 비가 새는 등 법회조차 마음 놓고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갈 수록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 장병들이 늘어나 더 넓은 법당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곳에서 군종 활동을 한 군종병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법당 신축불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원력이 실천행으로 이어진 것은 관음사에서 군종활동을 하다 전역한 군종병들에 의해서였다. 전역 후 한 두명씩 만나다가 모임으로 확대돼 '관음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그동안의 원력을 실천에 옮기자는 데 뜻을 모았다. 관음사의 발전과 불자 장병들의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 뜻바라지를 하기로 하고 가장 시급한 새 법당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게 되었고, 기공 후 5개월 만인 7일 회향식을 갖게 됐다. 관음사의 불사는 군종병들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했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보시를 받았다.

관음사 법당 신축불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오심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스님은 "군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을 한 군종병들이 전역 후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현역 불자 장사병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해 법당까지 마련해 준 일은 모든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관음회원들의 활동은 법당불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매년 두 차례,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5월과 관음사 창건 기념일인 10월에는 회원들이 모두 관음사를 찾아 위문법회를 갖는다. 이제는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다.

연대나 대대급 법당의 경우 사단 법당과는 달리 군종병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석예불은 물론 정기법회와 기도 등 군법사의 몫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사단 예하 부대에서 군종활동을 하다 전역한 군종병의 경우 군법당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대부분 안타까움에서 그치고 만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화천 관음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매년 두차례 위문법회를 갖는 전역 군종병들의 불심이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gamji@buddhapia.com



◇500여명의 미륵암 신도들은 8일 미륵불 점안법회를 열고, 개신교계의 강제철거 주장에 맞서 도량수호를 다짐했다.

봉래산 미륵암 수호 결의

강제철거 맞서 봉불식 갖고 토지매입 촉구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고신대내에 위치해 고신대 학생회측과 마찰을 빚어온 영도 봉래산 미륵암(주지 혜정)이 8일 미륵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도량 수호를 다짐했다.

1920년 창건된 미륵암은 고신대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토지거래과정에서 미륵암의 토지가 고신대 소유로 되어, 고신대측이 강제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륵암 신도들은 "고신대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온 정신적 귀의처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고신대측이 종교적 화해 정신을 발휘해 토지매입 협상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이 7m, 둘레 2.5m 청동 800관으로 조성된 미륵불의 봉안식을 가진 혜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신대측과의 갈등으로 철거위기에 놓인 시점에도 많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미륵불을 봉안하게 되어 뜻깊다"며 "모든 불교도들이 힘을 모아 이 도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신대는 토지거래과정에서 미륵암의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 학생회가 미륵암앞에서 기도나 집회를 벌이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어 미륵암 신도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천미희 기자



◇분당 대광사는 7일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불보전 낙성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수도권 포교 거점

분당 대광사 대불보전 낙성

수도권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전통사찰 건립을 발원한 천태종이 종단의 총력을 기울여 건립한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가 7일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연건평 1200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된 대불보전은 3층에 법당, 2층에 요사채, 1층에 종무소 및 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7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각계 귀빈 등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법회에서 운덕 스님은 "종단의 또하나의 대작불사가 이루어져 기쁘다"면서 "대광사가 대불보전 낙성을 계기로 수도권 불교를 중흥시키는 센터가 되어 새 시대 한국불교의 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민주당 한광옥 대표와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를 비롯 임태희 조성준 고흥길 의원, 김병량 성남시장, 박문석 종무실장 등 정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대광사는 향후 전통목조 2층 대법당과 종각, 누각, 일주문 등 전통가람형식을 갖춘 불사를 계속 추진한다. (031)715-3000

이경숙 기자

광덕스님 부도·비 제막

불광사, 사회과학硏도 설립

'불광 반야바라밀 사상 운동'으로 대중포교에 혁혁한 빛을 남긴 금하당(金河堂) 광덕 대선사(1927~1999)의 행적비(사진)와 부도 제막식이 21일 오전 11시 스님의 출가 본사인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된다. 또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불교와 사회과학간의 소통을 강조했던 광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상좌스님들이 '불광사회과학연구원(원장 · 지성)'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그 첫 사업으로 '광덕 큰스님 법어 총람 및 주해 요람'과 '불광수행요전'을 간행하는 등 불광정신 연구를 본격화한다.

불광법회 주최로 21일 열리는 광덕 스님 행적비 · 부도 제막식은 1부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가산불교문화원장인 지관 스님의 법어와 범어사 주지 성오 스님 등의 추모사, 비문 낭독, 2부 부도전 합동분향 참배 및 불광마하보디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된다.

광덕 스님의 행적비 비문은 도반 일타 스님이 열반에 들기 3개월전에 썼으며 글씨는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법진 정웅표씨가 담당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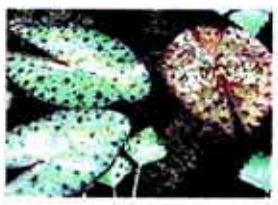


둔덕 가시연꽃 군락지

생태보전지역 추진

충북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둔덕저수지 일대 가시연꽃(사진) 군락지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지정이 추진된다.보은군은 이곳에 자생하는 세계적 희귀식물인 가시연꽃 보호를 위해 최근 충북도에 이 일대 3만 2천㎡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곳에는 3~4년 전부터 가시연꽃이 자생하기 시작, 올들어 저수지 전체 면적(2만3천900㎡)의 10% 정도를 뒤덮을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 군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작가와 관광객들로 가시연꽃 군락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며 "이 일대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1억여원을 들여 저수지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전망대 및 사진촬영대 등을 만들어 훼손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산불교연 장의사업

염습 등 최저비용 서비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불교복지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저렴한 장례비용의 장의사업을 펼친다.

상례가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 겪게 되는 통과의례인 것에 착안, 종파를 초월한 1,300여개 사찰 스님들의 뜻을 모아 장례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 부산불교연합회는 24시간 언제라도 장의 상담에 임하게 되며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장례용품, 차량 지원에서부터 납골 혹은 매장에 이르기까지 최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051)867-6411~2

부산=천미희 기자

대전시내 사찰 모두 191곳

10년새 31% 늘어…개신교회는 1천3백56곳

대전시내에 있는 사찰과 포교당은 모두 191곳. 10년만에 30.8% 증가했다. 또 각종 종교단체의 교당은 시민 865명당 한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9일 펴낸 〈2001 성장통계〉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전시의 교당은 총 1,607곳으로 시민 273가구당 한곳(전체 43만9,312가구)꼴로서, 10년전인 1990년(934곳)에 비해 673곳(72%)이 늘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총 1,356곳으로 10년 사이에 617곳(83.5%) 늘었다. 불교는 146곳에서 191곳으로 45곳(30.8%), 천주교는 22곳에서 37곳으로 15곳(68.2%) 증가했다.

그러나 기타종교는 27곳에서 23곳으로 오히려 4곳(14.8%) 줄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교직자수는 1,802명에서 3,031명으로 1,229명(68.2%) 늘었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워져드 김희균

본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법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身將)이 항상 수호해 줄으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3호 집터 표지 납골묘 전용 혹 육기방 3천 하우스 25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 법집의 힘 ☘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법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집은 좋은 명당에만 짐을 짓고 삽니다
●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요 합니다.
1.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않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화가 겹치시는 분 5.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 6. 결혼을 앞두신 분 7.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구입하십시오.
(주) 명당 육기(氣)방 ☎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누구의 작용 때문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이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이지, 무관이 이지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들지 안들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들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낳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할려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갈릴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改訂增補版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동안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점법 · 신소탈 · 빌미부정 · 잉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표는 법력(法力)의 정치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 · 신시(神將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 · 음양오행가 · 신병제자 · 의사 등 활인전문현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리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책에 주문에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81호 임성빌딩 1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회득 된 명성과 한문성취감에 비한다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출판원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금3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과에 대한 신청이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상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참석하시사 확인받으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목지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問 배상
天通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매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선농일치의 삶…수확의 계절"

홍성에 노동선방 '일과 깨달음 도량'

일각스님과 농민 10여명 대흥산 아래 1만평 터전 간이 법당 · 요사채 마련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대흥산 앞동네에는 선농일치 · 선교일치의 희망을 품은 노동선방 '일과 깨달음도량'이 하루하루 터전을 잡아가고 있다.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만든 법당과 요사채가 들어선 도량 앞편에는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뒷편 텃밭에는 가을 채소들이 싱싱함을 더해가는 일과 깨달음도량은, 함께 일하며 수행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각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10여년전 직지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동국대에서 공부하며, 출가 수행의 목표를 바꾸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필수코스로 선택하는 선방에서의 수행 대신, 중생들과 함께 숨쉬며 날로 파괴되어가는 우리의 자연과 인간 본성을 되찾는 수행에 매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노동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불교의 좋은 전통들을 오늘에 살려내기 위해 일과깨달음도량을 열었다"는 스님은 노동과 수행이 둘 아니라는 수행관을 생태적 관점과 접목시켜 농촌포교 및 농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3년 전 홍성으로 내려왔다. 이같은 스님의 계획에 이미 최환순, 이한영, 김동보, 윤세흥 씨등 10여명의 젊은 농민들이 동참했다.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홍성지역 농민들에게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할 생각이다.

스님은 올해 벌꿀과 옥수수, 쌀, 솔잎차, 감식초, 백팔효소, 메주 등을 생산했으며, 내년부터 된장공장, 효소공장을 짓고 소비자 주문방식의 생산시스템을 마련해 도농공동체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또 직거래를 원칙으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과깨달음도량에 직접 와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농부들의 땀 냄새도 맡아보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과깨달음도량은 '평상심(平常心), 평등물(平等物)'을 실천덕목으로, '선농일치 · 선교일치'를 청규로 삼아 생활한다. 또한 '새벽 4시 기상, 예불 및 기도-새벽 5시 좌선- 새벽 6시 30분 공양 및 일과 토론-오전 8시~11시 30분 노동선 수행-낮 12시~1시 점심공양-오후 1시30분-5시 노동선 수행-오후 6시 저녁공양-저녁 7시~8시 일과 토론 및 자자-저녁 8시 개인수행'으로 이어지는 일과 청규를 기본으로 생활하며, 모든 일의 결정은 공동토론으로 이뤄진다.

서릿발 같은 청규의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된 오늘의 선방 현실이 안타깝다는 일각스님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잘 여문 생태마을로 일궈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선농일치, 선교일치, 평상심, 평등물의 가치에 동의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도반(사부대중)을 기다린다. (041)631-1033 ilgak@chollian.net

홍성=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일각스님(오른쪽 두번째)은 뜻을 같이하는 홍성지역 농민들과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불교의 좋은전통들을 오늘에 살려내는 생태마을로 일궈나갈 계획이다.

희양산 봉암사 사찰림서 고란초 최대군락지 발견

조계종-녹색연합 조사 "산양 · 담비 · 천마 등 희귀 동식물 서식 보고"

조계종 특별수도원인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 사찰림에서 멸종위기식물(제99호)인 고란초의 국내 최대 군락지가 발견됐다. 하지만 희양산 정상부와 주능선에 많은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어 희귀 법정보호식물과 일부 한국 특산종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조계종과 녹색연합은 11일 지난 5월부터 10월 5일까지 백두대간 희양산 일대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에 걸쳐 있는 400만여평의 봉암사 경내지에 최소 2만개체 이상의 국내 최대 고란초 군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곡의 그늘진 바위틈에 붙어 자라는 상록 다년초인 고란초 서식지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에서 군락이 대량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암사 사찰림에는 고란초 군락 이외에도 한국특산종인 꼬리진달래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됐고 환경부 법정보호종이자 희귀식물인 천마와 솔나리를 포함, 6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새로운 생태계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양산은 희귀한 바위가 연봉을 이루는 자연경관과 함께 천연기념물인 수달, 산양, 하늘다람쥐, 환경부 법정보호종인 살쾡이와 담비,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이 서식해 시급히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일대는 400만여평 가량의 숲이 사찰림으로 조계종에서 특별관리해왔고 20년이상 산문폐쇄로 일반인의 인위적 접근이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보존돼 왔다. 그러나 최근 괴산군청이 희양산 정상부와 주능선을 증심으로 등산로를 조성, 관광지화한 뒤 최근 일요일에 7~8대의 관광버스가 희양산으로 밀려드는 등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는 "희양산은 지금까지 조계종의 보전과 관리로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의 낙원으로 지켜져왔다"며 "괴산군이 희양산 관광지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 일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봉암사 경내지에서 발견된 고란초 군락지.



◇11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아프간 전쟁반대와 세계평화기원 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세계평화를 발원하고 있다.

"미국 보복전쟁 반대"

'비폭력 추진위' 동참 14개 단체 성명

종교인 500명 명동성당-조계사 평화행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거 단체로 구성된 '비폭력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추진위'(공동대표 박광서, 김기병, 백창기)는 9일 성명을 내고 "테러 원인에 대한 겸허한 통찰과 대승적 방식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은 없다.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공존과 협력, 비폭력과 평화의 논리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도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아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 성명에서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고통을 주지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단체들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개 교단의 종교인 500여명은 11일 명동성당에서 '아프칸 전쟁반대와 세계평화 기원 종교인 기도회'를 개최하고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평화행진을 가졌다. 김재경 기자

울진 불영사 인근 속사댐 상류 12.7km에 건설될 듯

건교부 적극검토

울진 불영사 인근 왕피천에 건립 예정이던 속사댐이 상류 12.7km 위쪽인 울진군 서면 왕피리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사이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기양저수지 190m 아래 지점에는 3,700만톤의 댐이 재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울진군과 영양군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의사를 타진했다. 건교부의 의지대로 댐이 건설될 경우 속사댐의 규모가 1억9,700만톤에서 절반 가량인 5,100만톤으로 줄어들어 불영사와 왕피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지만, 불교계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여론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속사댐의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기양저수지가 댐으로 재개발되면 사찰의 피해는 줄지만 지역민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댐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조계종 및 환경단체들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댐반대 국민행동' 29일 창립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범영남권댐반대투쟁위 등 9개 환경단체 대표자들은 9일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댐반대 국민행동 창립식을 29일 갖기로 결정했다.

준비위는 건교부의 6개의 기존댐 재개발 등 16개 대형댐 건설 강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이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댐반대국민행동은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댐주변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거나 공동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섬진강 적성댐, 청양 지천댐, 한탄강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물 정책을 위한 학술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댐반대국민행동의 상임대표에는 최열 녹색연합 사무총장이, 공동대표에는 불교환경연대 등 4대 종교 환경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선임될 예정이다. (02)735-7000 김재경 기자

불교믿는 부모와 결혼한 자식 종교일치 39%뿐

천주교 75%-개신교 72%

부모와 결혼한 자식간의 종교가 같은 경우가 천주교 75.4%, 개신교 71.5%인 반면 불교는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가 39%에 그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사학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가족과 종교'를 발표한 은기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불교인 경우 자식이 무종교를 택하는 경우는 불교를 택하는 경우의 39%보다 10%이상 차이가 나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개신교를 믿는 경우 24%의 자식들이, 천주교의 17%가 무종교를 택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부모의 종교가 무종교+불교인 경우, 68%의 자식은 무종교를 선택해 불교를 믿는 비율(19%)를 크게 앞질렀다. 또한 응답자 부모 부부의 33%가 불교를 함께 믿고 있는 데 반해 자식 부부가 불교를 같이 믿는 경우는 전체 부부의 15%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24일 의정부시청앞 시위 북한산 관통도로 대책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와 대안노선 건설 및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지섭스님)는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7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위를 갖는다. 이에 앞서 불교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산 관통도르 대안노선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24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매주 수, 일요일 도봉산에서 홍보 활동을 서명활동을 벌인다. (031)848-6114 김재경 기자

'마음고요 禪房
마음고요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장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필사)
* 오라진동무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택색 /미국 마이크로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게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게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본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진회주시던 〈뇌파인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무승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향림 빌딩 2층 204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전화 : 02) 679-5902
H·P : 011) 288-2944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초년도 연회비 면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